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 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하는 것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불기 2561년 단기 4350년(음력 5월 20일) · 주간

대표안내 (02)2004-8200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 m 제1151호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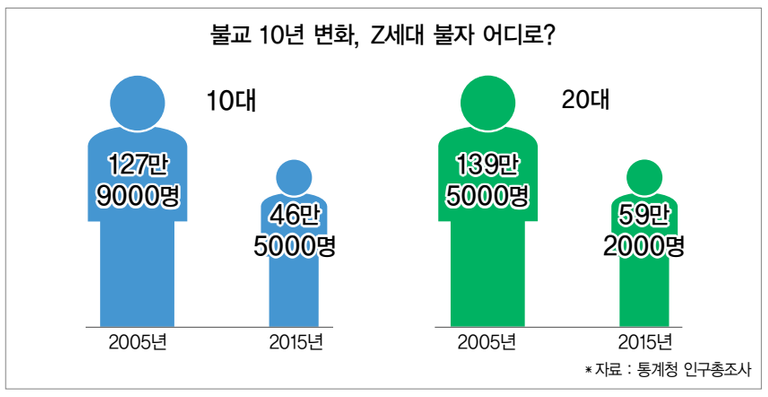
미래불교 성장동력 'Z세대'를 주목하라

[기획] 이젠 Z세대 포교다

① 왜 Z세대를 주목하는가

② 유튜브 속 불교 안보인다

③ Z세대 포교 콘텐츠 제언



'새로운 세상의 원동력' '신소비권력' 등 최근 젊은 세대를 뜻하는 Z세대에 수식어로 따라다니는 말이다.

현재 주목받는 Z세대는 X, Y세대에 이은 세대로 1995년 이후 태어난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세대를 칭한다. 이전 세대와 달리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미디어와 함께 성장하여 기존매체인 TV, 신문보다 모바일 SNS에 익숙하다. Z세대가 미래의 성장동력으로 꼽히는 가운데 이들을 불교로 끌어들이기 위한 포교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해 통계청은 '2015인구총조사 종교인구 조사'를 통해 불교신자 300만 명 감소라는 충격을 불교계에 안겼다. 이후 본지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추가분석한 결과 불교 내 10대와 20대 초반의 청소년, 이른바 Z세대가 급감했음이 드러났다.

Z세대 중 불자는 어느 정도 될까. 먼저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연령대 비교를 보면 각 종교별 20대 미만 신자는 불교 123만 6000명, 개신교 214만 2000명, 가톨릭 63만 6000명이었다.

Z세대로 분류 가능한 10대 불교신자는 46만 5000명으로 2005년에 비해 약 81만 4000명이 감소했다. 역시 20대 불교신자도 59만 2000명으로 80만명이 넘게 감소했다.

최근 발간된 〈서울사회학〉의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 · 종교 · 세대의 관계성 탐색' 연구자료에서도 서울시 20~30대 청년세대 중 불교 인구는 4.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눈길을 끄는 부분은 2015년 인구총조사에서 20대 미만의 불자의 수가 확연히 낮았다는 점이다. 20대 미만 불자는 전체 불자 761만명의 16%에 불과했다. 개신교 신자 중 20대 미만이 23%에 달하는데 비하면 매우 작은 수치다.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2015년 조사가 표본조사여도 1000만명 가량을 표본으로 잡았기에 수치가 유의미하다. 20대 미만, 즉 디지털 미디어에 민감한 신세대 불자들이 적은 것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불교계의 변화가 더딘 것이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승가대학에서도 젊은세대 포교를 위해 인터넷 포교 등 과목을 신설, 교육하고 있지만, 승단 고령화와 맞물려 한계가 있다. 불교 미래를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포교방안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세대에게 불교는 없다

10대 · 20대 초반 세대 통칭
디지털 · 쌍방향 소통 친숙
10년 사이 160만명 감소

콘텐츠 · 인프라 구축 과제

유튜브 속 불교, 기독교의 34%
더딘 모바일 전환 낮은 활용도
"Z혁신, 불교 Upgade 시킬 것"

불교의 미래를 담보할 Z세대의 중요성에도 정작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불교 콘텐츠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13세에서 20세 사이 청소년 95%가 애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유튜브(조사매체 '디파이미디어', 1500명 조사, 인스타그램 69%, 페이스북 67% 이용) 속 종교별 콘텐츠를 비교해 보면 더욱 그렇다.

유튜브에서 '불교' 주제어로 검색시 연관콘텐츠는 16만 8000개로 '기독교'의 49만 5000개의 34% 수준이었으며 '부처님' 주제어 검색시 연관콘텐츠도 8만 9400개로 '예수님'의 60만 5000개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이경수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회장은 "요즘 10대들은 콘텐츠 생산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를 소비한다. 특히 동영상 시청, 만화, 게임플레이, 커뮤니케이션 등을 주로 즐긴다"며 "10대 후반에서 20대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포교 콘텐츠를 찾아도 콘텐츠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10대와 20대 불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불교를 접하면 결국 오프라인인 사찰이나 신행단체로 나오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불교계 전문가들은 현재 불교계 온라인 인프라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불교계 대표IT기업인 다나의 최대종 대표는 "Z세대는 전세대에서 가장 낮은 TV이용률, 가장 높은 모바일 기기 이용률을 보인다. 하지만 대부분 사찰 홈페이지는 모바일 웹 기반이 아닌 PC웹 기반에다가 모바일 웹도 사찰음식, 불교 정보를 전달하는데 그치고 있다"며 "젊은 세대들이 모바일을 통해 상담을 하는 등 요구에 맞춘 웹 환경 조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백도수 능인불교대학 교수는 기존 설법과 포교 방식도 전반적으로 개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일본이나 중국, 미국의 경우 달라이라마, 탁낫한 스님들의 법문, 인터뷰, 강의 등 다양한 콘텐츠가 유튜브 등에 5분, 20분 분량으로 있다. 현재 사찰 신도들을 대상으로 한 법문도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이어 "대만 불광산사 성운스님의 설법도 예전에는 CD를 사서 들어야 했다면 이젠 유튜브를 통해 자동번역된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는 세상이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불교 변화는 법문, 불교정보가 전세계에 오픈된 시대에 한국불교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지관 대종사 가르침 이어 가겠습니다" 지관대종사 문도회(대표 세민)와 탑 · 비 건립위원회(위원장 설정)는 6월 5일 해인사 홍제암서 가산당 지관대종사 사리탑 · 비 제막식을 봉행했다. 사리탑은 팔각원각형 부조형으로 지관 스님의 유골과 사리3과가 담겼다. 부도탑 상부는 쌍봉사 철감선사부도탑, 중앙은 진전사 도의국사부도탑, 하부는 고달사지 부도탑 양식을 계승한 형태로 만들어졌다. 행적비는 고은 시인이 원고를, 서예가 송천 정하건 선생이 글씨를 썼다. **합천 해인사= 하성미 기자**

"국민 각성이 온전한 민주화 이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대 이사장 지선 스님

6월 8일 기자 간담회 가져
前 정권 사업회 인사 비판
"종교, 제 역할 못하고 있다"



"각성운동은 자기가 사는 사회에 대한, 구체적으로 역사적 · 사회적 의식이 없는 사람들을 깨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즘 인사청문회만 봐도 범죄자들이 앉아서 심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결국 국민이 각성해야 제대로 된 민주화가 이뤄집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지선스님〈사진〉은 6월 8일 기자간담회서 개인이익에 얽매여 민주화 발전을 저해하는 엘리트 인사들을 향해 날선 비판을 던졌다. 지선 스님은 먼저 하안거 기간, 사회 중책을 맡게 된 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혔다.

감회가 새롭다고 밝힌 지선 스님은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당시 기념사업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스님은 "이사진부터 기념사업회와 동떨어진 인물이 선임됐고, 사업회 또한 잘못 운영된 점이 있다. 그러나 이 또한 (민주화)운동의 한 과정으로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앞으로 민주화가 한 단체나 권력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 속에 스며들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폭넓게 의견을 수용해 민주화가 발전하도록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선 스님은 촛불집회로 시작된 탄핵 정국과 관련해 "처음도, 중간도, 끝도 좋았다"고 평가했다. 스님은 "처음 정국이 시끄러워졌을 때 외국으로부터 정치까지 선진화되진 않았다는 비아냥이 있었다. 몇 개월 뒤 촛불집회가 평화적으로 이어지는 걸 보고 민주주의 희망이 보인다는 칭찬을 듣게 됐다"면서 "수많은 전쟁과 근대의 여러 사건, 비민주적인 일들을 많이 거치면서 성숙된 것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끌어냈다. 우리 국민들의 미래가 밝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은 개인출세나 명예욕을 떠나 민생고를 어떻게 해결해줄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선 스님은 또 민주화와 통일은 둘이 아닌 하나임을 역설했다. 스님은 "통일을 담보하지 않는 민주화, 민주화가 담보되지 않는 통일은 허구다. 한국의 모든 현실적 고통의 근본 원인은 분단에서 시작된다"며 "결국 역사도, 철학도, 예술도 반쪽짜리가 됐다. '분단병'을 치료하기 위해 민주화운동을 해온 사람들이 계속 헌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선 스님은 이어 온전한 민주화를 위해 종교와 언론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막중하지만 대중에 실망을 주는 현실을 한탄했다. 스님은 "종교와 언론이 깨어있지 못하니 국민들은 생존경쟁에 시달려 각성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정치나 경제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종교가 해야 하는데 이익집단화 돼 제 역할을 못했다"고 반성한 뒤 "불교는 중생을 깨우쳐 부처가 되도록 한다. 시민으로서 상식을 갖추고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선 스님의 이사장 임기는 2020년 6월 4일까지 3년간이다. 스님은 1987년 6.10민주항쟁 당시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 공동대표를 지냈으며, 6월 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2007~2010)을 역임하는 등 6월항쟁의 상징적 인물이다. 스님은 1987년 6.10국민대회서 내란음모죄로, 1989년 6월항쟁 도화선인 이철규 열사의 죽음에 항거하다 옥고를 치렀다.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 공동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공동의장 등을 지내며 불교운동과 민주화운동에 헌신해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기자칼럼

종로 중앙버스차로제, 연등회 대안 모색해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사거리~흥인지문(2.8㎞) 구간에 중앙버스차로제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부터 한국불교 최대 축제인 국가무형문화재 제122호 연등회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5월 31일 JC데코코리아를 종로 중앙정류소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시행자 우선협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입찰에는 총 2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JC데코코리아는 디자인 · 설치계획 · 운영계획 등 정성평가에서 평균 68점(70점 만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번 달 내에 협상을 마치고 오는 7월 공사를 시작해 9월까지 마칠 계획이다.

하지만 정작 불교계는 이와 관련해 대응이나 대안 모색조차 하지 못한 상황이다. **본지 보도(1138호 참조)**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연등회보존위원회 ·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확인 결과, 서울시와의 추가적인 접촉이나 해결방안 모색은 이뤄지지 않았다.

연등회보존위원회 관계자는 "몇 달 전 정류소를 이동식으로 설치한다는 방침을 전해들은 이후 딱히 오고간 얘기는 없다. 종로 지하상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류소가 설치되면 보도쪽으로 옮기기 위해 거리 통제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비용을 행사 주최 측이 부담하라는 입장이어서 난감하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사회서 불교계 의견을 관계부처에 전하자고 결의한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오는 9월 봉은사서 열리는 제20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 준비로 인해 여력이 부족한 상태다.

불교계가 이처럼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칫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종교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하상가도 설득했고, 정류소 이동으로 행사에 지장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행사 주최 측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신뢰하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정류소 이동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연등회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문제도 뒤따른다. 결국 반대하자니 여론 눈치를 봐야하고, 수용하자니 비용이 부담인 셈이다.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 없이 손 놓고 있는 걸 이해해야할까.

현실적으로 중앙버스차로제를 반대할 수 없다면 현재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국고지원 증액 또는 서울시 협조 요청, 각 종단 분담금 상향 등 연등회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대안을 모색할 때다.

사월초파일이 국가공휴일로 지정되고, 연등회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며 전국적인 국민축제로 발돋움했던 과거만 돌이켜봐도 지금 상황은 열정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지금이라도 서울시 계획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불교계가 대비할 것은 무엇인지 연구해야 한다.



윤호섭 취재부 기자

포교 혁신, 전문성 강화로 돌파구 찾는다

조계종 포교 제도개선 TFT, 전문화 방침 세워

조계종이 일선에서 활동하는 포교사 전문성 강화를 통한 포교 혁신을 추진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홍)과 포교사단(단장 윤기중)은 5월 16일 포교 제도개선 TFT 첫 회의를 연데 이어 6월 1일 2차 회의를 열었다.

제도개선 TFT는 포교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한 것으로 포교원 국장단과 포교사단 임원들로 구성돼 있다.

포교 제도개선 TFT 활동은 5000여 명에 달하는 포교사에 대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포교사는 포교 일선의 첨병으로 활동해왔지만 지역단과 사찰 활동 사이의 갈등과 몇몇 사찰 스님들의 낮은 인식으로 매년 지원자가 감소하고 있다.

특히 TFT 회의에서는 현행 1차 필기합격에 이어 3개월 지역단 활동 후 선발과정에 전법 역량을 배양하는 교육을 추가하는 것이 논의됐다. 이밖에 포교사단 13개 지역단이 운영하는 400여 팀의 조직편제와 사찰과의 관계 개선 방법도 논의됐다. 포교원은 연내 포교원장 지홍스님이 주최하는 권역별 공청회를 열고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칠 계획이다.

포교사 전문성 강화 방침은 포교사단이 현재 진행하는 전문포교사 제도의 활성화에서 이미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 2000년 도입한 전문포교사 제도는 2007년 1기 양성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 전문포교사는 일반포교사로 3년 이상 활동하고, 단비 완납 및 분야별 연수 2회 이상 참석, 포교활동보고서 4회 이상 제출, 조계종 디지털대학 전문포교사과정 연수 등을 거쳐야 한다.

일반포교사 감소 타개책 모색
늘어나는 전문포교사서 착안
교재 보급 · 1년 연수 등 계획

현재 522명이 어린이 · 청소년 및 군경교도소 포교의 신행지도 분야, 불교문화해설 및 출판 · 인터넷 포교 등 문화예술 분야, 외국인 근로자 인권 및 복지상담 등 사회복지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특히 조계종 포교사단이 4월 17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 제11회 전문포교사 선발 서류전형에는 146명이 지원해 5월 15일 1차 합격이 발표됐다. 5월 28일 2차 면접 전형에는 144명이 응시해 역대 최다 인원을 기록했다.

이는 일반 포교사들의 전문성 강화 방침에 대한 높은 호응으로 풀이된다. 기수별 전문포교사 증가 추이를 보면 1기 40명을 시작으로 2기 20명, 3기 21명, 4기 11명, 5기 22명, 6기 55명, 7기 61명, 8기 79명, 9기 78명, 10기 135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포교사단이 지난해부터 전문성 강화를 기치로 내건 전문포교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포교사단은 최근 군포교, 교정교화 등 7개 영역 이론과 포교방법을 담은 연수교육 교재를 도입하는 등 교육 체계화에도 나선 상태다.

전문포교사 합격자 발표는 6월 15일로 포교사단은 140명이 넘는 이들이 배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기가 배출되면 660여 명에 달해 전체 포교사에서도 14%를 넘게 된다.

윤기중 포교사단장은 "일선 포교가 활성화 되려면 가장 먼저 포교를 진행하는 불자부터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일반 교리 중심에서 각 영역의 전문가를 배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TF과정에서 교육 커리큘럼을 세분화하고, 품계 전 연수도 1년 과정으로 늘리는 등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올해 5월 20일 진행된 상반기 전문포교사과정 연수 모습. 포교사단은 포교사 전문화 과정을 통해 지원자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창종 70주년 '진각 100년' 선포

6월 15일, 총인원 성역화 회향 헌공불사 봉행

대한불교진각종(통리원장 회성)이 총인원 성역화 원만 회향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6월 15일 오후 1시 총인원 앞 광장 야외 특설무대서 열리는 진각 100년 비전 선포식을 겸한 '헌공불사'가 바로 그것이다.

이번 불사는 진각문화전승원, 국제체험관, 교육관 등에 이르는 것으로, 행사는 1부 헌공불사와 2부 특별공연, 그리고 오후 3시 바자회에 이어 오후 7시부터는 회당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특히 회당문화축제는 그동안 종조탄생지인 울릉도서 개최해 왔는데 이번에 진각종 창종 70주년을 겸해 서울 총인원서 열려 눈길을 끈다.

1부 헌공불사는 자성동이부터 학생과 청년, 스승과 신교도, 외국인이 함께하는 육바라밀 꽃 공양을 시작으로 △강도발원 △개회예참 △총인원 성역화의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경과보고 △음성공양(금강원의 죽비소리) △기념사(진각 100년의 비전 선언문) △헌공불사 특별이벤트 △축하연주(진동하네 진언향기) △폐회예참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2부 특별공연은 봉은국악합주단 및 솔리스트의 공연과 특별 초청가수 설운도, 홍진영의 흥겨운 무대가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2017 회당문화축제'는 김경호 밴드를 비롯한 역대 회당문화축제 출연자들이 무대에 오른다. 이에 앞서 진각복지재단과 진각행복디자이너 'JVC'가 함께하는 지역복지기금 마련 자선바자회도 오거리 특설무대를 중심으로 총인원 주변 일대서 열린다.

"한국불교 밀교 성지 초석"
회당축제 서울서 개최 '눈길'
지역복지기금 마련 바자회도

진각종 총무부장 호당 정사는 "총인원 성역화불사는 '회향'이라는 의미를 담은 대사회적 실천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한국밀교문화 콘텐츠 생산과 전승보급에 기여할 진각문화전승원을 비롯해 청소년과 국제불교 교류의 중심이 될 진각국제체험관, 대사회적 실천의 중심이 될 진각복지센터와 성북 지역문화 교류와 나눔의 장이 될 복합 공간들을 통해 한국불교 밀교 성지가 될 초석을 마련한 것"이라고 성역화 불사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진각종 국제체험관과 교육관은 연면적 1만2천여㎡에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국제체험관은 내 · 외국인들이 체류하면서 한국문화와 밀교수행을 경험하게 되며, 교육관은 유치원과 교육연구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또한 지하 3층 및 지상 7층 규모의 진각문화전승원은 밀교의례 재현 및 전시관, 밀교문화콘텐츠센터 등을 갖춰 한국불교 전통 밀교문화의 변천 과정을 조망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의장단 선출 위한 조계종 원로회의

6월 22일, 6개월 잔여임기 수행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단 선출을 위한 회의가 열린다.

조계종 원로회의(의장대행 세민)는 6월 22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의장단 선출 등의 안건을 다룰 제54차 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번에 선출되는 의장단은 잔여임기를 수행함에 따라 임기는 오는 12월 11일까지다.

한편 지난 4월 열린 53차 회의서 밀운 · 원명 · 명선 · 도문 · 월서 · 혜승 · 현해 · 고우 · 법흥 스님 등 원로 9인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철웅(마곡사) · 설정(수덕사) · 법타(은해사) · 성타(불국사) · 지하(쌍계사) · 월주(금산사) · 보선(대흥사) 스님을 새 원로의원으로 선출했다. 또한 세민 스님을 부의장으로 선출, 의장직을 대행키로 하면서 총무원장 선거 이후 의장단 선출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 바 있다.

윤호섭 기자

태고종, 7월 13일 총무원장 선거

원로회의, 종회에 직선제 개정안 통과 촉구

태고종 제26대 총무원장 선거가 7월 13일 열린다.

태고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월봉)는 "7월 13일 오전 11시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1층 대회의실서 제26대 총무원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6월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선관위는 6월 13~15일 3일간 총무원장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 16일 자격심사와 기호추첨에 이어 17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후보자 정견발표회 개최는 후보자간 협의해 실시한다.

후보자격은 태고종 재적승으로 연령 55세 · 승랍 30세 · 법계 종사급 이상이다. 후보등록 예정자는 6월 12일부로 사찰주지 이외의 모든 종단 종무직(공찰주지직 포함)이 자동 상실된다. 또 입후보자는 선관위가 정한 기탁금을 후보등록과 동시에 납부해야 한다.

한편 이날 태고종 원로회의는 기자회견을 통해 "(총무원장 직선제) 종법개정안 부결로 본종의 진보성이 후퇴되고 종단 위상 회복의 계기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 중앙종회가 130회 임시종회(6월 19일 예정)서도 부결시킨다면 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윤호섭 기자**

공 고 문

대한불교 원효종은 오랜 기간 동안 종권다툼으로 인하여 분열과 와해로 대내외적으로 종단의 명예가 실추 되었는 바, 법원은 서울고등법원 2007라 1580호 결정에 의거 임시종정으로 김윤철(향운)스님으로 결정하면서, 종단의 위의를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김윤철(향운)은 2009년 4월 13일자 첫 종회에서 종헌 종법을 위배하여 본인을 총무원장으로 하는 안을 당일 상정하여 총무원장으로 선출하게 하고, 본인이 임시종정이 지위에서 자신을 총무원장으로 임명하고, 이후 총무원장 중심제로 종헌을 개정하여 종단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이에 종단의 종도인 이순서(원각) 이동수(성원)스님이 2009년 6월경 이 사건 종단 및 김윤철을 상대로 종단의 2009년 4월 13일자 김윤철(향운)을 총무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2011다101155로)은 2015년 2월16일 김윤철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이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위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2015나 7680로)은 2015년 6월 4일 종단이 2009년 4월 13일 경에 행한 김윤철(향운)에 대한 총무원장 임명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하였고, 그 즈음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7. 5. 12. 대구고등법원은 김윤철(향운)에 대한 2009년 4월13일자 총무원장임명이 무효인 이상 그 후 채무자 김윤철(향운)이 총무원장 지위에서 소집한 2013년 11월 28일자 종회결의도 무효이고, 따라서 위 종회에서 선출된 손영채가 총무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 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하였습니다(2016나1756호). 김순석(용일), 이동수(성원)등 외 16명은 대한불교 원효종 종단 임시 종정의 권한을 행사하는 김윤철(향운), 총무원장의 권한을 행사하는 손영채(우석)의 직무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울산지방법원에 신청하였고, 울산지방법원 제20민사부(2017카 합10083)는 2017년 5월 18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대한불교 원효종의 종정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김동윤을 선임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종정직무대행자는 종단소속 사찰과 소속 종도들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종무행정 질서를 재정비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사암등록증,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종도증 내지는 승려증을 재교부하고자 공고합니다.

다 음

(1) 갱신범위 : 사암등록증 / 주지 또는 대표임원 임명장 / 승려증 또는 종도증
(2)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사진 / 제적등본(타종단 소속이었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 도첩 / 자필이력서 / 증빙자료제출(2009년부터 2017년현재 분담금 및 승려 의무금 납부내역, 없으면 없는 대로 표시하시고 이유부기 바랍니다.)
(3) 접수기간 : **2017년 6월 12일 ~ 7월 11일 까지 제출**
(4) 수 수 료 : 서류접수 후 등록절차 진행 전 통지함
(5) 문 의 처 : TEL 051-241-3002 / FAX 051-241-3009

대한불교원효종 종정 직무대행 변호사 김동윤

5.18 광주, 불교는 무엇을 했나

5.18재단, 〈5 · 18의 기억과 역사〉 불교편 발행

5.18 광주 민주화운동 37주년을 맞아 당시 불교 사부대중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망라한 구술사 연구서가 나와 눈길을 끈다.

5.18기념재단은 최근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 · 18의 기억과 역사 8-불교 · 원불교〉편을 발간했다.〈사진〉

불교편에는 성연 스님(증심사), 의연 스님(백양사), 이광영(당시 진각 스님), 故김동수 열사, 박행삼, 김호균, 김형귀, 김광수, 정철 등 당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불교 인사들의 구술 인터뷰가 실렸다.

이들의 인터뷰는 당시 불교계가 어떻게 활동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증언들이다. 급박했던 순간에 대한 기억들과 더불어 5.18이 개인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 자료이기도 하다.

가장 극적인 삶을 보여준 인물은 진각 스님으로 적십자 구호활동에 참여했던 이광영 씨다.

본래 화엄사 스님으로 1980년 당시 나주 다보사에서 공부하던 그는 광주 증심사의 부처님오신날 행사를 돕기 위해 광주에 왔다가 항쟁에 참여했다.

5월 19일 도반 성연 스님과 함께 시장에 갔다가 계엄군의 시위 진압을 목격하고 스스로 시위에 나갔다. 참혹한 현장을 목도한 진각 스님은 헬리콥터의 기총사격으로 쓰러진 여학생을 적십자 병원으로 옮기게 되고, 의사의 부탁으로 적십자 봉사대원으로 활동한다.

혈액 보급과 환자 후송을 하던 진각 스님은 도청 근처에서 계엄군의 총격을 받게 되고, 부상자를 돕던 중 척추에 총을 맞았다. 대수술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하반신은 마비됐다.

당시 상황에 대해 진각 스님은 "몸이 저릴 때 나는 느낌이 총소리가 들리자마자 척추에 왔다. 그러고는 몸에 힘이 하나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넘어졌다"며 "그때부터 총을 연발로 쐈다. 두 명이 차를 못 타서 죽었다"고 말했다.

항쟁 이후 반신불수가 된 진각 스님은 사찰로 돌아가지 못하고 환속해 결혼했다. 이후에도 고초는 계속 이어졌다. 반신불수가 됐지만 '폭도'로 분류돼 강제 퇴원돼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했고, 지속적인 감시와 탄압 속에 살았다. 그러면서도 1982년 5.18부상자회 창립에 참여하는 등 운동 당시 부상을 입었던 시민들의 치료 · 보상을 위해 노력했다.

진각 스님의 도반 성연 스님도 시위에 참가했다. 구호대에서 활동한 진각 스님의 총상 소식에 그를 찾았을 당시 소회는 가슴을 아프게 한다. 성연 스님은 "진각 스님이 부모님 오시기 전에 자신을 증심사의 토굴로 옮기고, 그곳에서 염불하며 연탄을 피워달라고 했다. 빨리 이 몸을 벗고 인도환생해 다시 승려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며 "공감은 한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가. 결국 부모님이 오셔서 치료를 받게 됐다"고 술회했다.



구호 활동 참여 진각 스님
척추관통상 입어, 반신불수
환속 후 5.18부상자회 결성
성연 스님도 참여 후 고초
민불련 창립 기여 등 활동
관음사 · 증심사 등 지역사찰
불자회 활동상도 확인돼

항쟁 이후 성연 스님은 민주화운동에 투신했고, 1985년 민중불교연합 창립에 참여하고 이념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또한 인천 항쟁에 참여해 시위하다 구속됐다.

동생인 김동채 씨가 구술한 故김동수 열사의 삶에서는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전남지부와 원각사의 활동 일켠을 알 수 있다. 구술자는 "원각사는 금남로에 있는데 항쟁 당시 시민들이 피를 흘리고 절마당에 쓰러지니 신도들은 난리가 났다. 그때부터 신도들이 항쟁에 참여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불교학생회 22대 회장이었던 김형귀 씨는 광주 관음사의 봉축 준비를 하던 중 항쟁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대동고 교사였던 박행삼 씨(원각사 불일학생회 지도교사)는 고향 해남으로 가서 시민군을 조직해 광주로 오던 중 계엄군에게 무장해제를 당하기도 했다.

함께 수록된 정철 법사(광주불교교육원)의 소논문은 5.18민주화운동에서 불교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조계종, 3.1운동 100주년 사업 본격화

불교사회硏, 6월 30일 세미나… 첫 사업 시작

지난해 연구위원회 설립해
김광식 교수 등 위원 참여
불교 항일 인사 · 사건 · 사찰
망라하는 자료집 발간 계획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소장 일감)는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 발발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는 '불교계 3.1운동의 회고와 전망' '불교 독립운동가 개요(보훈대상)' '기념사업의 현황과 전망' 등의 전문가 발표가 이뤄진다.

이번 세미나는 조계종의 3.1운동 100주년 선양 사업의 첫 포문을 여는 것으로, 불교사회연구소는 오는 11월에도 불교계 항일 운동을 조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이어간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 · 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연구위원회(이하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연구위원회에는 김광식 동국대 특임교수를 비롯해 김경집 진각대학 교수, 김순석 한국국학진흥원 수석연구원, 이동언 前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연구위원, 이경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사, 한상길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 등이 참여한다. 이들 연구위원회는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계 항일운동 학술연구를 위해서 주제별, 시대별 연구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3.1운동을 비롯한 불교계 항일운동을 망라한 자료집 발간 사업은 눈길을 끈다. 불교 항일 인사, 사건, 사찰들을 총망라할 자료집에는 이를 뒷받침할 판결문, 당시 신문 · 잡지, 회고록 등을 수록될 예정이다.

또한, 매년 2차례 학술세미나를 통해 발표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논문집 〈3.1운동 및 불교계 항일운동 재조명(가제)〉을 매년 말 연속물로 발간할 계획도 갖고 있다.

박미경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100주년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 인사와 사찰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 · 조사를 통해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며 "민족종교로서 불교가 어떤 항일운동을 펼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성민 기자

"국정원 국내정보 담당관 폐지 환영"

조계종 대변인 명의 논평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이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조계종이 환영 논평을 냈다.

조계종은 6월 1일 대변인 주경 스님 명의로 논평을 내 "새 정부가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며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와 분리시키려는 실천적 조치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은 이어 "우리 종단은 민간과 종교계에 대한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1980년 신군부의 폭압적인 10.27법난, 2008년 종단 소임자에 대한 계좌추적, 2012년 종단 고위직 스님을 대상으로 한 불법사찰 등 아픔을 겪어왔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국가정보원은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 폐지를 계기로 과거 정부에서 자행한 불법사찰 및 정치공작의 진상을 규명해 향후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호섭 기자

종단개혁 연석회의 출범 '직선제' 촉구

선원수좌회 등 7개 단체 참여

청정승가공동체 구현과 종단개혁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가 6월 7일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전국선원수좌회 · 실천불교전국승가회 · 불교환경연대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연석회의는 이날 직선제 실현과 금권선거 등 악습을 바로잡고 한국불교 쇄신을 도모하고자 출범한다는 뜻을 밝혔다.

연석회의는 "대승의 보살은 밖으로는 자유롭고 정의로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켜켜이 쌓인 적폐 해소와 주권재민을 위한 길에 기꺼이 동참해야한다. 또 안으로는 무너진 조계종단을 바로 세워야한다"면서 "정법 수행이 사라지고 범계일탈이 만연하면서 승가공동체는 붕괴하고 연일 불자들이 절을 떠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연석회의는 총무원장 직선제와 관련해 강력한 뜻을 피력했다. 연석회의는 "구성원으로부터 모든 권력이 나올 때 그 집단은 화합을 유지하며 발전한다"면서 "대중공의와 종도주권의 실현은 붕괴된 승가공동체 복원을 위한 전제다. 종도들이 종단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 종단 대표자 또한 종도들이 직접 선출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에 참여한 스님들이 조계사 일주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선제 도입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법안 스님(前 불교사회연구소장)은 "종단의 집행 · 대의 기관 및 종단 언론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섰을까 생각한다"면서 "연석회의 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놓쳤거나 묵인한 종단 내 적폐들을 제대로 드러내 승가공동체를 여래의 집답게 복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석회의에는 전국선원수좌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불교환경연대, 신대승네트워크, 정의평화불교연대, 바른불교재가모임, 참여불교재가연대 등 7곳 불교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다. 박아름 기자

자승 스님, 李 총리에 '공정사회' 당부

석가탄신일 명칭 변경 등 불교계 현안 대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이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에게 공정한 사회 구현을 당부했다.

자승 스님은 6월 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예방을 받고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사회가 이뤄지도록 기원하고 있다. 총리께서도 이 부분에 관심 갖고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이 총리는 "현대사회는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보다 풍요롭고 편리해졌지만 사람들 마음도 그렇다고 하기는 어렵다.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많이 지도해주시길 바란다"며 "정치권과 종교계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또 "정부가 모든 걸 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교계 현안들을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원장 현응 스님은 "불교계도 총리님 직무와 관련해 국가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비공개 예방에서는 석가탄신일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것과 오는 9월 열리는 한중일 불교도대회 성공적 개최 등 불교계 현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악수를 나누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
사진제공=조계종 홍보국

이날 예방에는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해 총무부장 지현 스님, 기획실장 주경 스님, 사서실장 심경 스님,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나종민 문체부 1차관, 양홍석 공보비서관, 김재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장 등이 배석했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7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어학단기반 모집
● 초 6년 ~ 고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7년 6월 30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논현동 2-13 2층)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6길 8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http://www.njutcm.co.kr

일 주 문



제3회 조계사 연꽃축제

지현 서울 조계사 주지 스님은 6월 24일부터 9월 초까지 제3회 조계사 연꽃축제 '나를 깨우는 연꽃향기'를 개최한다.



금산사 5층 석탑 사리친견

성우 김제 금산사 주지 스님은 9월 5일까지 보물 제25호 금산사 5층 석탑에서 수습된 사리를 친견하는 법회를 연다.

부고 권익현 前 국회정각회장



권익현 前국회정각회장(자유한국당 상임고문 · 사진)이 6월 4일 오전 7시 향년 83세로 별세했다. 빈소는 분당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이며 발인은 6일 이뤄졌다.

권익현 前회장은 독실한 불자로 1984년 국회정각회를 창립한 데 이어, 1988년 전직 불자국회의원들의 모임인 정각동우회를 창립, 초대회장과 명예회장으로 역임했다. 1993년에는 국회법당인 정각선원을 설립하고, 전국 주요사찰 불사지원과 불교방송 설립, 경승제도 도입, 군승제도 발전 등 불교발전에 공로를 인정받아 2008년 조계종 제정 '불자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권 前회장의 본관은 안동(安東)이고, 호는 정암(亭岩), 법명은 혜명(慧明)이다. **윤호섭 기자**

부고 원의범 前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



원의범 前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사진〉가 6월 6일 별세했다. 향년 95세. 빈소는 현대아산병원 장례식장 33호실로 발인은 6월 8일 이뤄졌다.

원의범 前 교수는 1943년 혜화전문학교와 1954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했다. 1962년 서울대 대학원 박사과정, 1965년 인도 베라네스힌두대 박사과정을 각각 수료했다. 이후 동국대 인도철학과 교수로 봉직하며 후학 양성에 매진했다. **신성민 기자**

부고 백창기 前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백창기 前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사진〉이 6월 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7세.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2호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6월 7일 이뤄졌다. 백 前 회장은 1999년부터 2005년까지 20, 21, 22대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으로 활동하며 2004년 전국신도회와 중앙신도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성과를 이뤘다. **노덕현 기자**

"노블리스 오블리제 불자 실천 과제죠"

Interview

박창범 대한우슈협회장



행복바라미 캠페인 후원 활동
5월 16일 조계종 감사패 받아
한·중 불교교류에 기여 '다짐'

"기업인으로 사회에 일정부분 이익을 환원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와 나눔의 중요한 덕목이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미덕이 아닐까요."

5월 16일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날마다좋은날이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에 대한 후원으로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스님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은 박창범 대한우슈협회장(48, 법명 지산). 박 회장은 6월 7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불자 기업인들의 보다 많은 사회적 역할이 확산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난 박 회장은 1984년 종립학교인 대구 능인고에 입학하며 불자로서의 신행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불교학생회 활동에도 참여하며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구례 화엄사서 1000배를 하기도 했다.

박 협회장은 "여름수련회로 찾은 화엄사서 깊이와 뜻도 모르면서 무작정 절을 했다"며 "어느 순간 무념무상을 경험하게 되고, 이후 머리가 복잡해 질 때면 절을 하곤 한다"고 말했다.

부처님오신날이면 3도 3찰 순례를 하는 그는 매일 아침이면 명상을 통해 하루 일정을 정리한다.

박 협회장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창은 특수목적법인으로 IT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박 협회장은 보시의 중요성을 깨닫게 됐으며 행복바라미 캠페인을 통해 기여할 수 있게 이끌어 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불교계에서 진행하는 행복바라미 캠페인은 기독교계의 성탄절 구세군과 같이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시작이 될 겁니다."

그는 불자 체육인으로서 우슈가 한중불교 교류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에게 우슈는 중국문화를 알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이었다. 30대 초반인 1990년대 말 중국 대련에서 사업을 시작한 그는 우슈에 관심을 갖게 됐다. 2002년 대한체육회 서울시 우슈협회 부회장을 시작으로 2015년 대한우슈협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현재 우슈협회에는 국가대표 15명과 청소년 대표 13명이 활동하고 있다. 공무원 불자연합회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는 지난해 10월 종정 진제 스님을 만난 자리에서 스님이 전한 〈현대사회에서 선을 행하라〉 책을 읽고, 이 책을 불자 우슈선수들에게 보급하기도 했다.

최근 아시아청소년우슈대회를 구미에 유치하기도 한 그는 충북 보은군에 소림사 분원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그는 "우슈와 소림권은 밑바탕에서 통한다. 스포츠 외교를 넘어 문화 외교로 양국의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긍정적이게 변하는데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문화가 자리해야 합니다. 불교 기부 캠페인에 동참해 주세요." **노덕현 기자**

사드반대 불교연석회의 공식 발족

6월 2일 광화문 광장서 발족식



사드반대불교연석회의가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식 발족했다. 이들은 사드배치 철회와 함께 사드 관련 미국과의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사드반대불교연석회의는 "사드배치는 하루빨리 철회돼야 하며, 졸속으로 체결된 사드관련 미국과의 합의문을 공개하길 요구한다"면서 "또 무기도입과 군수품에 대한 온갖 국방비리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발본색원되어 올바른 국방개혁이 이뤄지길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불거진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 보고 누락 논란 관련 "황교안 前 대통령 권한대행을 정점으로 한민구 국방장관과 김관진 前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이 박근혜 前 대통령의 탄핵정국이라는 정치공백기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기정사실화하기위해 (사드를)긴급 배치하는 알박기 의도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

조계종, 라오스 난치병 환아 지원

복지재단, 5월 30일 라오스 보건부와 업무협약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과 라오스 보건부 · 라오스국립아동병원은 5월 30일 난치병 환아 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015년 체결한 업무협약의 갱신으로 △라오스 의료환경 개선을 통한 영유아 사망률 절감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난치병 환아의 치료 및 수술 지원 △난치병 쉼터 운영 △지속적인 건강 상태 향상을 위한 위생 및 영양개선 프로그램 운영 △의료진 역량강화 사업 등을 포함한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 관계자는 "재단 활동을 통해 라오스 어린이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고 부처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나길 바란다"면서 "이번 협약체결을 추진동력으로 삼아 좀 더 많은 어린이들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한국사찰림硏 소장에 이갑연 박사

6월 1일 이사회서 임명



사단법인 한국사찰림연구소(이사장 종수) 4대 소장에 이갑연 순천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국사찰림연구소는 6월 2일 "평택 국제대 국제웨딩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1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이갑연 교수를 새 소장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갑연 소장은 순천대 임학과를 졸업한 뒤 건국대와 강원대에서 각각 석 · 박사를 취득했다. 탐라대 정책개발대학원 최고정책결정자과정을 수료하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장,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원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한국사찰림연구소는 2013년 창립한 산림청 등록 민간 사찰림연구기관으로 '공사유림산림습원조사사업', 사찰림 내 산림유전자원 조사, 서울시 '2017년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사업' 등 연구사업을 진행해왔다. **노덕현 기자**

東大 경주캠, 선센터 건립 본격화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센터 건립이 본격화 된다. 동국대 경주캠퍼스(총장 이대원)는 6월 5일 백주년기념관 화백홀에서 '선센터 설계용역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선센터 추진위원장 수불 스님, 이대원 경주캠퍼스총장, 정각원장 법수 스님을 비롯한 교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선센터 설계 용역을 맡은 김개천 국민대 교수가 설계 계획을 설명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선센터는 정각원 맞은편 부지에 사무동 · 숙소동 · 공양동 · 선수행동 등 4개동으로 조성되며, 내년 7월에 준공 예정이다. **신성민 기자**

독거어르신 '떡 케익' 나눔 행사



옥수종합사회복지관(관장 상덕) 재가노인지원센터는 5월 23일 삼성카드 임직원 30명과 함께 성동구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떡 케익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나눔 행사는 삼성카드사의 조직활성화 연계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삼성카드 임직원들이 직접 떡 케익을 만들고 손편지도 함께 작성하여 독거 어르신 30가정에 전달했다. **노덕현 기자**

아주 특별한 영치유의 세계!!

제87기 최면 전생요법 · 빙의치유법 강좌

"한마디 말로 三生을 꿰뚫고 영혼의 아픔을 치유한다"



한국최면과학원 임 재 형 원장 직강

한국최면지도사 협회장
공인 심리상담 전문가
국제 최면 전문가

대학교, 공무원 연수원, 군부대, 기업체
경찰관서, 사찰 등에서 최면학 강의 및 초청 특강

저서 : 자기최면학, 타인최면학, 생활 최면
최면요법의 이론과 실제, 전생 · 빙의 등

KBS 굿모닝 대한민국/ 무한지대-큐
MBC 생방송 오늘 아침/ 무한걸스
SBS 미워도 다시한번 JTBC 부모 찾기
채널A 그 여자 그 남자 TV조선 가족 두개의 문
MBN 현장르포 특종세상 사이언스 과학향기
tvN 심령솔루션 엑소시스트 외
각종 TV/방송 다수 출연

세계보건기구(WHO)가 인정한 최면요법!
잠재의식 직접조절 – 강력한 개선효과!

※ 누구나 과학적인 방법만 익히면 자기개선은 물론 타인을 돕는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접수중

실전위주의 파워풀한 강의!!

매월 첫주 목요일 개강 – 1회 무료 수강 후 결정

▶ 매주 목요일 오후 1시 ~ 오후 5시까지 (7회 과정)
▶ 참가비 : 200만 원 (교재 및 수련 CD 제공)
▶ 최면지도사협회 가입 후 전생상담사 이수증 수여

전생요법 도대체 전생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전생 퇴행 요법은 무의식 속에 내재된 전생이라는 기억 속에서 원인모를 심리적, 신체적 고통의 단서를 찾아내어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의 제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게 하여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무의식의 틀을 재편성 함으로써 문제 해결은 물론 통찰력을 높여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찾게 한다.

빙의치유 몸은 왜 이렇게 이유도 없이 아픈 것일까?

빙의된 사람은 제3의 영적 지배 내지 간섭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되고 심심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며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이상행동, 괴벽, 정서불안 등 일상생활에 많은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이런 경우 빙의된 영가를 직접 불러내어 어떤 영가인지 당사자나 가족들이 알 수 있게 하고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는지, 들어와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내어 천도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실제 영가 장애가 아닌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망상 빙의나 다중인격과 같은 빙의현상도 올바로 진단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 개인상담 및 공·사 기업체, 사찰 출장강의 가능

성격 개선/ 자신감 고취/ 습관 교정/ 발표 불안/ 부부 문제/ 분노 조절
마음의 상처/ 대인관계 개선/ 스트레스 해소/ 스포츠 선수 기록 향상
집중력, 기억력 증진/ 게임 중독/ 알코올 중독/ 전생요법/ 빙의 치유 등

www.hypnos114.com
한국최면과학원
대전광역시 중구 석교동 13-1
042) 222-0737

순국한 의승들을 추모하고 싶습니다

Fact Check Q&A
'호국의승의 날' 제정 어디까지 왔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을 기리는 국가 및 단체 행사들이 6월 내내 이뤄진다. 6월 6일은 현충일이고, 6월 1일은 의병의 날이 있다. 하지만, 정작 임진왜란 등 국가적 환란에 맞선 의승들을 기리는 기념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조계종은 '호국의승의 날'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본지는 호국의 달을 맞아 '호국의승의 날' 제정과 의승군의 활동을 살펴봤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Q. '호국의승의 날' 어떻게 시작됐나

조계종은 2014년 6월 25일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위원장으로 한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매년 10월 15일을 '호국의승의 날'로 국가기념일로 제정하자는 서명운동을 1년동안 전개해 6만 3000명의 서명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호국의승의날은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는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종단 산하 불교사회연구소는 2011년 8월 호국불교 1차 학술세미나를 시작으로 승장 및 의승군 활동과 관련된 기초자료를 조사·발굴해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한국호국불교의 재조명〉 등 자료집을 펴냈다.

Q. 왜 10월 15일인가

이는 역사적 이유가 있다. 1789년 봄, 정조는 해남 대흥사 내 제향시설인 표충사 사액을 기념하기 위해 예조정랑 정기환을 보내 서산대사 제향을 봉행토록 했다. 같은 해 8월 27일 표충사에서 본격적인 춘추 향사가 봉행되기 시작했다.

추진위는 "1789년 8월 27일은 국가가 처음으로 '호국의승'에 대한 제향을 봉행한 날이라는 점에서 '호국의승의 날'로 충분한 역사적 가치가 있다"며 "해당 날짜를 양력으로 환산하면 10월 15일"이라고 설명했다.

Q. '호국의승의 날'을 왜 제정해야 하나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가 발간한 〈한국 호국불교 자료집〉에 따르면 조선시대 승장·총섭·승통으로 활동한 스님의 수는 768명에 달한다.

특히 임진왜란에서의 활동은 두드러진다. 서산 대사는 사명·처영·영규 대사 등과 5000여 승군을 모집해 왜군과 맞섰다. 서산 대사는 평양성 전투에 참여했고, 처영 대사는 권율과 함께 행주산성 전투서 승리했다. 사명 대사는 노원평 전투에서 승리해 한성 탈환의 큰 역할을 했다. 전라좌수영 의승수군의 활약도 매우 두드러졌다. 임진왜란 이후 조정은 남한산성, 북한산성의 축조·수비를 승군에게 맡겼고, 왕조실록 사고지를 모두 사찰 경내에 조성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해 영·정조 대에는 밀양 표충사와 해남 대흥사에 사액을 내리고 호국의승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제향을 봉행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국가 제향의 맥은 끊어졌고, 현재 개별 사찰들에서만 추모재를 지내고 있는 상황이다.

Q. 기념일 제정 어디까지 왔나

현재 한국에는 5개의 국경일과 45개의 국가기념일 공식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기념일이란 대통령령 6615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1973년 시행)'에 따라 제정·주관하는 기념일을 말한다. 국가기념일에 대한 규정은 시행령으로 돼 있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선언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고 주관부처가 정해지고, 이후 부처의 예산확보를 통해 각종 기념식과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추진위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자치부에 '호국의승의 날' 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이들 정부 부처들은 '호국의승의 날' 제정에 대해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문체부와 행자부가 제정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는 △'의병의 날'과 중복 △종교편향이다. 두 가지 문제를 넘을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 형성'도 이야기했다.

즉, 의승군은 크게 의병에 포함되며, 특정종교 기념일을 만들 경우 다른 종교의 반발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2014년 '의승의 날' 제정 추진해
1년 동안 6만 3000명 서명 동참

조선시대 승장·총섭·승통 768명
임란때는 관군·의병과 전투 참여
국가 차원 제향 일제 이후 끊어져
현재 개별 사찰서 추모제 봉행해

지난해 추진위 기념일 제정 요구
정부 "국민적 공감 필요해" 난색



Q. 의승의 날, 의병의 날과 중복되나

추진위 측은 이를 전면적으로 부인한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일, 의병의 날, 순국선열의 날 등은 모두 순국선열을 추념하는 것이고, 이는 내용의 중복이 아닌 '과거'를 기념하는 기념일의 공통된 특성이라는 것이다. '호국의승의 날'도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 볼 것을 추진위는 주장한다.

기념일 행사 역시 이순신 탄신일은 해군, 현충일은 국가보훈처, 의병의 날은 의령군에서 주관하고 있어 호국의승의 날은 시가와 주체면에서 기존 기념일과 중복되지 않는다는 게 추진위의 입장이다.

Q. 의승의 날, 종교편향 요소 있는가

이런 시각에 대해서도 조계종과 추진위는 반박했다. 가톨릭의 순교자 추모나 천도교의 동학농민운동 희생자 선양은 각 종교를 지키기 위해 '순교'한 것으로 이를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은 종교편향이 성립되지만,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순국'한 의승군들을 기념하는 것이 종교편향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역사상 등장하는 수많은 의승들은 '불살생'이라는 계율을 어기면서까지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헌신했다"며 "이들의 희생은 편향적인 '종교적' 목적과 가치에 기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래서 유교 국가인 조선 조정도 이들의 노력을 인정해 국가 차원의 제향을 봉행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Q. 기념일 제정위한 조계종 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한 달이 지난 상황이고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기념일 제정 사업은 아직 숨을 고르고 있는 상황이다.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기념일 제정을 위한 실무 협의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주현 조계종 대외협력실 팀장은 "행자부 측에서 호국의승, 호국불교 기념일에 대한 국민공감대 형성을 전제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미 종단 차원의 연구 자료가 많이 축적됐고,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국민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본다"며 "내각 구성이 완료돼 정국이 안정되면 실무 협의를 진행하려 한다. 또한 국회 교문위의 의원들과도 접촉해 '호국의승의 날'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국가 연방승가회 회장단 5~7개국 승정 증명법사 참석 확정

국제 승려 具足戒 금강계단 제5회 비구, 비구니계 수계 의식

부처님 당시의 상좌부 출가의식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와 종교법인 세계불교 법왕청에서는 400여 군소종단을 불문 어느종단 스님이든 출가 법납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되어도 먹물옷 다시금 여미며 초발심에 행자승의 마음으로 되돌아가 새롭게 발심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대승적 큰 뜻, 큰 마음으로 미얀마 연방정부의 종교성과 미얀마 연방승가회의 자문과 도움을 받아 법왕이신 우꾸마라 종정큰스님을 대화상을 모시고 구족계를 내려주실 三師 7尊證 大元老 큰스님들과 500여 증명 존증아사리들의 독경속에 상좌부 불교승려로 거듭나는 장엄하고 여법한 야단법석, 국제불교 금강계단을 마련했습니다.

구족계 계첩을 미얀마 연방승가회에서 정식 수여함

- 일 시 : 10월 11일 출발 6박 7일 일정
- 신청기간 : 7월 31일까지
- 참가서류 : 사진 부착된 이력서 1통 여권
- 참가신청 : 서울시 종로구 삼봉로 68(청진동 6번지 신영빌딩 303호) 우. 03158
- 장 소 : 미얀마정부 종교성내 양곤승가대학 5일간 입교함
- 문 의 : 011-229-6061

■ 주최 : 종교법인 국제불교지도자협회. 종교법인 : 세계불교법왕청 / ■ 후원 : 미얀마 연방정부 종교성. 미얀마 연방승가회

9월 中설두사에 '평화의불' 수 놓는다

108산사기도회, 5월 22일 中측과 회동… 9월 봉안 결정

설두사서 예비법회 및 회의 진행
이장 스님 "9월 진행 지장없다"
혜자 스님 "갈등해소 역할 기대"



108산사순례기도회는 5월 22일 중국 설두사에서 예비 회동을 갖고 평화의불 봉안법회를 열기로 했다.

사드 배치 문제로 한중관계가 경색 국면인 가운데, 108산사순례기도회(회주 혜자, 이하 108산사기도회)가 9월 중국 설두사에서 평화의불 봉안법회를 개최한다.

108산사기도회는 5월 22일 중국 닝보시 설두산 설두사를 방문해 평화의 불 봉안에 앞서 예비법회 및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동에서 양측 대표단은 불교문화교류를 통해 한중 갈등을 해결하고 소통과 화합으로 평화정착에 앞장서기로 협의했다. 한국 108산사기도회 대표로는 회주 혜자 스님(도안사 주지)을 비롯해 회원 108명이 참여했으며 중국 설두사 측에서는 방장 이장 스님이 나섰다.

회동에서 양 대표단은 형제결연을 맺고 평화의 불을 설두사에 봉안하기 위한 불사를 9월 중 봉행하기로 했다.

이어 108산사기도회 대표단은 설두사가 건립 중인 불학원을 견학하고, 한국의 불교대학과 자매결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하기로 했다.

혜자 스님은 "부처님 탄생성지에서 이운해 온 평화의불은 현재 다양한 갈등지역 70여 곳에 봉안됐다"며 "한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 5대 명찰이며 시진핑 중국 주석의 원찰인 설두사에 평화의불을 봉안해 양국 평화 정착 및 문화교류의 다리를 놓고자 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스님은 "평화의불이 아직 북녘땅에 봉안되지 못했다. 9월 중국 설두사 봉안을 계기로 북한에서도 평화의불을 봉안하는 행사가 열렸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설두사 방장 이장 스님은 "한국 신행문화를 대표하는 108산사기도회와 설두사 간 교류는 뜻깊다. 양국 평화 정착을 위해 실질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며 "제자인 오성 스님을 종립 동국대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배려를 해준 혜자 스님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절강성불교협회 회장직도 수행하고 있는 이장 스님은 이어 "정부기관 및 불교협회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히며 "9월 행사가 지장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108산사기도회는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상해 옥불사, 중국 관음성지 보타낙가산, 항주 영은사, 서호 등 중국 주요 불교성지를 순례했다.

한편, 중국 저장성에 위치한 설두사는 중국 5대 명찰 중 하나로 운문종 4조인 설두중현 스님이 주석한 사찰이다. 설두중현 스님은 설두사에서 원오극근 스님이 쓴 〈벽암록〉의 모본인 〈송고백칙〉을 완성하고 공안을 정리해 공안선을 탄생시켰다. 공안선은 이후 한국불교의 대표 수행인 간화선으로 이어진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군종교구장 정우 스님(사진 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군승들이 6월 2일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호국선열, 불교가 잊지 않으리"

불교계 호국의달 6월, 다양한 추모행사 진행

불교계가 호국의달을 맞아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가장 먼저 조계종 군종교구(교구장 정우)는 6월 18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광장에서 '제17회 호국영령 천도대법회'를 봉행한다. 천도대법회에는 한국전쟁 참전용사 및 유가족, 보훈단체, 참전국 무관, 군법사와 신도 등 2000여 명이 참석한다.

또 한국전쟁 발발 67주년인 6월 25일에는 육군 5군단 호국 금강사에서 34회 호국영령 위령대재를 봉행한다.

이와 함께 은평구불교사원연합회(회장 성운)는 6월 14일 오전 11시 은평구청에서 제28회 호국충혼대법회를 봉행한다. 연합회는 법회에서 보훈유가족을 비롯해 봉사자 등에게 장학금과 표창장을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현충일을 앞두고 6월 2일에는 군종교구가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교구장 정우 스님을 비롯한 군승들은 서울 국립 현충원을 찾아 군 복무 중 순직한 군승 묘역에 헌화하고 반야심경을 봉독했다. 노덕현 기자

불교계 자살예방교육에 몰린 관심 '화제'

불교상담개발원, 6월 30일부터 2차 전문가양성과정 개최

1차 40명 병원에 50여 명 몰려
2차 강좌 후 지킴이 활동 전개



전문가 과정에 참여한 불자들이 삼귀의를 하고 있다.

불교계가 진행한 자살예방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이 눈길을 끈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가섭)은 6월 30일부터 7월 2일 3일간 서울 안암동 개발원 교육관에서 자살예방전문가 양성기초과정을 연다고 밝혔다. 이번 강좌는 6월 3일과 10일, 11일 서울 템플스테이정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열린 양성과정에 몰린 참가자들로 인한 것이다. 전문가 양성과정은 서울시자살예방센터와 4대 종단이 함께하는 자살예방사업인 '살사'(살자 · 사랑하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열렸다.

우리나라는 자살이 노인과 청소년 사망원인 1위로 꼽히고 있다.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40명에 달하는 상황이다.

당초 40명 정원으로 강좌를 마련했지만, 50여 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참석했다. 특히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는 스님을 비롯해 사회복지사 및 포교사, 사찰 자원봉사자, 학생 및 군인 등 다양한 직종의 불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불교상담개발원 연구위원 선업 스님, 서울불교대학원대 교수 효록 스님, 전나미 덕성여대 강사의 현실적인 자살예방 교육을 수강했다.

불교상담개발원장 가섭 스님은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 기초과정을 통해, 불교계 자살예방 전문가들이 많이 배출되길 바란다"며 "지역사회에서 사찰이 자살예방센터 역할을 해야 한다. 불교계가 자살예방 활동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섭 스님은 특히 사찰 자살예방센터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한편, 2차 자살예방 전문가양성과정은 총 60명을 모집하며 6월 23일까지 교육신청을 하면 된다. 18시간 교육 이수시 수료증이 발급되며 자살예방지킴이 등으로 활동 가능하다. (02)737-7378

노덕현 기자

월드머시코리아, 라오스 승가고교 준공

古都 후아판주 쌈느아에… 1억 6000만원 투입

여성 접촉금지로 교육 못받아
1년 8개월간 불사 성료


쌈느아 승가고교 준공식 모습

국제구호 단체 월드머시코리아(대표이사 현진)는 5월 10일 라오스 후아판주 쌈느아에서 스님들만을 위한 고등학교를 준공했다.

쌈느아는 라오스 고도(古都)로 산악지역의 작은 지방도시이지만 불교발상지 중 한곳으로 많은 스님들이 수행하는 곳이다. 그러나 15세부터 18세의 스님들은 율법에 따라 여성들을 가까이 접촉할 수 없기에 일반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라오스 중앙불교와 쌈느아 연합 불교회로부터 이 같은 사정을 듣고 1억 6000만원을 투입, 2015년 9월 착공식 후 1년 8개월에 걸쳐 현대식 고등학교를 건립했다. 쌈느아 승가고등학교는 총 8개 교실과 1개의 교무실로 이뤄져 있으며, 2층에는 도서관이 자리하고 있다.

이번 준공식에는 파캄 필라바 라오스 부통령과 반카이 펭수마 후아판주 부지사 등 정부인사들과 스님 및 일반불자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필라바 부통령은 "고도인 쌈느아서 스님들의 전문 고등교육이 가능하게 됐다. 정부에서도 많은 스님들이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월드머시코리아에 감사를 표했다.

월드머시코리아 대표이사 현진 스님은 "쌈느아 승가고등학교에서 라오스 불교의 큰 스승이 많이 배출돼, 불교 뿐만 아니라 사회를 계도하길 바란다"고 축원했다.

한편, 월드머시코리아는 5월 30일 미얀마 마궤이도 네마웃군 레부마을에서 태풍으로 쓰러진 중학교를 다시 건립하는 준공식을 개최했다. 월드머시코리아는 2011년 레부마을에 고등학교를 건립한 바 있다. 레부마을 우산디마 스님은 "학생들은 은혜의 깊음을 알고 열심히 공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반가운 단비 속, 흥겨운 '어르신 효 큰잔치'

봉은사, 6월 7일 효 큰잔치 개최



모처럼 반가운 단비가 내린 날, 적적한 어르신들에게도 반가운 공연 한마당이 찾아왔다. 서울 봉은사가 어르신들을 위한 효 큰잔치를 벌인 것. 어르신들은 빗길에 내딛는 걸음이 불편한 줄도 모르고 아침부터 부지런히 봉은사로 발걸음을 옮겼다.

봉은사(주지 원명)는 6월 7일 보우당 특설무대에서 어르신을 위한 효 큰잔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강남구가 개최한 '어르신 경로잔치'에서 봉은사 주지 원명 스님이 "내년(2017년)에는 봉은사도 어르신들을 위한 잔치를 열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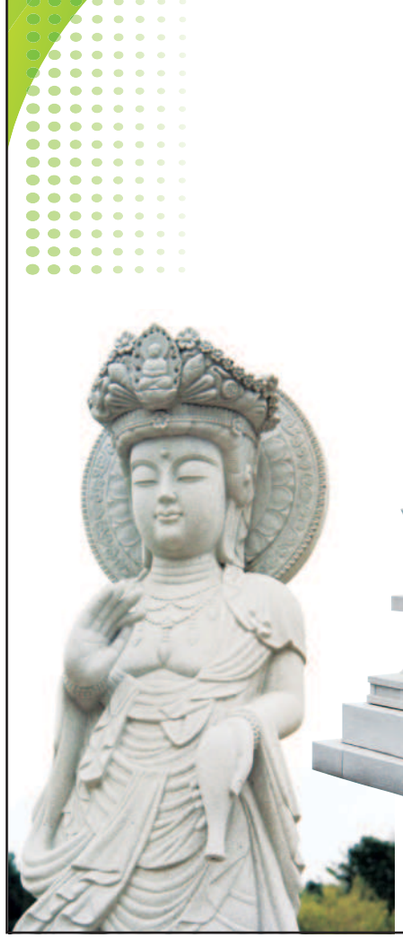
불자 개그맨 이상민 · 이상호 씨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어르신 500여명이 모여 흥겨운 무대를 즐겼다. 대치노인복지센터 우리춤체조 팀의 '부채춤' '사랑가' '창부타령'으로 문을 열어 봉은사 풍물연등회 · 무용연등회 · 국악합주단 등 공연으로 열기를 더해갔다.

정병희(83 · 여) 어르신은 "한복을 곱게 입은 젊은 불자님들이 공연을 해주니 즐겁다. 그리고 먹을거리까지 준비해줘 심심한줄 모르겠다"면서 "이런 행사 덕분에 일상의 활력을 얻는다"고 웃어보였다.

어르신들 뿐 아니라 공연을 준비한 봉은사 공연팀도 즐겁긴 마찬가지였다. 봉은사 풍물연등회 소속 장진실(58) 불자는 "우리 고유의 악기로 어르신들에게 잠깐이나마 기쁨을 드릴 수 있어 보람차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많이 열려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주지 원명 스님, 신연희 강남구청장, 한원덕 봉은사 신도회장 등 내외빈이 참석했다.

원명 스님은 "차린 것은 없지만 어르신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담았다"고 짧은 소감을 밝혔고, 이어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봉은사에서 강남구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를 베풀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미소 조각원
泰煌(태황) : 대한민국 문화재 조각기능 보유자
불사 문의 050-2879-8709 010-3629-8709




9층 석가대탑
조성기간 : 13년 6개월
높 이 : 17미터

문화재기능인목조각 제5772호 · 대한민국대한명인수미단 제483호
보리수불교예술원
DAUM NAVER
네이버는 검색창에서 보리수불교예술원 검색 ⇨ 카페 앨범 검색 ⇨ 목록 검색하시고,
다음에서는 다음카페 검색하시면 사진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상, 닫집, 수미단, 사천왕, 건축, 목탱화, 법상, 경탁,
경상, 현판, 주련, 복전함, 인등, 연, 단청, 개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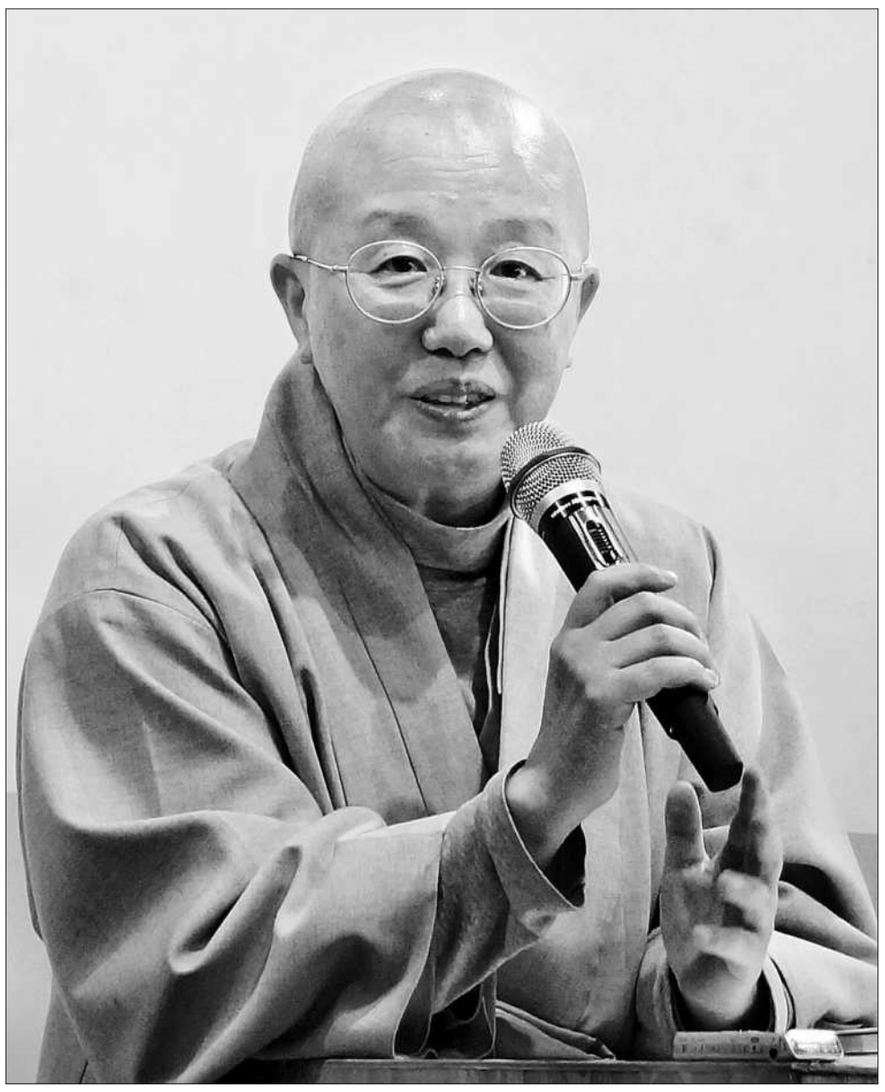
대표 오동렬 합장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봉현로 154-10 wangborisu@hanmail.net
전화 031)573-1269 / 010-5254-7596

“하루살이처럼 오늘을 값지게 쓰자”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 ‘오늘을 사는 지혜’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

어제의 하루는 이미 지나갔고, 오늘의 하루 역시 흘러간다. 누구나 하루를 살아가지만 그 하루를 잘 보냈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하지 않는다. 다가올 내일을 기다릴 뿐. 하지만 나에게 내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보장은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 매순간 마음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 은유와마음연구소 대표 명법 스님은 5월 28일 서울 불광사 일요법회서 ‘오늘을 사는 지혜’라는 주제로 법문했다. 스님은 “오직 주어진 것은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이라며 “온 마음을 다해 상대방을 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리=윤호섭 기자**



명법 스님은… 서울대 불문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미학과에서 석 · 박사 과정을 졸업했다. 해인사 국일암으로 출가한 스님은 현재 각 교육기관 등서 미학과 명상, 불교교리를 강의하고 있다. 다양한 수행문화단체 등과 철학 세미나를 비롯해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저서로 〈미술관에 간 붓다〉〈선종과 송대 사대부의 예술정신〉 등이 있다. **〈현대불교 자료사진〉**

고개 말고 몸을 돌려라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는 이야기는 시 한 편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좋아하는 설악 무산 스님의 시인데요. 시조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필명은 조오현이라고 속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현 스님으로 더 유명하시죠. ‘아득한 성자’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하루라는 오늘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뜨는 해도 다 보고
지는 해도 다 보았다고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알 까고 죽는 하루살이 떼

죽을 때가 지났는데도
나는 살아있지만
그 어느 날 그 하루도
산 것 같지 않고 보면
천 년을 산다고 해도
성자는 아득한 하루살이 떼

불교는 우리에게 올곧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사는 노하우를 전해줍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것일까요? 여러 가르침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딱 오늘뿐입니다. 어제도, 내일도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순간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하루를 온전히 살았는가 되돌아보면 그렇지 않다고 대답할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제 은사스님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은사스님께서는 5년 전쯤 열반하셨는데요. 당시 연세가 93세셨습니다. 장수하셨죠. 마지막에는 건강이 안 좋아져 요양원에 계셨는데 그 모습도 저에겐 큰 가르침이 됐습니다.

그때 저는 운문사에서 학인들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한 달에 한 번쯤은 은사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그러면 항상 은사스님께서는 책을 읽거나 염주를 돌리고 계셨죠. 어느 날은 불필 스님이 찾아오셔서 은사스님에게 심심하지는 않은지 여쭈었어요. 그러자 은사 스님은 “난 심심할 틈이 없다. 하루에 염주도 1천 번을 돌리고, 아미타부처님도 외고, 경전도 읽는다”고 말이죠.

보통 일이 없거나 누가 찾아오지 않을 때 혼자 있으면 굉장히 심심하죠. 그리곤 무얼 할까 고민합니다. 대체로 쇼핑을 하거나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하는데 그다지 나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일이 많습니다. 잊고 지낸 사람이 잘 지내는지 걱정돼 전화한다기보다는 기분 나쁜 일 좀 하소연하고, 다른 사람 험담도 하려고 하죠. 그렇게 자신의 시간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매순간 온 정성을 다해 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환희심을 내고, 깊은 경지를 이해하고자 하면서 질문이 시작되죠. 〈금강경〉의 시작이기도 한데요. 부처님이 아침에 일어나 씻고 발우를 들고, 탁발 나가서 공양하고, 편안히 앉아 삼매에 드는 모습을 보고 수보리가 묻습니다.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키느냐”고 말이죠.

부처님 제자 중에도 부처님 같은 모습을 보인 분이 있습니다. 5비구 중 한 분인 앗사지(마승) 존자가 탁발을 나가 먼 거리를 돌아다니며 목건련과 사리불을 만나죠. 목건련과 사리불은 이미 수준 높은 수행자였음에도 품새가 남다른 앗사지를 보고 스승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즉 앗사지 존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 코끼리인 건 다들 아시죠? 혹시 왜 그런지도 아시나요? 부처님께서 사성제 설법을 할 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이 강을 건널 때 헤엄을 친다. 하지만 코끼리는 바닥을 짚으며 걷는다.”

우리를 열반으로 인도하는 여러 방법이 있지만 사성제는 바닥을 짚고 가는 것과 같다고 해서 코끼리 발걸음에 비유합니다. 아주 단단하게 수행하기 때문인데요.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자면, 부처님은 사람을 볼 때 고개만 돌리거나 흘겨보지 않습니다. 온몸을 다 돌려 바라봅니다. 코끼리도 그렇습니다. 동작의 사소한 차이 같지만 이 안에 담긴 정신은 아주 다릅니다.

고개만 돌리면 내 마음의 한 부분만 가지만, 온몸을 돌려 바라보는 건 내 마음이 온전히 상대방을 향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행동하셨고, 5비구들도 이 같은 태도로 대중을 만났기 때문에 사리불과 목건련 등이 개종을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할 것이 이것입니다.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주 깊은 선정에 들거나 극한의 고행을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내가 만나는 하루하루 일과에서 정성을 다해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돌아보세요. 바쁘다는 이유로 휙 지나가는 경우도 많죠. 심지어 자녀들이 얘기할 때 ‘어, 어’ 건성으로 대답하고 정작 기억하지 못하는 일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전심전력을 다해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하루 허투루 쓰면
오래 사는 것조차 무의미
마음 비워 대상 집중해야
충실한 시간 보낼 수 있다

마음을 다해 상대방의 얘기를 들으면, 단순히 말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얼굴을 바라보면서 어디가 불편한지,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해하게 되고, 그가 행복해하면 같이 누릴 수 있게 되죠. 그런데 대체로 우리는 건성으로 듣거나 몇 가지 정보만 따서 그것을 해주면 내가 거기에 보답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 가장 간단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법회에서 법문을 들을 때는 당연히 이런 마음을 내시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내 가족, 친구, 직장동료 등 모두에게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귀 기울인다면, 서로의 소통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가장 충실하게 사는 방법이 됩니다. 달리 좌복을 펴고 명상을 해야만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다시 시로 돌아가 보죠.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데 그 하루를 온전히 산다는 얘깁니다. 한 일이라고는 3가지밖에 없죠. 뜨는 해 보고, 지는 해 보고, 알을 까는 것. 근데 이게 하루살이가 해야 될 온전한 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하루에 비유하면 어떨까요? 탄생도, 죽음도 경험하게 되겠죠. 우리 인생에 주어진 일은 아마 각자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일구고 사는 것, 어떤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 여러 역할을 할 텐데 그것을 온전히 했는가 되묻는다면 당당할 수 있을까요?

또 한 가지 더 이상 더 볼 것 없다고 죽는 것. 오현 스님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됐다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과연 더 볼 것 없고, 할 일 다 했다고 후련하게 갈 수 있는 자세가 돼 있나요?

죽음이 언제 우리에게 올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한 평생이 누군가에겐 길고, 누군가에겐 짧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다 한 뒤에 갈 수도 있고, 준비도 못한 채 황망하게 갈 수도 있죠. 그 언제든 우리가 미련을 두지 않고 갈 수 있는지 되새겨야 합니다. 하루를 충실히 산다면 미련을 두지 않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짐작해봅니다. 그래서 천 년을 살아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야 성자가 아닌가 반문하게 됩니다.

제가 은유와마음 스토리텔링을 하며 기억에 남은 분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 한 분은 금생에 어떤 모습이 나의 은유인 것 같은지 묻자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단단하고 쓸모가 많아서 언제든지 꺼내 쓰는 그릇이요. 시간이 지나도 편하게 잘 쓸 수 있어서 어떤 음식을 만들든지 사용하게 되는 스테인리스 그릇이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여쭈자 더 놀라운 대답을 하셨습니다. 다음 생에는 화려한 샹들리에나 멋진 그릇도 되어보고 싶지만 청정한 감로수를 담는 그릇이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맑고 굳건한지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마음속에 청정함이 있다면 이 순간 모두 맑은 물처럼 충실한 삶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방법은 결국 앞서 말씀드린 하루살이 떼처럼 사는 것입니다. 어려울 게 없어요. 주어진 그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부처님 제자들이 보인 것처럼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내 생각을 하면서 남의 이야기 듣는 게 아니어야 합니다.

아난존자가 뛰어난 기억력 갖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마음이 비워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덕분에 부처님 말씀을 몰입해서 들을 수 있었고, 가장 많은 가르침을 기억하게 됐죠. 전통적인 선불교에서는 아난존자를 낮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탁월한 분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인연을 소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주어진 것도 잘 해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지막으로 행동을 비롯해 나의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습은 다음 생까지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으로 습을 들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허튼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결국 좋은 습을 들이게 합니다. 요즘 우리가 겪는 문제들은 허튼 생각에서 오는 게 많으니까요. 허튼 생각만 안 해도 하루를 정말 충실히 사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내가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는지 돌아보세요. 남 잘되는 것만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 험담만 하는 사람도 있고, 모든 것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 자신에 대해 불만을 갖는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자신은 알 겁니다.

‘노는 입에 염불한다’는 옛말이 있죠. 조금 달리 해석하면 한순간도 놀지 않고 마음을 올바른 데 쓰는 것이 곧 수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에 마인드풀니스(mindfulness) 명상 등이 유행인데, 명상할 때만 마음을 올바르게 쓰려하지 마세요. 습관이 명상할 때도 나타나는 법이니 평소에도 마음을 바르게 쓰는 훈련을 해야 명상도 더 잘 됩니다.

인 사 말 씀

대한불교 원융종

성공적인 학술세미나에 감사드립니다



삼보님께 합장 정례하옵고 대한불교 원융종 제1회 학술세미나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개최되었기에 일일이 찾아뵙고 인사를 올려야 하오나 우선 지면을 통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 2일 한국역사문화관 국제세미나실에서 개최한 원융종 현재와 미래의 발전방안을 위한 학술세미나가 불교 학자들의 열띤 주제와 토론으로 성황리에 회향을 하였습니다.

특히 관심을 가지시고 축사를 해주신 한국불교 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부회장이시며 한일불교 이사장이신 관음종 총무원장 홍파 스님과 종단협의회 회원종단 각 총무원장 스님 또한 정부 주무관청인 문화관광체육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학술 세미나를 초석으로 삼아 대한불교 원융종은 불교의 원융무애사상을 근본이념으로 미흡한 부분을 더욱 보완 하여 앞으로 제2, 제3의 학술 세미나를 계속이어서 주관해 나아갈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대한불교원융종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원융종 총무원장 배진호 合掌

종 도 모 집

문화관광부 허가 2009-2호 / 제2014-9호 / 등기번호 230121-0003919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종 정 승천 진성 대종사
총무원장 야숙 여몽

총무부원장 석담 성우 총무부장 원담 진원 교무부장 현진 영현 재무부장 현경 대암
호법부장 현수 대선 사회부장 서법 자광 포교부장 성담 해선
사무처장 이민숙 사무국장 장백선

불조의 혜명을 받들어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정진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 가시고자 하시는
제방의 스님들과 인연있는 불제자님들을 모시고자 하오니 수희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입종서류 : 주민등록초본, 반명함판 사진 3장, 사찰(법당)사진
■ 문 의 : 총무원 - 인천 서구 가정동 494-26 원각사
전화 032)578-2122. 010-5002-7392(총무원장)

(사)한국불교조계종승정원 총 무 원

극락의 풍경 속으로 들어가다



강소연 교수의
불화 속 스토리텔링

④ 위데휘 부인 극락 체험기 ㊥

서방극락 연꽃에 왕생하고자
돌아가는 길 속세인연 끊겠다고 말하지 말라
단지 지는 해가 매달린 북과 같다 여기고
오롯이 눈앞에 분명히 보도록 하라
–제1관 지는 해를 상상하는 관. 〈관경16관변상도〉의 게송

속세가 싫다고, 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세상과의 인연을 버리겠다고 절규하는 위데휘 부인에게 "극락에 태어나고자 속세 인연 모두 끊겠다고 하지 말라!"라고 부처님은 일축합니다. "여기를 버리고 저기를 가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단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내관(內觀)하면 극락이 열린다고 하는군요.

緣起하며 흐르는 세상

극락으로 가는 16단계의 관법(16관법) 중, 첫 번째는 '지는 해를 상상하는 것(日沒觀)' 입니다. 극락의 풍경을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관무량수경〉에 의하면, 해가 지는 저 지평선 너머, 번뇌의 장막이 걷히는 그곳에 다시 엄청난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오온(五蘊)이 만들어 놓은 망상의 세계 이면에는 공덕으로 장엄된 세계, 소위 극락세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의 '업

극락 모습을 설한 〈관무량수경〉
지혜의 눈으로 보는 세계 묘사
16단계 관법 통해 극락 이르러
연기·무상 알아야 자유를 얻어

의 눈' 으로 보는 세계가 아닌, '지혜의 눈' 으로 보는 진리의 세계, 실상의 세계를 문자로 비유해서 풀어놓은 것이 불교 경전이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불교 회화입니다.

보배나무의 꽃봉오리에서는 온갖 열매가 맺히고 있는데, 그것은 흡사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나오는 보배 병과 같다. 거기서 눈부신 광명이 나오고 그것은 그대로 깃발로 변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배 일산이 된다. 보배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세계 모든 부처님 세계의 일이 비쳐 나타나고, 시방세계 불국토 또한 그 안에 나타난다. 이같이 보배 나무를 관조하라.
– 극락의 나무를 관(觀)하는 '보수관(寶樹觀)', 〈관무량수경〉

극락의 투명한 유리 땅에는 높이가 8천 유순이나 되는 보배 나무가 자라고, 꽃과 잎사귀 마다 찬란한 빛이 뿜어져 나옵니다. 꽃봉오리에서는 열매가 맺히고, 열매는 무수한 여의주를 품고 있고, 알알이 여의주에서는 눈부신 빛이 뿜어져 나오고, 무량한 빛줄기들은 다시 깃발과 같은 파장으로 일제히 진동하며, 깃발들은 다시 무수한 보배 일산으로 변해 허공에 펼쳐집니다. 우주에 펼쳐진 일산 속에는 삼천대천세계가 다시 펼쳐지고, 시방세계의 불국토가 그 안에 나타납니다.

그 무수한 불국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사는 지구이겠지요. 법계가 펼쳐지는 풍경을 보면, 마음과 물질을 넘나들며 어머어마한 스케일로 '무상(無常)' 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망망대해 속의 잠시 스치는 한 점, 모래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극락의 연못, 여의주에서 팔공덕수가 뿜어져 나오고 그 물은 연못으로 들어가 연꽃을 피운다. 연꽃에서는 영혼이 연화화생하게 된다. 조선초기 〈관무량수경〉 변상판본.

극락 진입할 때 만나는 여의주

"그 찬란한 빛의 위신력과 공덕을 찬탄하는 지극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으면, 바로 부처님 나라인 극락을 맛볼 수 있다"고 〈아미타경〉에는 쓰여 있습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을 때, 비로소 만나게 되는 극락의 요체는 무엇인가. 우리는 극락의 풍경을 그림으로 그린 다수의 변상도(變相圖: 경전의 내용을 그림으로 도해하여 알기 쉽게 표현한 것)에서 둥근 여의주를 곳곳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보석 중의 왕인 여의주에서 부드러운 연못물이 흘러나온다. 열 네 줄기의 물줄기가 흘러나와 황금의 연못을 만든다. 연못 바닥에는 눈부신 금강석이 깔리고 개울마다 둥글고 탐스러운 연꽃이 피어난다. 그 흐르는 물소리는 삶이 무상하다는 진리를 알게 해준다. 여의주에서는 아름다운 금빛 광채가 나고, 그 광채는 백 가지 보석 빛깔의 새로 변한다.

–극락의 연못을 상상하는 '보지관(寶池觀)' 중에서

연화화생의 원리

여의주에서는 물만 뿜어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서로운 빛도 뿜어져 나옵니다. 이 빛은 다시 아름다운 극락의 새들, 극락조로 화신합니다. 극락조는 '괴롭고, 공하고, 덧없고… 내가 없다' 라는 천상의 진리를 지저귑니다. 이러한 유기적인 환상의 끊임없는 순환이 계속됩니다.

경전 내용에서 부단히 만나게 되는 여의주는 바로 부처님 또는 불성(佛性)의 추상적 표현입니다. 우주만큼 큰 여의주가 있는 반면에, 모래알만큼 작은 여의주들도 있습니다. 영롱한 여의주의 향연입니다. 우리는 보통 부처님이라 하면, 사람의 모습으로 화신한 후덕 원만한 모습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의주(법신)와 부처님(응신)은 동격으로 여의주가 추상적 표현 그대로 라면, 부처님 형상은 구상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불상이나 불화이건 간에 본질적인 불성(佛性)의 모습인 원상(圓相)의 여의주가 없는 존상은 없습니다.

부처님 머리인 육계 한 가운데에서 둥그렇게 불뚝 솟아오르고 있는 것이 바로 '여의주' 인데 이를 전문용어로 육계 보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의주' · '여의보주' · '보주' · '마니보주' · '영락구슬' · '보배구슬' 등은 모두 '빛을 발하는 둥근 상' 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는 궁극의 깨달음 또는 불성(佛性)을 표현할 때 쓰는 다양한 용어들입니다. 또 몸체에서 둥근 빛을 발하지 않는 부처님과 보살님은 없는데, 편의상 몸에서 나오는 빛을 신광(身光)이라 하고 머리에서 나오는 빛을 두광(頭光)이라고 합니다. 빛을 발하는 둥근 상을 2차원의 평면에 묘사할 때는 일원상(一圓相) 또는 원상(圓相) '○' 의 형태로 묘사합니다. '생명의 빛이 나오는 둥근 원' 으로 규정되는 '만다라' 의 역시 같은 조형적 맥락입니다.

고려시대 및 조선 전기의 '관경16관변상도' 를 보면 화폭의 상단 가운데에 커다란 여의주가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서는 상서로운 물이 뿜어져 나와 극락의 연못을 만들고, 연못에서는 연꽃이 피어나고, 이 연꽃에서는 죽은 영혼이 극락왕생하게 됩니다. 여의주(생명의 원천) → 물(생명수) → 연꽃(생명의 꽃 Cosmic Lotus) → 생명의 탄생(蓮花化生)하는 유기적인 구도를 풀어서 도해하고 있습니다. 여의주는 극락세계 전체를 만들어 내는 원천적 역할을 합니다. 조선 후기의 '극락도' 에서는 거대한 여의주가 화폭 하단의 가운데에 금빛 또는 붉은 빛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의주는 궁극의 불성의 표현으로서,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는 바탕입니다.

연기법을 모르면 해방될 수 없다

틱낫한 스님은 종이 한 장에서 나무와 빛과 흙과 공기와 물을 봅니다. "생명과 움직임으로 가득 찬 이 거대한 세계는 항상 생성하고 변화하지만 그 중심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다"라고 인도의 철학자 라다크리슈난은 말했습니다. 그 법칙(다르마 Dharma)이란 '변화와 생성' 의 법칙이라고 정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무상(無常)과 연기(緣起)' 입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공(空)입니다. 변화의 법칙은 부단히 결합과 해체를 반복하며 움직이고 있는 이 세상의 존재의 법칙을 말한다. 강물은 일견, 항상 거기에 그렇게 흐르는 듯 보이지만 "우리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 고 헤라클레이토스(고대 그리스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흩어져서는 다시 밀려오고 밀려와서는 다시 흩어져 간다. 모든 것은 유동하는 변화의 산물이며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다. 여기에 불변적인 요소가 있을 수 없다."

"만물은 유전하며 같은 상태로 한 순간도 존재하지는 않는다", "만물은 흘러가고 결코 머무는 일이 없다"라고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등도 이구동성 말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를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바 있지요. 노자 역시 "상선약수(上善若水, 최고의 진리는 흐르는 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法)"이라는 한자를 보면 물 수(水) 변에 갈 거(去)가 합성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흐르는 물처럼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일견 겉으로 찰나적으로 상(相)을 유지하는 듯 보이지만, 존재는 부단한 흐름 속에 있다는 것. 유형과 무형의 세계는 함께 공존합니다. 중생의 눈으로는 유형의 세계만 보이지만, 수행을 통해 지혜의 눈(혜안)을 개발하면 무형의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은 나무가 되고
짐승이 되고 그리고 떠도는 구름이 된다.
그리고 모습이 바뀌어 낯선 것으로 돌아와
내게 묻는다.
내 무엇이라 대답하랴.
–헤르만 헤세의 시詩 〈이따금〉 중에서–

중앙승가대 교수 · 불교문화재학



1차수 7. 22.(토)~7. 26.(수) 80명 일반 수련
2차수 7. 29.(토)~8. 2.(수) 80명 일반 수련
3차수 8. 5.(토)~8. 9.(수) 80명 선 수련
4차수 8. 12.(토)~8. 14.(월) 70명 어린이 수련 (초등 2~6학년)

동참금
1~3차 : 20만원, 4차 : 5만원

입금계좌
우체국 501676-01-002695
(예금주 : 송광사)

수련법회 신청대상
1~3차 : 누구나 4차 : 수련 생활에 지장이 없는 초등 2~6학년
※ 일반 수련, 선 수련 모두 일, 월, 화요일은 오후불식합니다.
선 수련은 경험이 있는 분들을 우선 선발하여 정진에 몰두하는 선 전문 수련법회이니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접수처
전 화 (061)755-0107~9, (061)755-5350
010-8830-1921 (09:00~17:30까지만 가능)
팩 스 (061)755-0408
이메일 songgwangsa@templestay.com

대한불교조계종 승보종찰조계총림 松廣寺 주지 진 화 합장

청동불상 조성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예술원』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화불교예술원 전시관 부처님 상호를 보시는 방법
NAVER 성화불교전시관
주 · 야 상담 합니다

성 화 불 교 예 술 원
(공장 내 불교 전시관)
☎ 031)641-2747, 010-5302-1022
경기도 이천시 율면 고당리 473-2

"전통매듭 원리, 중도 · 화엄과 맞닿아"

박선희 이수자, '선학' 기고 논문서

전통매듭 조형원리 불교로 고찰
중심 유지 잠자리 매듭은 '중도'
시작 · 끝 없이 이어진 반장문은
화엄 연기 상징 법계도와 유사

매듭은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될 정도로 중요한 전통공예이다. 이 같은 매듭의 조형원리가 불교의 중도 · 화엄 사상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끈다.

박선희 국가무형문화재 제22호 매듭장 이수자(서울불교대학원대 불교학과 박사 수료)는 최근 발간된 한국선학회 학술지 〈선학〉 제46호에 발표한 논문 '매듭 조형에 대한 불교 원리적 고찰'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전통 매듭 중 잠자리 매듭

박 이수자는 매듭 기법 중 8사짜기, 잠자리 매듭, 국화 매듭 등을 예로 들며 각각의 조형 원리가 중도와 연기, 화엄 사상과 맞닿아 있음을 분석한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유지해야 하는 잠자리 매듭의 경우 박 이수자는 중도와 연기에서 조형 원리를 찾았다. 실제 잠자리 매듭의 조형과정은 좌우의 두 끈이 순서에 따라 좌우전후로 작용하다가 한 곳에서 만나 매듭이 이룬다. 어느 한 과정만 잘못돼도 제대로 된 조형은 나오지 않는다.

박 이수자는 "잠자리 매듭의 조형은 철저히 연기의 법칙이고 드러난 이치는 중도"라면서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는 곧 정도다. 매듭 조형도 순서에 따라 정도를 가야 중심이 잡힌 조형이 완성된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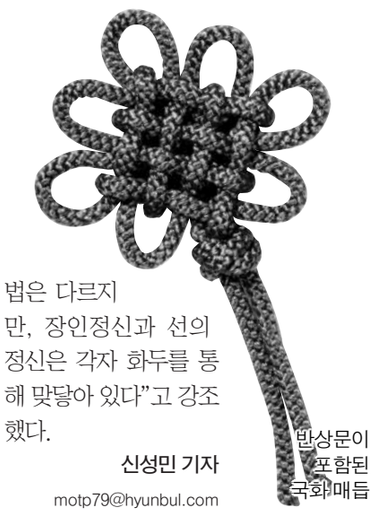
국화매듭과 반장문은 화엄 사상에서 조형 원리를 찾았다. 국화매듭을 중국과 일본에서는 반장결(盤張結)이라 부르며, 불교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팔보문의 하나인 반장문은 '윤회하고 순환함이 모든 것을 꿰뚫고 있어 일체가 형통하고 분명하다'는 뜻을 가진다.

또한, 시작과 끝이 하나로 이어진 반장문은 화엄사상의 요체를 내포한 '법계도'를 연상시킨다는 게 박 이수자의 주장이다.

박 이수자는 "'법계도'는 상징을 통해 법계의 이치를 드러낸 것이고, 반장문은 만다라처럼 본질의 경지를 그림으로 구상화한 것"이라며 "매듭 조형 중에서 반장문 형태를 갖고 있는 국화매듭 역시 단순한 장식적 문양이나 의미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화 매듭에 담긴 화엄적 원리로 인해 궁중 · 종교의식에서 몸에 지니는 장신구로 많이 사용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매듭의 전승과 장인 정신은 사자상승과 선의 원리로 풀어냈다. 박 이수자는 "실이라는 간단한 재료로 불교적 상징을 갖는 공예품으로 개념전환이 일어나려면 엄청난 사상력의 도약이 필요하며, 공예품의 기원은 이러한 인간의 의식이 표출된 것"이라며 "매듭 장인이 실이라는 재료를 화두삼아 이뤄낸 불교 매듭은 정신 집중과 도약이 엮어낸 결정체다. 장인과 수행자가 갖는 태도와 방법은 다르지만, 장인정신과 선의 정신은 각자 화두를 통해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반상문이 포함된 국화매듭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원융사상, 현실 적용할 연구 필요"

원융종,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

원융종(총무원장 진호)이 창종 40주년을 맞아 원융종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원융종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학술세미나에서 발제자들은 원융종의 발전을 위해 원융사상의 교리적 발전과 도제 양성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박수호 중앙승가대 불교사회연구소 연구원은 발표논문 '원융종 창종의 종교사회학적 의미'를 통해 원융종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서는 원융사상의 교리적 발전을 도모할 것을 주문했다.

박 연구원은 "사회 현상에 대한 이해와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원융사상의 적용가능성 연구는 원융종의 사회참여 활동에 효과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원융종의 조직 역량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돼야 하며, 종단 구성원의 관심사가 종단 핵심사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차석 동방문화대학원대학 교수는 '한국불교의 종교지형 변화와 원융종의 전망'을 통해 도제양성 등 인재불사에 주목할 것을 제안했다.

차 교수는 "종단 발전의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다. 도제든, 신도든 지적 능력과 덕성을 지닌 인재가 지속적으로 원융종에 유입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져야 한다"면서 "장학제도를 활용하는 등 현실적인으로 실력을 갖춘 인재 영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원융종 총무원장 진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종단 발전의 기조를 세울 것을 다짐했다.

진호 스님은 "오늘 세미나를 통해 종단 내실을 재정비해 대외적 위상 강화와 교세 확장에 중점을 둬 한국불교 중심종단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원융종은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서 '원융종의 현재와 미래 발전 방안'을 주제로 창종 4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宋代 선종 선사상 진면목을 논하다

한국선학회, 23일 춘계 학술대회

북송시대 선종 공안집의 출현과 이에 나타난 선사상을 고찰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한국선학회(회장 신규탁)는 6월 23일 오후 1시 우리함께 빌딩 5층 조계종 포교사단 강당에서 '북송시대 공안집의 출현과 선사상'을 주제로 춘계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학술대회는 신규탁 연세대 교수의 '남송시대 선사와 사대부 사이의 철학 쟁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표로 시작된다.

이후 '단하자순 송고에 대한 고찰(김호귀 · 동국대)', '공안집에 나타나는 선과 시의 융합적 특징(유지원 · 동국대)', '선어록의 몇가지 문구 검토(박영록 · 교통대)', '공안집의 등장과 참구(명법 스님 · 은유와마음연구소)' 등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된다.

한국선학회는 "지난해는 당대의 선사상을 살펴봤다면 올해는 북송시대 공안집과 선사상을 논의한다"며 "12월에 열릴 동계 세미나에서는 남송시대의 선사상과 신유학의 관계를 조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불교로 '과학기술'을 철학하다

주목! 학술서

이상헌 세종대 교수 '첨단과학과 불교' 발간

AI · VR 등 첨단과학 분야
불교 · 철학적 관점서 고찰
"기술, 인간 얼굴 찾아줘야"




이상헌 세종대 교수〈사진 왼쪽〉와 그의 저서 〈첨단과학과 불교〉. 기술철학을 연구하는 이 교수는 불교 철학을 통해 욕망의 얼굴을 한 기술사회를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부터 냉동인간 · 생명공학까지 첨단과학을 불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같은 물음은 자칫 한쪽으로 경도되기 쉽기 마련이다. 불교를 잘 알면 과학 · 공학적 이해가 부족하고, 과학을 잘 아는 경우 불교적 이해가 미흡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기술철학을 연구해 온 이상헌 세종대 교양학부 교수가 최근 발간한 〈철학자의 눈으로 본 첨단과학과 불교〉는 주목할 만하다. 불교와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고찰이 균형있게 기술돼 있어서다.

이는 기술철학을 연구하게 된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 교수는 한 때 첨단과학기술에 매료돼 이를 알아가는 데 노력했고, 기술을 긍정했다. 하지만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쌓이자 이내 철학 전공자로서 비판적 시각이 살아났다.

과학기술의 내용보다는 기술의 철학적 함축, 그리고 그 기술이 실현되었을 때 인간의 삶과 사회, 문명에 대한 영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 교수의 〈첨단과학과 불교〉는 자신이 가진 관심과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는 결과물이다.

이 교수는 저서에서 욕망의 얼굴을 한 현대 기술에 다시 '인간의 얼굴'을 찾아줄 수 있는 대안으로 불교 사상과 철학을 꼽는다.

근대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저서 〈새로운 아틀란티스〉를 통해 과학과 기술을 통한 새로운 유토피아를 제시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사람들이 과학기술을 욕망 충족의 수단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자본의 논리가 과학기술을 지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런 욕망과 자본의 관계는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역치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 교수는 욕망이 아닌 '인간의 얼굴'을 한 기술을 찾기 위한 대안으로 불교경제학을 제시한다.

"불교경제학은 노동을 보는 관점에서 근대 자본주의 경제학과 다르다. 노동을 생산을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 본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생산과 소비활동, 기술의 활용은 타인을 해롭게 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 불교적 관점을 택한다면 이런 행동을 통해 타인을 이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철학적 배경이 탄탄해야 하는 까닭은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 · 철학적 성찰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 때문이다. 그간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철학적 논의들이 서양철학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 책은 불교철학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화두들을 던진다. 신성민 기자

불교학계, 하계 워크숍 잇달아

불교학硏 '교단 화합'
보조사상 '원효 설화'

다가오는 여름을 맞아 불교학계가 다양한 주제의 하계 워크숍 준비에 한창이다.

불교학연구회(회장 최종남)는 6월 30일~7월 1일 양산 통도사에서 '불교교단의 화합,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자랑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화합이란 무엇인가'를,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이 '교단의 화합 실천에 있어 지도자의 역할'을, 조기룡 동국대 불교학술원 교수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화합의 필요성'을 각각 발표한다. 이후 임승택 경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불교교단 화합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뤄진다.

불교학연구회 여름 워크숍은 회원과 학자, 스님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선착순 40명을 모집한다. 참가비는 1인 3만원, 2인 5만원. 문의 (010)4313-2122

보조사상연구원(원장 김호성)은 오는 7월 20~21일 순천대와 송광사 일원에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지리산의 원효설화와 배경'을, 김호성 동국대 교수가 '원효의 징서가에 대해' 등을 각각 발표한다.

교수, 강사 등 연구자와 학생은 참가비가 무료이며, 일반 불자, 후원회원은 참가비 5만원이다. 신성민 기자

제 96기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佛教儀式(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야간 및 통신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신행과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 · 중급 수료자에 한 함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개 강 일 : 2017년 6월 30일 오후 5시
◆ 강의일시 : 매주 (월, 목) 오후 5시 ~ 6시 30분 (90분 강좌)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반명함판 사진 2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 · 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教儀式教育院
海東佛教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0496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센타
등록번호 : 138-50-00260
기에너지 음악치료 명상

미래의 대체의학인 기공 (밀교의 의성신 · 금강신)을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닦아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이롭게 하고 제도하는데 원력을 세워서 수행 정진 하실 분

■ 초보 입문자의 기맥을 직접 열어주고 발공능력까지 갖추는데 3 ~ 6개월 (주1회 특별수련)
■ 개인의 기공능력을 아무 부작용 없이 (주화 입마, 상기병 등등) 키워나가면서 단기간에 최고의 경지에 이르고자 하는 분 (비법 전수)
■ 특 징 : 제6차크라 (제3의 눈 · 뇌의핵심〈송과체〉· 인당)가 단기간에 몸이 바뀌면서 온 몸에 신경세포가 전부 살아 움직이고 머리에서 부터 발끝까지 온 몸에 24시간 강력한 전류가 흐르며(기에너지체) 고요하고 편안한, 몸이 완전히 이완된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자연스럽게 뚫리고 열려 나감
■ 개인지도 (면접 상담 후 결정)
■ 문 의 : ☎ 02-393-8027 (기공치료 예약 접수)

기공치료 명상가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선학과 응용선학 박사과정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 졸업
•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 남부 구치소 교정위원, 前 서대문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

기공 염불소리치료 명상 연구소 (소장 : 처명)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날마다 첫 경험

첫 경험에 대해 의견을 묻고 싶다. 흔히들 사춘기를 넘길 무렵 이성(異性)간의 만남 등으로 받아들여 얼굴을 붉힐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나는 매일 매일 매 순간의 일들이 첫 경험으로 다가온다. 밥 먹고 배설하며 책 읽고 일하는 것들이 모두 첫 경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무수히 많아도 오늘만의 오늘은 오로지 지금의 오늘 뿐이기 때문이다. 하루 세끼의 밥 먹는 일도 곰곰이 살펴보면 오늘 이 순간의 끼니가 특별하며 유일하며 첫 경험의 식사가 되기 때문이다.

천 번, 만 번의 식사도 같은 식사는 절대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도 않기 때문이다. 밥도 반찬도 분위기도 제 각각 다를 것이며 시간과 공간이 절대적으로 다른 식사이기 때문에 첫 경험의 식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같은 친구와의 만남도 헤어짐도 같은 만남과 헤어짐이 되는 것이다. 한 순간도 같은 순간은 절대적으로 없는 것이다.

다시오면 외상 가능 합니까?"

그러자 식당 주인은 미소 띤 얼굴로 대답했다. "자고나면 다시 오늘입니다."

그렇다 어제도 없고 내일도 없고 오늘 뿐인 것이다. 영원한 오늘만이 있을 뿐이다. 만남도 헤어짐도 설렘도 오늘만의 첫 경험이요 팍팍하고 지루한 권태로움도 오늘만의 첫 경험인 것이다.

천 번, 만 번을 식사해도 똑같은 식사는 있을 수 없듯 희망과 절망도 첫 경험임을 알아야한다. 흐르는 강물에서 목욕할 경우 강물은 끊임없이 흘러감으로 같은 강물로 목욕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사람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만나 헤어졌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나 내 자신도 순간과 찰라 지간에 인체 공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끊임없이 변화, 변모해 같은 모습의 나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듯 생체 변화의 생멸(生滅)의 윤회는 한 순간도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같은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같은 시간은 과학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다. 같은 장소 또한 자연의 변화 법칙에 의해 같은 장소는 이미 변화해 달라져 있는 것이다.

만남 · 설렘 · 헤어짐도 오늘의 경험
모양 치우침 없어야 지혜로운 삶

닮은꼴의 얼추 비슷할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솔찬히 색깔과 무게에 있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 움큼의 솔잎을 쥐고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면 같으나 같지 않고 길이와 색깔, 두께와 부피가 천 가지 만 가지로 다름을 확인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러하듯 일생에 하루의 오늘은 무수히 많으나 오늘의 오늘은 오늘 뿐인 것이다. 어제는 지나간 오늘이요 내일은 다가올 오늘인 것이다. 하여, 백년을 살아도 어제와 내일은 영원히 없고 오늘의 오늘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의 종교학자들은 불교를 오늘의 종교로 부르며 깊고 높은 철학적 과학성에 놀라고 있는 것이다.

언젠가 한 차례 인용했던 짧은 이야기 하나 다시 옮겨 와야겠다. 장관직에서 물러난 어느 노 교수가 자동차를 몰고 강원도 어느 해변에 이르러 식사할 식당을 찾다가 어느 식당의 출입문에 붙어있는 재미있는 글귀를 만나게 된다. '오늘은 현찰입니다. 내일은 외상이 가능합니다.' 노 교수는 식사를 끝내고 밥값을 계산하며 식당 주인한테 말한다.

"오늘은 현찰내고 식사했는데 내일

그러므로 닮은꼴을 같은 것으로 착각하며 생각의 모순된 착각 속에서 생사(生死)의 윤회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염기염멸(念起念滅)이 그대로 생사윤회(生死輪廻)이며 머묾 없는 머묾, 모양에 치우치지 않는 자유로움이 지혜로운 삶인 것이다.

〈육조단경〉의 핵심사상은 무념(無念), 무상(無相), 무주(無住)이다. 생각에 끄달리거나 집착않는 무념(無念)과 모양과 형식에서 자유로운 무상(無相)과 머묾 없는 머묾의 무주(無住)를 행복과 자유에 이르는 덕목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에게나 첫 경험이 소중하듯 닫힌 문 열고 보면 날마다 좋은날의 첫 경험인 것이다.

만남과 헤어짐의 첫 경험이 날마다 새롭게 펼쳐지는 소설 속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너와 나, 우리인 것이다. 작은 일에도 소소한 인연에도 선입견을 앞세워 다투거나 멀리하지 말 일이다.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흘러간다.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마음의 평화를 잃지 말 일이다. 날마다 좋은 날이 될 수 있게 날마다 새로운 첫 경험으로 행복과 자유 누리며 살 일이다.

대중에 게으름으로 비친 '현묘함'



지안 스님의 〈禪話의 향기〉
조계종 고시위원장

당(唐)나라 명찬(明瓚) 스님은 동양의 디오게네스였다고 불린 스님이다. 생몰연대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숭산보적(嵩山普寂:651~739)의 법을 이은 제자였다고 한다.

그는 남다른 점이 많아 여러 가지 일화가 전한다. 형악(衡嶽)에 살 때 스님은 무척 게을러 대중들이 운력을 할 때도 참여하지 않고 공양도 시간을 맞춰하지 않는 등 괴각(乖角)을 부렸다. 스님은 대중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언제나 외톨이처럼 지내며 밥도 남이 먹다 남은 찌꺼기를 모아 먹었다. 이런 명찬 스님의 게으른 습성을 두고 사람들이 별명을 붙여 나잔(懶殘) 혹은 나찬(懶瓚)으로 불렀다. 대중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즐겨 챙겨 먹었으며 그를 꾸짖거나 비난하는 말을 하여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러나 가끔 그가 내뱉는 한 마디 말을 듣고 대중들이 놀라기도 하였다. 그가 하는 말이 모두 법에 부합되는 예사로운 말이 아니었던 것이다.

〈송고승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그가 20여 년을 머물던 남악사(南嶽寺)에 상국(相國)인 업공(嚴公) 이비(李泌)가 최이(崔李)의 모함으로 절에 와 피신하여 지내고 있었다. 이비가 명찬 스님의 행동을 몰래 살펴본 끝에 아무래도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았다. 그는 밤중에 몰래 명찬 스님을 찾아가 가르침을 구했다. 명찬 스님이 이비에게 "쓸데없는 말을 삼가시오. 그러면 10년 후 재상의 지위에 오를 것입니다"고 했다.

이비가 가르침에 감사를 드리고 물러났는데 그 후에 예언했던 대로 재상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벽암록〉에는 '나찬외우(懶瓚嵎芋)'라는 말이 나온다. 34칙에 수록된 내용으로 외우(嵎芋)는 토란을 구웠다는 말이다. 나찬 스님이 형산의 석실에 은거하고 있을 때 당나라 덕종(德宗)이 스님의 법력이 매우 높다는 명성을 듣고 사신을 보내 모셔와 궁중으로 맞이해 국사로 모시려고 했다. 사신이 나찬 스님이 머무는 석실에 이르러 "천자께서 명령을 내렸으니 존자께서는 마땅히 일어나 그 은혜에 감사를 표하시오"라고 하였다. 나찬 스님은 소똥불에 토란을 구워 그것을 뒤져 찾아 먹느라 입가가 시커멓고 코눈물을 턱까지 흘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사신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대답이 없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사신이 웃으면서 "스님 콧물이나 좀 닦으시지요"라고 했다. 그때 나찬 스님은 "내가 공부한 것이 무엇이 있다고 속인을 위하여 콧물을 닦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사신이 "행장을 꾸리는데 도와 줄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지오"라고 했더니 나찬은 "그러시오. 조금만 비켜 서 주시오. 햇빛을 가리지 말아 주시오"라고 했다.

이 말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인도로 원정을 가던 알렉산더 대왕에게 했던 말이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을 나찬 스님이 사신에게 했다고 하여 후대 사람들이 동양의 디오게네스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

나찬 스님은 끝내 일어나 왕명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 사신이 돌아가 정황을 아뢰자 덕종은 더욱 스님을 흠모하게 되었다. 세속을 초탈한 고매한 풍모를 지녔던 나찬 스님의 일화다.

'명찬일언(明瓚一言)'이라고 제시된 공안도 있다.

나찬 화상이 "나에게 한 마디 말이 있는데 생각이 끊어지고 대상에 대한 분별도 잊어져 교묘한 말솜씨로 표현하지 못한다. 단지 마음으로 전하고자 할 뿐이다"고 한 말의 핵심을 집어 원오 스님이 말한다.

"이 노장은 마치 물고기가 헤엄치면서 물을 흐려놓는 것과 같으니 허물이 적지 않다. 그렇지만 이 중에 대상에 대한 분별을 잊고 생각이 끊어진 사람이 있다면 나와서 말해 보라. 마음으로 전한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만약 그 뜻을 알아차린다면 이미 모두 전한 것이며,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마음은 그만 두고라도 필경 어떤 것이 '한 마디 말'인가? 방으로 돌아가 쉬도록 하시오."

〈원오 어록〉에 나오는 말이다. 한 마디 말이 결국 "마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로 공안의 핵심이 된 것이다.

〈선문염송설화〉에는 "장산찬원(蔣山贊元)이 법좌에 올라 잠시 침묵을 하다가 말했다.

"마음으로 마음을 전한다면 당나귀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설화〉의 설명에는 "말에 현묘한 도리를 담고 있더라도 진리로 통하는 길은 없으며, 입으로 말하더라도 진리 그대로 말하는 것은 아니다"고 하였다.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을 보라



진원 스님의 깨달음 찾는 〈금강경〉
㉓ 존중정교분

復次 須菩提 隨說是經 乃至 四句偈等 當知此處 一切世間 天人 阿修羅 皆應
부차 수보리 수설시경 내지 사구게등 당지차처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
供養 如佛塔廟. 何況有人 盡能受持讀誦 須菩提 當知是人 成就最上第一希有
공양 여불탑묘. 하황유인 진능수지독송 수보리 당지시인 성취최상제일희유
之法 若是經典所在之處 卽爲有佛 若尊重弟子
지법 약시경전소재지처 즉위유불 약존중제자

"또 수보리야, 이 경 가운데 사구게만이라도 일러준다면 마땅히 알라. 이 곳은 일체 세간의 하늘, 사람, 아수라가 다 마땅히 공양하기를 부처님의 탑과 절에 하듯이 할 것인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능히 받아 지니고 읽고 외는 것이겠느냐."

"수보리야,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가장 높고 제일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것이니, 만일 이 경전이 있는 곳이면 곧 부처님이 계신 곳이 되고 존경받는 제자가 있는 곳이 되느니라."

하늘, 사람, 아수라가 있는 일체 세간은 욕계, 색계, 무색계의 28천(天)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중생들은 각자의 근기에 따라 28천에 나뉘어 살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무색계의 중생은 5온인 색, 수, 상, 행, 식이 공한 것을 깨닫고 반야바라밀의 바른 뜻을 알아서 이를 남에게 일러 주므로, 욕계, 색계에 있는 천상, 사람, 아수라, 팔부신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공양 하듯 하는 것입니다.

사구게 만을 일러 주어도 이와 같은데 하물며 어떤 사람이 이 경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마음으로 행한다면 애써 말을 하여 무엇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5온이 공하여 일체법이 아니고 일체법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닫게 되는데,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부처이므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이 마음인 부처는 어느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있는 곳마다 부처님이 계시다'고 한 것입니다.

우주는 티끌 같은 이름이 쌓인 것입니다. 그 구성요소는 흙, 물, 불, 공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이 이름들은 탄소, 수소, 산소라는 이름이 있으며, 이 원소의 이름에는 전자, 원자핵, 중성자라는 원자의 이름을 갖고 있으며, 원자의 이름에는 쿼크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쿼크는 힉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며, 힉스는 지금까지 다른 이름을 찾지 못하여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결국 물리학이 찾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이름입니다.

세계도 세계가 아니라 이름이 세계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의 모든 존재는 어느 것도 실재하지 않는 그저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라는 이름은 마음의 별명으로 이름에 끄달리지 말고 마음인 부처를 바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금강경〉을 지니고 독송하여 그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행하면 5온이 공하여 일체법이 아니고 일체법이 아닌 것도 아니며, 일체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체법이 없는 것도 아닌 이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마음을 깨닫는 것이 곧 부처이므로 이 마음이 바로 부처인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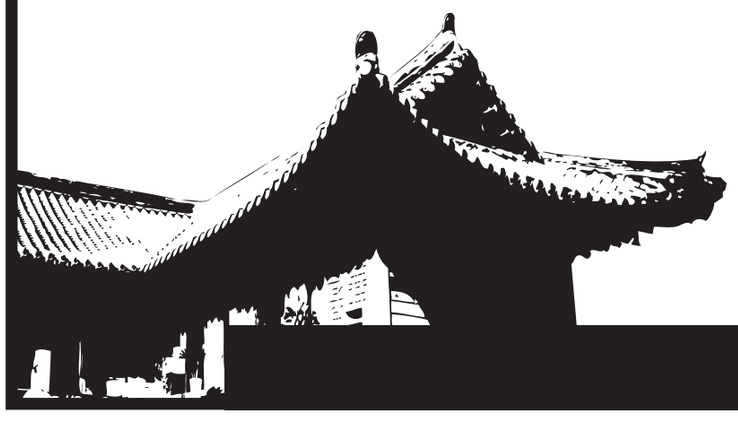
禪農敎團 우리불교 曹溪宗

종정 홍산 현불

종도모집

◦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북로 149번길 32번지 마강사
◦ 총무원 : TEL 041)832-4153 / FAX 041)833-4154

세계불교종단연합회(WBOA)
불교 국가간 문화 교류를 통한 힐링 불교의 재 탄생으로
더 큰 불교 세계를 이루고자 종단 참여를 공고합니다.
문의 041)832-4153 / H·P 010-6478-1569
응화세존 3천 4십 3년 음 10월 1일
WBOA 총재 영공 도성 (부산 태종사)
회장 홍산 현불 (우리불교조계종 종정)



입종안내

1) 입종 구비서류
◇ 사찰 및 승려 등록 신청서 1통
◇ 주민등록증 앞 · 뒤 사본 1통 ◇ 반명함판 사진 3매
◇ 법당사진 안 밖 각 1매(사찰등록 하실분에 한함)
◇ 승려증 발급 하실 분은 필히 타종단 수계첩 및 승려증 사본 첨부
◇ 도첩은 본 종단에서 수계를 받을 분에 한하여 발급합니다.

2) 입종 후 발급 증명서
◇ 승려증 (법사증 · 포교사)
◇ 사찰 등록증
◇ 주지 임명장
◇ 추대장 및 위촉장(간부스님에 한함)

(宗)선농교단 우리불교 조계종에서는 도제양성과 포교에 함께 할 사찰 및 종도님을 모십니다.

아동폭력 없는 세상 위한 불교계 發願

조계종부산聯,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 강연

아동학대 예방 나선 불교계
한국학대예방협과 MOU 체결
"대사회적 역할" 긍정적 평가
학대 피해아동 치료법 전수도



(사)조계종부산연합회는 6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와 협약식을 체결하고, 강연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잔혹한 학대로 아동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원영이 사건 이후, 최근 또 하나의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졌다. 5살 아동이 친모의 내연남인 20대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폭력을 당해 한쪽 눈의 시력을 잃고 두개골 골절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이처럼 우리사회에는 끔찍한 아동학대가 끊이질 않으며 세간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에 존재할 또 다른 원영이를 위해 불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조계종부산연합회(회장 심산, 이하 부산조계종聯)는 6월 7일 부산 안국선원 교육관에서 (사)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회장 신의진)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어 신의진 사단법인 한국폭력학대예방협회장은 '개인적 트라우마 이해를 통한 건강한 아동성장 프로젝트'라는 주제의 강연을 펼쳤다.

신의진 회장은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하며 "성폭력을 당한 아동의 얼굴은 꼭 시리아 내전에서 봤던 알레포 소년의 사진처럼 멍하다"며 "극도의 공포는 아이들을 얼어붙게 만들며 현실감 없고 세상을 다르게 인지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신 회장은 한 가정폭력 사례를 들었다. 신 회장은 "가정폭력을 당했던 한 중학생이 길거리에서 웃으며 지나가던 또래의 여자아이를 찔러 죽였다. 자신은 폭력을 당하고 사는데 행복한 아이를 보니 순간 억제가 안됐던 것"이라며 트라우마가 뇌에 미치는 악영향을 재차 설명했다. 이어 신 회장은 애착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치료를 위해 △안전 확보와 보호 △의학적 치료 △각종심리치료 예술치료 EMDR 등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피해 아동들을 위한 문화예술치료 효과를 설명하고 "현재 한국에 반드시 필요한 치료 시스템"이라며 관심을 독려했다.

강연이 끝나자 참가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한 참가자는 아동을 성폭행하는 남성들의 심리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신 회장은 "아동성애자 혹은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한 연구가 한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연구가 힘든 상황이다. 하지만 인터뷰 사례들을 근거로 검토했을 때 그들의 특징은 사회성에 문제가 있고 특히 언어 표현력이 부족하다"며 "열등감이 마음 깊이 있는 경우가 많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참가자는 해바라기아동센터(어린이성폭력피해자 지원시설)에서 도움을 받았던 한 아이의 사례를 들어 "어릴 때는 심각한 고통으로 괴로워했는데 지금 청소년이 되어선 (성매매로)돈을 벌기 위해 근친성폭력 주범인 아버지를 찾아간다"며 "그 학생에 대한 치료도 가능한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은 "청소년이 되어 성폭력을 했던 당사자에게 돈을 벌기 위해 찾아가는 경우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하며 그 방법으로 문화예술치료를 추천했다.

강연장에는 일반 불자 뿐 아니라 아동센터복지사들을 비롯해 어린이집 교사 및 상담심리사 등 300여명이 찾아 자리를 가득 채웠다. 참가자들은 교육현장에 도움이 되는 강연을 들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며 감사해했다.

강미라(48 · 금정구) 씨는 "강연 중에 질의응답을 통해 고민하던 부분이 해결됐고 학대 아동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줘야할지 알게 됐다"고 했다. 김소례(68 · 서구 서대신동) 씨는 "집에 손자도 있어서 '애착'에 대한 설명을 들으니 그 중요성을 실감했다"고 말했다.

불교의 사회참여역할을 반기는 불자들도 있었다. 최미진(56 · 구서동) 씨는 "사실 불교에서는 기도하고 수행은 하지만 사회문제에 깊이 개입되는 부분이 약하다"며 "특히 학대 아동은 부처님의 자비로써 반드시 도움을 줘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행사는 사회 속 불교역할을 돌아본다는 점에서 너무나 반갑다"고 말했다.

회장 심산 스님은 "조계종의 대사회적 활동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고 이 사회에 필요한 활동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길 바란다"며 "아동은 한 가정의 미래일 뿐 아니라 국가의 미래다. 학대 받는 아동들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지율 스님 "자연, 미래세대 위한 것"

천성산 내원사 · 부산 대명여고, 환경보호 위한 협약식



대명여고 학생들이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축제'를 개최했다. 이날 내원사와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이 대명여고를 방문하고 학생들의 활동을 격려했다.

천성산 내원사와 부산 대명여고 학생들이 자연과 생명을 위해 손을 잡았다.

대명여고는 6월 2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자연보호 및 생명존중을 위한 환경축제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천성산 내원사(주지 진성)와 환경보호를 위한 협약식을 맺었다.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은 이날 직접 참여해 환경은 미래자손을 위한 것이며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임을 강조했다.

지율 스님은 "자연 환경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다. 교육을 통해 자연이 주는 생명과 그 중요성을 알게 할 것"이라며 "아직도 천성산은 경제 개발의지 아래 난개발 상황에 놓여있다"고 관심을 독려했다.

내원사는 앞으로 대명여고 학생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지도하고 학생들을 위해 산문을 연다. 안거철을 피해 학생들을 위한 템플스테이 및 생태답사 등 자연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

현재 지율 스님은 매달 셋째 주 수요일 양산 용연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생태답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사)부산환경교육센터에서 주최하는 초록환경학교 궁금이 기자단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담당하고 있다.

대명여고는 환경축제를 24년 동안 개최하고 있다. 이번 협약식이 있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박중록 생물 교사는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에서 활동하며 지율 스님을 돕고 있다. 이번 환경축제에서 대명여고 학생들은 '뉴 코리아 위드 네이처!(NEW KOREA WITH NATURE!)'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운동장에 새겼다. 또한 다채로운 동아리 활동으로 환경 관련 정보를 얻었으며 OX 퀴즈 등을 통해 미세먼지, 원자력 등 현재 예민한 환경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학생들은 환경재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송은(2년) 학생은 "미세먼지와 원자력 내용 살펴보며 심각성을 알았다"며 "오늘 지율 스님을 처음 뵈었는데 앞으로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배우고 내원사도 방문할 수 있다하니 들뜬다"고 말했다. 박소은(3년) 학생은 "동아리 친구들과 일반 면 마스크에 먼지가 통과되는 것을 보여주고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알려주는 실험을 실시했다"며 "자연이 파괴됐을 때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박중록 선생님은 "사찰하고 자매결연한 적이 없었다. 자연과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내원사와 협약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4천여 부산시민, 그리고 글짓고 행복 UP!

BBS부산, 제2회 부산문예창작마당



BBS부산불교방송(사장 수불)은 6월 3일 부산 동물원 삼정더파크에서 '제2회 부산 문예 창작마당'을 개최했다. 〈사진〉 문예창작마당은 참가자들의 열띤 성원으로 3000명 선착순 마감이 접수 당일 30분 만에 마감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 당일에는 총 4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들며 그림 그리기, 글짓기, 사진찍기 등 다채로운 활동에 참여했다.

사장 수불 스님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시민들이 심성을 순화하고 잠재된 창의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꿈과 희망을 증대시키고자 개최했다"며 "매년 발전한 모습으로 시민들에게 인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성미 기자

홍법사, 제27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



홍법사는 6월 6일 경내에서 제27회 허공마지 홍법바라밀제를 개최했다. 〈사진〉 홍법사는 이 행사를 통해 매년 한국전쟁에 참여해 목숨을 잃은 전 세계 참전용사에게 감사와 존경을 뜻을 표하고 있다.

이번에는 6 · 25전쟁 때 대구 기지에서 활동하며 100회 출격했던 美 공군 조종사 유진 메클링을 초대했다. 유진 메클링은 64년 만에 방한해 한국인들에게 감격의 인사를 전했다. 유진 메클링은 "전우들과 함께 지켰던 한국의 눈부신 성장에 감동했고 이 자리에 초대받게 돼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하성미 기자

관정대사 10주기 다례재 및 보리수 축제



경남 고성군 대한불교정토선종(총무원장 등정)은 6월 4일 서방사에서 관정대사 10주기 다례재 및 산사음악회, 제7회 보리수축제를 개최했다.〈사진〉 이날 자리에는 천은사 은선 스님, 옥천사 지성 스님, 고성사암연합회 옥천사 주지 원각 스님 등 300여명이 동참했다.

천은사 은선 스님은 발원문에서 "널리 모든 사람의 참빛이 되어 정법으로 인도해 광명국토를 이룩하고, 부처님의 크신 은혜 갚기를 원한다. 불자가 하는 일마다 큰 서원 원만성취하길 바란다. 이 땅의 중생을 제도하는 거룩한 빛이 되기를 바란다"고 서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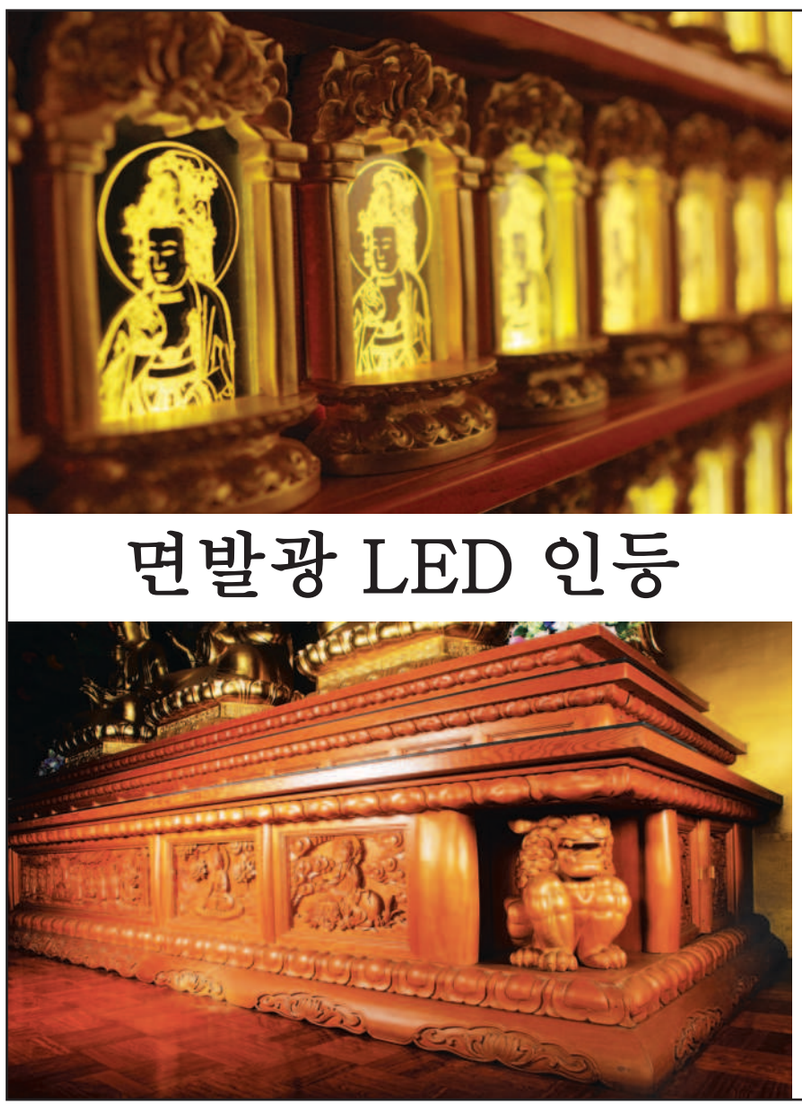
고운사, 하안거 결계 및 보살법회



고운사는 2017년 하안거 결계 및 포살법회를 6월 1일 화엄문화템플관에서 봉행했다.〈사진〉 이날 모인 300여 스님들은 운람사 주지 등오 스님을 증명법사로 〈범망경보살계포살본〉 전권을 독송하며 포살법회의 의미를 되새겼다.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은 "포살은 승가의 구성원인 스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 결계를 다지고, 청정한 계율로 승풍을 진작해 수행정진의 의미를 더하는 일"이라고 격려했다.

또 등오 스님은 "오늘이 헛되지 않아야 내일도 헛되지 않다. 하루하루 충실하자"고 당부했다. 박영애 영주지국장


면발광 LED 인등

법당 장엄일체
수미단 닫집

발명특허 제10-1350047호
최저의 비용으로 최고의 장엄을
성불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흥동 418-1
010-6857-0108
http://www.sungbulwon.co.kr



위페몰.com

원로대덕스님들께 삼가 문안인사 올립니다.

사찰에서 살다보니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하나 만들어 쓰다보니 주위에서 나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다보니 이렇게 지면을 통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쓰기 좋고 보기 좋으며 법당내의 격을 높이고자 감히 디자인 하고 고안하였습니다.

조상의 왕생극락을 불전에 기원하는 후손들의 정성을 섭인(攝引)하여 법당을 여법하게 장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문(沙門) 일허(一虛) 나무 관세음보살


2단 합동위패 ①
2단 합동위패 ②
3단 합동위패 ①
용전대 ①
용전대 ②
목걸이마이크 ①
목걸이마이크②
축원카드 보관함
소대위패①
소대위패②

살펴보시고 전화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부산 서구 남부민동 93-1번지
☎ 051) 244-2040
위패몰.com
七寶寺



수계법사 성우 스님 앞에서 오계를 수지독송하는 불자가족들.

공동체 회복하는 가족수계법회

군산 흥천사, 130여 가족 수계 도와

군산 흥천사가 무너져가는 가족공동체를 회복하고 행복한 가족의 삶을 위한 가족수계법회를 봉행했다.

흥천사(주지 법희)는 6월 4일 큰법당에서 조계종 전계대화상 성우 스님을 수계법사로 가족수계법회를 봉행했다.

BTN 불교TV의 불자가족 신행공동체 캠페인 '우리는 불자 가족입니다'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수계법회는 130여 가족 500여명이 참석해 불자가족으로서 신행공동체를 이루고, 법문을 듣고, 항상 수행하고, 자비행을 실천하며 서원을 이루는 불자가족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불자가족들에게 오계를 설한 성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계를 수지한다는 것은 윤회의 고리를 끊고 영원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고 그 터전이며 사다리이다"고 전제한 뒤 "가족 모두가 불자로서 행복한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주지 법희 스님은 "보리심에 푸른 씨앗을 마음에 깊이 심고 흥천사에 오늘 인연 맺으신 불자 수계 가족 모두가 화목한 가정 또 행복한 삶을 사시길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흥천사 회주 지환 스님은 BTN 붓다회에 후원금 1천만 원을 전달했다.

한편 기독교 인구가 37%에 달하는 군산지역에서 불교의 중심사찰로 자리잡고 있는 흥천사는 반야유치원을 운영하고 가족법회를 개설해 가족 간의 화합과 신심을 높이고 거사들의 불교 참여를 높이는 등 가족 중심 신행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용성 스님 민족정신, 시대가르침으로"

장수 죽림정사, 용성 스님 탄신 153주년 법회

독립운동가이자 근대 한국불교 선지식인 용성 진종조사 탄신 153주년 기념법회가 스님의 탄생지인 장수 죽림정사에서 열렸다.

6월 2일 죽림정사 용성교육관에서 열린 기념법회에는 법륜 스님, 유수 스님, 정토회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해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겼다.



법륜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용성 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민족정기를 바로 세울 것을 서원하고 있다.

이날 기념법회는 7여래불, 70전등조사, 7대사, 48선지식, 56조사 등 188위에 대한 봉찬대재에 이어 국민의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용성조사 행장소개, 축사, 환영사 기념법문, 온 겨레의 노래 제창, 법륜 스님 즉문즉설 순으로 진행됐다.

법륜 스님은 "민족과 불교중흥을 위해 한 평생을 살다 가신 용성조사의 유지를 받들어 불법을 올바로 전하고 민족통일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자"고 당부했다.

용성조사는 1864년 전북 장수 번암면 죽림리에서 태어나 남원 덕밀암에서 출가했으며 한국 근대불교 기반을 닦은 선지식으로, 종로 한복판에 대각사를 창건하고 경전을 번역하는 등 불교를 도심으로 내려오게 해 생활불교, 바른 불교의 기풍을 마련했다.

특히 스님은 불교계 대표로 3?1독립선언서에 서명하는 등 우리 민족을 독립케 하는 것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라며 민족 독립을 위해 헌신했다. 1886년 경북 구미 아도모례원에서 오도하고, 1940년 2월 24일 세수 77세, 법랍 61세로 입적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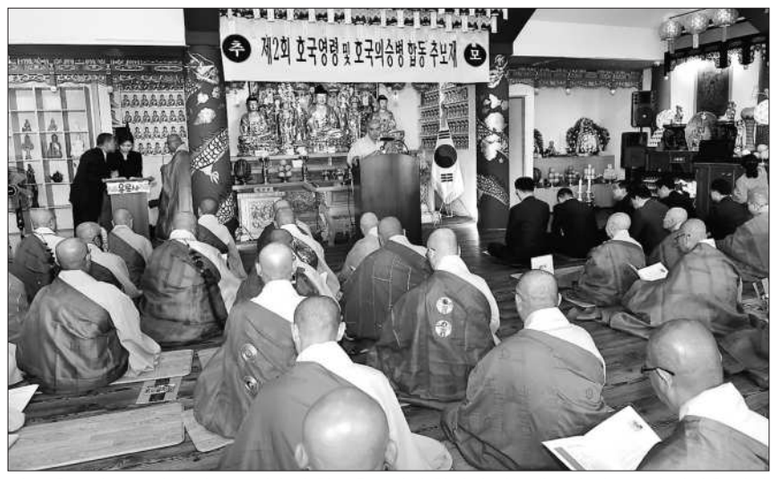
"의승병 업적 바르게 계승하자"

광주 용문사, 호국영령 의승병 합동 추모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호국영령과 의승병을 위한 추모재가 열렸다.

광주 용문사(주지 성종)는 6월 5일 대웅전에서 '제2회 호국영령 및 의승병 합동 추모재'를 봉행했다. 의승병이란 조선 임진왜란과 같이 여러 국난에 처했을 때 스님 신분으로 분연히 일어나 나라와 백성들을 구한 수행자를 말한다.

이날 행사는 성종 스님, 연광 스님(광주불교연합회장), 도현 스님(원융불교복지승가회장), 진표 스님(호국승병단 총재)을 비롯해 김경진 국회의원, 이병구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200여 명의 대중이 참여한 가운데 의승병의 높은 뜻을 기리는 기념식과 천도의식이 함께 진행되어 추모와 불교적 천도의식이 더해졌다.



광주 용문사 호국영령 및 호국의승병 합동추모재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선조들의 업적을 기리고,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성종 스님은 봉행사에서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절박하게 싸웠던 호국영령 및 의승병장들 그리고 이름 한 줄 남기지 못하고 희생한 수많은 의승병들의 나라사랑 충정과 희생정신을 기리는 마음을 담고 있다"며 "그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고, 부처님 제자로 극락왕생 기원을 통해 우리나라가 평온한 나라가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김경진 국회의원은 축사를 통해 "한국의 어려운 경제와 안보상황에서 굳건한 안보가 가장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위가가 닥칠 때마다 늘 한 단계 도약해왔다"며 "그러기 위해 자유와 번영을 염원한 선열들의 뜻을 이어 받아 선진일류국가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암도 스님(前 조계종 포교원장)은 법문을 통해 "과거에나 현재도 모든 선지식이나 호국영령의 한결같은 뜻은 모두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며 "행복해지기 위해 이제는 수행과 정진이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행사는 1부에 이어 자광 스님, 성수 스님의 집전으로 호국영령과 승병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영산재 의식이 봉행됐다.

한편 성종 스님은 "내년 행사부터는 기념행사 이외에도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 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장병 마음 어루만진 스님들 손길

마이산 탑사, 육군부대 위문법회 · 공연 펼쳐

오랜 시간 방치된 군 법당을 활성화하기 위해 진안 마이산 탑사와 광명사가 발 벗고 나섰다.

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마이산 탑사 마령분원 광명사 송운 스님은 6월 4일 완주군 봉동 소재 육군 9585부대 장병위문법회를 봉행했다.

1부 법회에서 진성 스님은 장병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군 생활을 위해 우리말로 기도하고 부대안녕을 축원했다.

스님은 법문을 통해 "누구나 가슴속에 작은 상처가 남아 있기 마련"이라며 "이런 상처는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고 강조하고 장병들에게 명상을 통한 마음치유방법을 지도했다.

오순석 지도법사는 "진성 스님께서 충무정사를 방문하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장병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장병들의 군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육군 9585부대 충무정사에서 탑사 주지 진성 스님과 장병들이 법회를 보고 있다.

마이산 탑사 전주 나눔봉사단 박성균 · 김경은 · 정해자 불자가 출연해 퓨전 난타공연으로 막을 연 2부 위문공연은 미스코리아 광주 출신 문수인 씨의 사회로 법당 앞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이어 다양한 장기를 가진 장병들이 출연해 노래와 춤 등 장기를 자랑했다. 뛰어난 장기를 선보인 동원지원단 남재현 일병에게는 4박5일 휴가증이 부상으로 주어졌으며 출연한 모든 장병들에게 격려금이 전달됐다.

이날 참석한 장병들에게는 마령 광명사 송운 스님의 떡볶이 요리와 피자, 닭강정, 음료수, 아이스크림 등 간식이 전달됐다.

지역의 군 법당과 경로당 등을 찾아 떡볶이를 대중공양하고 있는 송운 스님은 "군인들이 떡볶이를 좋아한다는 말을 듣고 다양한 메뉴를 준비하고 있다"며 "장병들이 정말 맛있게 먹어주어서 고마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위문공연은 열악한 환경의 충무정사를 위해 현대불교신문 전북지사의 주선으로 성사됐다. 진성 스님은 "정기적으로 충무정사를 방문해 위문공연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정읍 어르신 경로잔치

내장사, 문화공연 경품추첨 등

정읍 내장사(주지 도완)가 정읍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위안잔치를 개최했다.〈사진 아래〉

5월 28일 정읍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경로잔치는 도완 스님, 내장사 한주 대우 스님. 김생기 정읍시장, 유진섭 정읍시의회 의장, 오경진 송하진 도지사 부인, 지역 어르신 50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해에 이어 2번째 개최되는 내장사 어르신 경로위안잔치는 대우 스님의 축시 낭송, 효 전통무용, 내장사 서래합창단 공연, '온세미로' 난타공연과 국악신동 김태연 · 소은혜 양의 판소리 공연, 어르신들의 장기자랑,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펼쳐져 어르신들을 즐겁게 했다.

또 이날 참석한 어르신들에게는 뷔페식 점심식사, 기념품과 함께 경품추첨을 통해 TV, 자전거 등 상품이 제공됐으며, 한국명원차회 정읍지부 회원들은 내장사 전통 숙성차를 공양하기도 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순천 조계산 불교유적 문화 가치 배워봐요

순천시, 문화재 활용사업 실시

순천에 위치한 전통산사의 고품격 문화재 활용사업인 '조계산, 천년산문을 열다!'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순천시와 (사)역사문화연구원 마루는 공동 주관하며, 6월 3일부터 11월까지 조계산에 위치한 송광사, 선암사 등 전통사찰을 체험하는 행사다. △우리동네 절집마실 절路절路 △천년 산문을 열다 △주산야읍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절路절路'는 관내 6개소 전통사찰을 탐방하며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를 배우고 문화예술 공연 등을 관람하는 프로그램이다. '천년 산문을 열다'는 송광사, 선암사, 정혜사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사찰 생활, 문화, 문화유산의 가치 등 산사의 문화를 배우는 프로그램이다. '주산야읍'은 낮 시간에는 송광사 · 선암사 문화유산의 가치를 배우고, 야간시간에는 순천문화재 달빛야행과 연계하는 프로그램이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 본 지면 광고는 본지와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생활안내

▷ 문 의 : 02) 2004-8214 / FAX 02)737-0696 / e-mail : jabi1522@hyunbul.com
▷ 가 격 : 1회 1Box (4.3×5.0) 4만원, 1회 1Box (8.7×5.0) 8만원
▷ 마 감 : 매주 월요일 ~ 수요일. 수요일까지의 입금 기준으로 광고 게재됩니다.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살아 있을 때는 삶, 그 자체가 되어 살아가야 한다.
죽을 때는 죽음, 그 자체가 되어 죽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어떤 두려움이나 불안한 마음도
없게 된다.

– 벽암록 –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0-9002-8523
빙의 치료 전문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유투브」에서 대명스님를치세요!
대명 합장(부산)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작법 천수바라연수원
염불 사물, 승려증 발급 종단
– 특별반 3개월 과정 모집
제9호 영산재 작법무, 천수바라
사찰행사 전문
(사)대한전통불교예술대학
전통불교조계종 총무원 영축사
010-5511-7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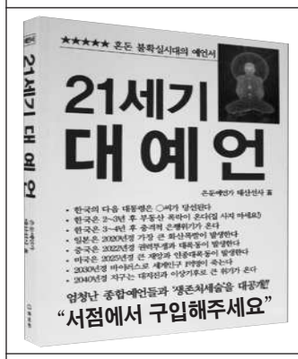
허리병 고치는 법 배울 분
2대째 이어온 기술 발명특허
아픈분 한번만 오시면 해결가능
7일이면 호전상태 가능
스님은 기술전수 특별대우
네이버 검색 「허리선생 혜경」 클릭
50년전통 010-3829-7582

역학 · 빙의 퇴마
개인 지도 . 예약 상담
1. 역학 : 사주,궁합,택일,사업운
2. 성명학 강의 및 작명, 개명
3. 빙의퇴마,전생요법,심리상담
4. 정신분열,환청,환시,우울증
※ 빙의(신병)출장 퇴마 및 상담
010-3772-4606 제행
서울 지하철4호선 상계역

수 맥
수맥탐사 교육생 모집
삼 일 단 기
속성반 (1:1개인지도)
이론실기 현장실습
교육 후 수료증 발급
출장탐사 개인사업자창업지도
(사)한국수맥협회 부산수맥연구소
051)462-8711

천도재 49재 점안식
각종 불공
집전하여 드립니다
바라무,나비무,법고무
호적, 살풀이, 화청
010-4304-0120

저렴한 천도재로 영가가 천도되게 맞춤 천도 합니다
천도재·49재·점안식
이 인연으로 극락왕생 하소서
010-2168-2800
011-850-0176



명예박사학위
취득할 분
미국령상담. 학과자유
선택. (철학, 문학,
정치학, 대체의학 등)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
070-8844-2030

관 상 (손금)
– 스님 특별 비법 개인지도
– 상술, 비법, 질병 전문강의
– 암,묘터,질병,재판,이혼수를
얼굴만 봐도 알수 있다
– 일반인,무속인,철학원,스님
010-4014-8822
(천기누설비법)

배워야 산다
사찰, 포교당을 운영하시는
스님과 법사님 필수조건
명리+귀장술+원인사+조상
찾는법을 단기간에 책임지도
(무료로 배우면서 공양주 하실분 1분)
010-4540-0061
지리산 현담

양 도 공 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
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1-412-8040 법광

석 하 명 리
논리로 푸는 사주 명리학
속성반 (기초부터 통변까지)
명리진로적성 상담사 1급 자격증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록)
010-2643-5685
부산경남지역 설운 합장

범음범패 교육
스님, 일반, 남·여 수시모집
바라, 나비춤, 사물 다루기,
살풀이, 극락무, 천도재,
49재, 점안식, 사찰행사
010-3413-5078
010-3653-5151
무상 합장

효 림 불 교
모든 불교 용품
철거 및 법당정리
010-7538-3859
010-3403-1078
대표 임영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 통 철 학
1개월 완성
– 바로 상담가능(책임지도)
– 불교 고승비급 전수
– 일반 사주학과는 다름
동국대 불교대학원 졸업 (석사)
010-3936-2295
정광 합장

PHILIPS
필립스전기면도기(방수)특별가11만원
당뇨 : 조절 잘되는 비결상담
본인 타인 담수치 500에서 현재
80 정상임. 장수약초
등록번호 479-93-00299
이청하 010-8561-8253
농협 187-02-274348 이청하

法帥寺 양산 통도사 부근
결혼,정년기의 청춘 남,녀 결혼을 하고자 하나 인연의 배필을 만나지 못한 분, 혼기를 놓친 40대, 50대. 미혼 남녀 인연 상봉기도. 돌싱, 재혼, 천생연분 배필을 만나고자 하시는 분.
스님친견상담 결혼성취
010-4640-4747

투자자 모십니다
금강경, 천수경 등
불음홍보사업 및
불교문화사업
010-3607-723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010-3647-001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서울)
02)2234-2198
010-8721-219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경기 이천)
031-641-6311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서울 도심 포교원)
010-3618-6061

문두루 기도비법?
스님에게만 전수합니다
☎ 02)963-1148 / 011-741-0867
•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스님 합장

금강경 반야심경을 써드립니다
금니(순금99%)도 가능, 별도상담
금강경(10폭) 심경(단품, 6, 8폭)
한문과 불교를 공부할분 연락 바랍니다.
• 수강료 : 10만 (5명) 주 – 2회 화, 금 오후 4시
승려시인, 선화, 한학, 서예가
포항 남구 인덕동 262
010-3749-4553

비구니 스님, 보살님
빈 절에 당분간
기도하실 분
010-9226-1058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50대, 서울 금호동 관음사)
02)2234-3310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70,000원
한박스 14KG 이상 130,000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 망고, 체리, 아보카도 수입과일 일체 판매합니다 〈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
Fax 031-881-1350 전화 : 010-5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 (조명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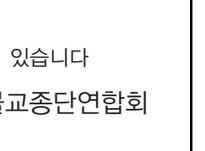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우학큰스님 상좌(행자) 및 출가학교 모집
1. 프로그램 : 무문관체험, 불교교리, 사경, 염불습의, 걷기명상
(지도 : 법사스님), 참선(지도 : 無一우학스님)
2. 교육기간 : 100일 / 3. 참가비 : 무료
4. 대 상 : 50세 미만의 남자 독신 / 5. 문 의 : 010-9562-8228
※ 미혼 청년회도 모집중입니다.
이 시대 불교를 리더할 참신한 예비수행승(행자)을 모집합니다
1. 수행위주의 교육
2. 수계 후 공부 100% (대학, 강원, 기본선원) 뒷바라지
3. 공부 마친 후 국내도량,해외도량,복지시설 등에서 활동할 수 있음
4. 본인의 희망에 따라 대구큰절,감포도량 중 선택하여 행자생활 함

27년 전통의 길상불교예술원
(탱화, 단청, 불상 갤러리 운영 전문)
불교미술을 배워서 전문적으로 불교예술원을
기획, 운영하실 인연을 기다립니다.
경북 경주시 보문로 402-31
(붓다의허브정원 : 탱화 불상 갤러리박물관)
010-5595-8533

비구니 부전스님 구함
숙식거주자, 운전가능
자, 30-50세,
월 보시금 100만원
(서울 도봉구 청암선원)
010-3382-8625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출퇴근 가능)
(서울 강북구 소재)
010-7415-1772

MYANMAR (미얀마 語) 강좌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 위빠사나 강좌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미얀마 문화원 (종로구 청진동)
문의 : 02)733-5670

大醫王 부처님의 기도치료법을 널리 펴고 싶습니다


총 782P 두권 구입 값 43,600원
입금 확인후 택배비는 저자부담으로 즉시 배송해 드립니다.
• 인류최초로 기도치료법을 가르쳐 주신분은 부처님이십니다.
• 이것을 세계 최초 가장 현대적으로 풀이하여 누구든지 쉽게 배워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위 2권의 서적입니다.
•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기도치료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자기 자신의 건강 증진은 물론 포교방편으로 삼으면 좋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담 및 책구입 : 011-557-2773, 010-2093-3385
입금 온라인 : 611038-02-030104 우체국(정보식)
352-0943-7979-03 농협(정보식)

절을 함께
운영하실
비구니 스님 모심
(30대 비구니 스님 모심)
010-5564-5211
부산 총무보살

부전스님 모십니다.
행자 모집합니다.
제반의식에 능통하신
스님 연락주세요.
(경북 문경)
010-8819-8988

불교종단 사암 및 전통문화예술단체 사단법인 등록 | 가입 안내
민법 제32조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감독에 관한 규칙 4조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 받았음.
※ 본회에 불교종단 및 문화예술단체 200여 종단과 단체 가입되어 종무 행정을 지원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세계평화상 제정 상 · 훈장 시상
※ 세계불교승왕청 임원 추대 선임
※ 연 4회이상 연합법회를 통하여 시상 수여와 메시지,결의문 등 발표 기회를 드림
※ 연합불교방송과 신문으로 동영상과 신문으로 기사 홍보
※ 대법원 등기
※ 대한민국불교종단 평화기장 수여
※ 공인단체 각종 시상을 추천 가능
※ 불교대학(문화센터) 개원
※ 수시 종무 행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사단법인세계평화연합법인회 · 사단법인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이사장 법왕자 김 소 부
☎ 011-356-3427 (직접 방문 상담)
종단 · 사암 · 개인 홍보 동영상 제작
연합불교방송 편성국장 김병기
☎ 010-5334-9008

육임 직접강의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등을 직접 강의합니다.
육임의 대가 운암스님께서 1:1 직접 강의로
수강 완료 후 즉시 개별 상담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 교 수 : 법연정사 운암스님
• 과 목 : 대육임, 육임금구결, 주역, 월령도, 명리, 성명학
• 강의시간 : 1년 과정 (매주 5시간 강의)
• 수 강 료 : 대육임, 육임금구결, 월령도 } 각 60만원
주역, 명리, 성명학 – 각 40만원
• 강의장소 : 법연정사 (경기 구리시 교문동 233-15 2층)
• 연 락 처 : 031)554-3336
010-5931-3319
법 연 정 사 운 암 합장

알기쉬운 구 단 구 궁 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종헌	저자 (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 「구단구궁법주」로써 자비의 방편학문인 「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 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 1월(寅月)의 높은 나무는 바람결에 귀신의 소리를 듣는다.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 (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 (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 (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구단구궁법 교실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27번길 31, A동 107호 (지하철 덕천역 12번출구)
cafe.daum.net/9dan9gung 전화 010-7415-0803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관계 및 일체 책임 관계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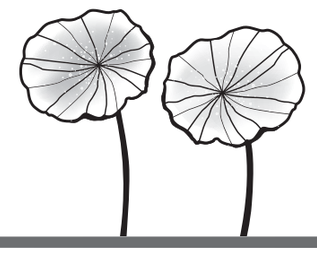
불자정보

▷ 접 수 : 매주 월 ~ 수요일 (팩스,이메일로 광고 접수 받습니다.) ▷ 게 재 : 매다음주 수요일
※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해드립니다.
▷ 문 의 : FAX 02)737-0696 / 02) 2004-8213 / iom@hanmail.net
▷ 가 격 : 기본 4.7㎝ 50,000원(1회) / 가로 6.7㎝ 70,000원(1회) / 가로 9㎝ 100,000원(1회)
▷ 계 좌 : 농협 053-01-269088 / 국민은행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금주의 법어】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구도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과 공손한 마음으로 모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런데 도리어 방자한 생각과 통쾌한 마음으로 산 것을 죽인다면 그것은 큰 죄가 된다.

- 범망경 -



경기도 포교원 안내
- 경기도 양평시
- 총3층의 3층 197㎡(약60평)
- 방2 욕실2 주방 법당 옥탑방 등
- 가액 : 보 2000만 월 60 시설비 1500만
- 사진 정보 : www.010-3426-9393.com

서울. 경기 사찰 & 포교원 매매 / 임대 급히 구함
이현종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공인중개사 이현종)
주소 : 서울 광진구 뚝섬로52길44 101호
010-3426-9393 / 02-449-0284

상주시 추천 사찰 안내
(www.이박사.com)
- 목조다포법당.산신각.요사채
- 토지 2.000㎡
- 주변이산. 교통편리. .안정되고아늑한 사찰
- 양도가액 : 5억1천만원(융자가능조정가능함)

■ 참되고 좋은인연 만드는 이박사공인중개사
010-7347-1010 (02-430-0284 이박사)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동남로18길40.가락동프라자@상가(대표:이규철)
■ 비밀 보장. 방문 접수. 전국사찰. 암자 급히 구함 !!!

사찰 안내 "가람"
※ 충주시내 사찰 소개합니다.
- 부지총면적 : 957㎡(289평)
- 건물총면적 : 207.03㎡(62.6평)
- 가액 : 7억 2천만원

사찰 사진과 상세한 정보는 가람공인중개사사무소 사이트
인터넷 검색창에 "사찰안내가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람 공인중개사 (대표 : 김인수)
02-492-6789 / 010-8980-4789
주소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로 226(상봉동 128-45호)

광진 사찰 안내
◎ 위치 : 서울 ◎ 위치 : 경남주변환경최상
◎ 부지 : 60평 ◎ 면적 : 1000평,산세수려
◎ 법당 : 25평 ◎ 법당 : 30평,차량진입
◎ 요사 : 30평 ◎ 요사 : 30평 외 2채
◎ 양도가 : 6억 5천 ◎ 양도가 : 9억 5천

*40년세월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출장 상담 받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광진불사」를 입력해보세요.
*전국사찰,땅,포교당,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 합니다.
*고불, 석불, 골동품,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 찰 안 내
- 위치 : 산 좋고 물 좋고 경치 좋은 동강 앞 영월 근교 영월에서 25분거리
- 대지 270평, 요사채 40평 목조로 된 신 건물, 법당 17평
※ 군부지 약 500평 사용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0-3924-8969 주인직

사찰(급)안내
- 제천 중심가 사찰
- 토지 250㎡. 한옥요사채58㎡ .법당48㎡
- 이동인구많으며 깨끗하고 위치좋음
- 방편상담 최고자리 남향임
- 가액 : 1억6천만(융자가능함)

010-7347-1010 (02-430-0284)
사무소 방문 부동산 무료 상담
(서울 이박사 공인중개사 이규철)
전국사찰다량보유.무료상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이천
- 부지 : 450평, 대지 300평
- 법당 : 40평
- 요사 : 60평외 1동(120평)
- 산속,차량진입,경관수려
- 가액 : 3억 7천

010-4586-4525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시 부론면 소재
- 여주IC, 문막IC에서15분거리
- 대지180평,전75평,건평30평
- 난방 : 심야보일러
- 대문까지 포장도로,주차장시설
- 스님 토굴용으로 최적
- 가액 : 1억 5천만원

010-7345-1674

경기도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 지하철역 인접 / 대로변위치
- 2층 149 ㎡(약 45평) 방2실 법당 주방 공양간 등
- 가액 : 보 1500만, 월 90만 시설비 무

010-3426-9393(포교원전문)
02-449-0284

삼 보 사 찰 안 내
무료 부동산 법률 상담해 드립니다

- 위치 : 사하구
- 대지 : 750평
- 법당 : 50평
- 요사 : 3층 20평씩
- 양도액 : 25억

- 위치 : 서울
- 대지 : 120평
- 법당 : 25평
- 요사 : 30평
- 가액 : 12억

- 위치 : 김해
- 대지 : 2,0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60평
- 가액 : 25억

오랜전통 믿음과 신용으로 스님들의 가람을 일심으로 정진 불사하오며 만남의 장으로 환영합니다.
사찰,포교원을 찾는 스님이 많은데 물건이 없습니다.
물건을 많이 주시면 빠른 시일에 성사 시키겠습니다.

삼보불사 010-6722-2211

사찰(급)안내
- 위치: 불국사 부근.
- 대지200평,건평40평.
- 법당, 요사채,방3개,친견실, 공양간,샤워실,화장실2개, 밖에 남,여 화장실 건평18평
- 산신,용왕,나반,대중공양간, 용왕연못,7층탑등,시설일체, 최고입지 조건 갖춘 암자임
- 가액 : 2억5천 사전전화요망

010-5427-369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진주시 시내중심가 도심포교 최적지
- 마당 정원이 있는 한옥 기와집, 단독주택
- 법당(시설완비), 방2개, 주방1개, 욕실, 화장실, 창고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20만원. 시설비 800만원
- 몸만오시면 됩니다.

010-6603-1456

지리산 암자 안내
- 위치 : 경남 함양 마천(지리산)
- 대지 510㎡ 법당 약10평정도
- 건물앞 바로 계곡 공기 물 산세 최고 2층에 앉아 흐르는 물 바라보면 지상낙원임
- 기도도량으로 보살님 법사님 환영
- 둘레길에 위치하며 등산객 많음
- 버스종점 위치 좋음
- 가액 : 2억 3천만원

010-3283-7733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고흥군 도화면 신기 탑성동길 28-51
- 법당,20평 산신각 3평 요사채 45평 부속건물18평
- 대지 478평 총 일천평
- 가액 : 2억 5천만원

010-4859-446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 대지 : 125평
- 법당 : 30평, 요사 : 20평
- 가액 : 4억 5천

010-3899-2296

사찰(절암자)터 양도 상담 전문
- 양도 양수관계 경력이 많습니다
- 전화주시면 성실 상담합니다

불자공인중개사 공신공인중개사
010-3570-0025
부산시 동래구 안락동 770-2
(사)607-46-1189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상주시 소재
- 부지:1,000평(종교용지)
- 법당: 50평(목조,단청,3포7포)
- 요사채:60평
- 가액:12억
- 특징 : 도심 인근의 대가람 사찰로 포교와 기도정진할 도량으로 참 좋습니다

사찰안내(포교원)
- 위치 : 울산광역시 소재(신도시)
- 법당: 50평(2층, 방2)
- 보증금:1,000만원(월 60만원) 시설비:2,000만원(조정가능)
- 특징 : 신도시 번화가에 있어 포교하기가 용이하며 시설이 완벽하며 몸만 들어오면 바로 법회를 할 수 있습니다.

동진불사 서울) 010-5848-0455
대구) 010-4942-0455 / 제주) 010-5122-8080
* 전국소재 사찰 양도, 양수 하실분 연락바랍니다.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
- 총부지 : 임야 2,000평
- 건물 : 법당 16평, 요사 30평, 조립판넬구조
- 자연경관 수려하고 공기좋고! 이명산, 지방문화제 마애불있고 북천 코스모스축제 하는 곳
- 가액 : 2억 1,000천 대출 7,500백 안고 1억 3,500백

010-7188-7723

암 자 안 내
- 위치 : 경북 김천시 지례면 신평리 599번지
- 대지 129평, 법당 17평
- 아미타도량, 관음, 지장,소불 104위
- 거실, 주방, 방 2, 욕실 2 경내돌탑 수려함
- 가액 : 8,400만원

010-8503-5769
054-430-576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신평동
- 대지 : 150평(반지하)
- 법당, 산신각, 칠성각 약70평
- 스님친견실, 주지실, 종무소, 외 방 3개, 공양간, 욕실, 다용도실, 텃밭
- 완전 몸 만오시면 됩니다
- 가액 : 3억

010-6717-6826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양평군 강하면 (서울 강남에서 50분 거리)
- 종교부지 1640평, 건물
- 대웅전 25평, 지장전 15평, 독성각 4.5평, 지장대불, 요사채 25평(조립식), 황토방(7평,5평)
- 지장전에 납골시설 5000기 허가득
- 가액 : 12억 5천만원

010-6288-9067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보령시 동대동
- 연 450만원, 보증금 500만원
- 신축건물 2층 트인 전망

010-5438-0138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 연제구 연산동
- 종교부지 120평
- 대웅전, 삼성각, 용왕당, 호신불당
- 5㎡ 옥탑, 주차장, 부처님 진신사리2과 100년 넘은 안정된 사찰로 사시사철 천연수 철철
- 가액 : 4억 5천

010-2720-1580

토 굴 안 내
- 위치 : 원주 신림IC 15분
- 대지 : 650평
- 건평 : 60평, 창고 : 20평
- 환상적 전망, 넓은 주차장 뒤 바로 산 지근거리에 강있음
- 토굴로는 최적입니다
- 가액 : 4억 5천

010-6399-3379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수영구 무학로 10번길 35(광안동) 광안리 최고요지
- 3층 건물 2층 50평, 법당 5존불 외
- 한자불 50불 30cm, 후불탱화
- 방3개,주방1개,식당,화장실2개
- 가액 : 1,500만원, 월세 70만원 시설비 3,500만원

010-3884-0122

포교원 안내
- 위치 : 김해시내 구산동
- 아파트 상가 3층 80평
- 법당1,공양간1,상담실1 교실1,방2
- 가액: 보증금 2,500만원 월 80만원
- 집기 필요없을 경우 시설비 없음

010-5669-1414

사찰(급)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목천읍
- 대지 : 173평
- 법당 : 25평
- 요사채 : 28평
- 가액 : 1억 8천

010-2376-5411
041-557-7786

암 자 안 내
- 위치 : 김해시 동상동
- 대지 100평, 아파트 대단지 뒷편
- 산과 계곡이 있는 절
- 오존불, 각단 탱화 법당 완벽
- 방4개, 다용도 거실 큼
- 가액 : 전세 500, 월30만원 시설비 1,800만원 가격 절충
- 몸만 오시면 됩니다.

010-2565-7200

사찰(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정선읍
- 부지 약 1,700평 대웅전1, 삼성각1, 부처님 진신사리 있음
- 대형돌탑 높이 9m30, 탑둘레 13m 108돌탑, 요사채2, 정자각1, 심야전기, 보일러, 태양광열설치, 대형주차장완비
- 집기일체 법회 바로 가능
- 읍내거리 5분 • 가액: 16억

033-562-0448

기도처 적지
- 위치 : 경북 영양읍 무창리 117-2번지
- 전 400평, 남향 지방도 전기유
- 종교용지로 좋은 조건
- 가액 : 2,800만원

010-8899-8899 주인직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면적 : 3층 약 40평
- 금액 : 보 1천만원, 월 13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참고 : 정확히 10년 운영 했음 쉬고 싶어 양도함. 다양한 생활방편을 갖고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음.

02)571-9197

토굴 분양 안내

따뜻한 남쪽나라 바다와 산이 어우러진 남해에 삼재가 침범하지 못하는 길지에 지어진 토굴에 입주하실 복 있는 인연자를 모십니다.

토굴특징

1 자연재난(지진, 태풍, 해일)과 전쟁 사변 등으로 전기, 수도, 가스 등이 단절되더라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이 구비 되어 있는 아궁이와 온돌 구조 이며 자연수 등이 갖춰진 건물입니다.

2 유명 풍수가들이 극찬한 지세와 지기를 머금은 명당이며 말기암 환자나 난치병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 치유될 수 있는 환경과 주변 뒷산에 산약초가 자생하는 지역입니다.

3 또 심우도(尋牛圖) 길이 조성되어서 걷기 명상 할 수 있는 등산로가 있습니다.



분양내용 (선착순 분양)

■ 1개동 건물면적 30156㎡. 대지지분 156㎡
■ 총 7개동 ■ 아궁이 10㎡(9.1평)
■ 1개동 분양가 : 일억원
■ 주소지 : 경남 남해군 남면 홍현리 581-2
■ 별채 : 2층 건물 면적 197.27㎡ / 대지면적 1,042㎡
■ 양도가액 : 5억원

연락처 : 010-8913-0062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염주세트
(10㎜)
30,800원 (무료배송)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주문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밀양시 100년된 암자
- 대지 280평, 법당 20평 요사 30평
- 가액 : 1억 6천

010-5170-1381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수성구 지사동 목련시장 옆
- 평수 : 40평(3층건물 중 3층 전체사용)
- 구성 : 삼존불, 인등, 범종 집기일체
- 특징 : 건물내시설비 및 집기류 총1천만 월세 16년째 운영함 스님께서 연로하셔서 양도합니다
- 가액: 보증금1천만원 월세35만원

연락처 : 010-8576-8019

사 찰 안 내
- 위치 : 충북 괴산 60년된 사찰
- 종교부지 911평
- 목조 건물
- 대웅전 15평, 지장전 11평
- 요사채 23평(황토 목조건물)
- 가액 : 4억(대출 2억 2천) (승계가능)

010-6628-8271

포교원 안내
- 위치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미주상가 건너편
- 마당 22평,법당 및 사무실 40평, 요사채 18평
- 청량리역 도보 3분거리, 교통요지, 1호선, 중앙선, 버스 정류장 앞, 옥상 사용 가능
- 주차장 및 제반시설 완비
- 가액 : 시설비 3900만원 보증금 1,000만원, 월세 99만원

010-7409-0490
02)957-0824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북부지역 일월산지역
- 총평수 1,000평, 대지 500평, 농지 500평 요사채 30평, 완공 3년
- 사정상 법당은 미완공, 토목공사 완료
- 앞마당에 계곡물 흐르고 1급수 청정지역
- 가액 : 2억 4천, 절충가능

010-5424-49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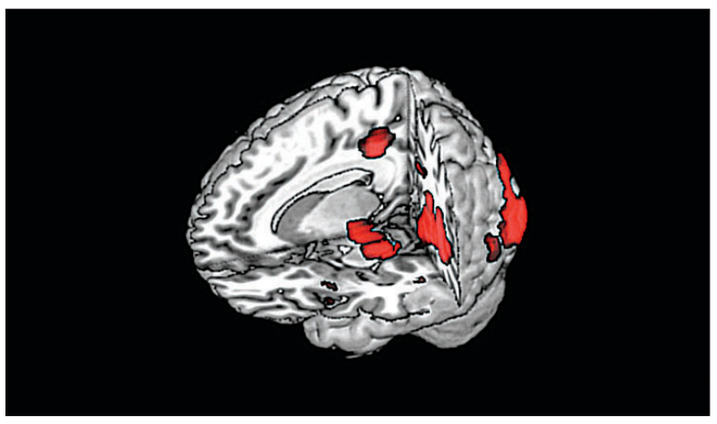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함안군 가야읍
- 대지: 1140평
- 주차장 20대이상
- 건물 : 대웅전 30평, 요사채(방 7칸), 스님친견실 60평
- 창고, 산신각, 일주문
- 가액 : 6억 2천만원

010-2498-7899

"불교수행, 심신 활동 증진시켜"

홍콩불교학연구소, '마음'과 '심장'의 연관성 연구

마음챙김하며 뇌 · 심장 관찰
명상, 혼란 낮추는 결과 도출
"몸-마음 사이 동조 증가시켜"
염불 통해 심리적 고통도 줄어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심장과 마음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해왔으며, 홍콩 불교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이러한 '심장과 마음'의 연관성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 출처=라이언스로어

산스크리트어인 'citta'와 일본어인 'kokoro'는 영어로 '심장' '마음'이라는 뜻이다. 우리말로도 마음을 떠올리면 심장을 연관지어 생각하게 된다. 과연 '심장'과 '마음'은 서로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

불교에서는 오랫동안 심장과 마음사이의 연관성을 주장해왔다. 이와 같이 홍콩 불교학연구소 연구원들은 '심장'과 '마음'의 연관성 파악에 매진하고 있다.

불교전문 매거진 라이언스로어(Lion's roar)는 6월 6일(현지시간) "홍콩 불교학연구소에서 심장과 마음의 연관성을 찾아내는 연구를 진행,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홍콩대 불교학연구소장이자 스님인 식힌훙 스님은 "많은 불교적 가르침에서 마음은 신체를 비롯한 뇌와 심장에 연결돼 있다고 말한다"며 "마음과 뇌는 서로 확실한 연관성이 있다. 우리는 마음과 심장사이의 연결 고리가 있는지도 알고 싶어 이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원들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참가자들을 모집, 그들의 뇌와 심장의 활동을 관찰했다. 이후 참가자들이 마음챙김 명상을 하도록 시켰다.

이 연구를 통해 연구원들은 뇌과학지에 명상 요법은 뇌와 심장의 혼란한 활동을 잠재워준다고 보고했다.

그들은 "마음챙김명상 수련을 하는 동안 뇌와 심장의 활동은 더 활성화된다"며 "마음챙김명상은 몸과 마음사이의 동조(同調)를 증가시킨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마음과 심장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경전을 암송하거나 깨달음에 이르는 과정에도 과학적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믿고 있다. 식힌훙 스님은 "깨달음을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며 "깨달음은 애매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고 단계가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은 깨달음을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처님은 우주의 궁극적 법칙을 이해함으로써 그의 탐욕과 증오, 무지를 제거할 수 있었다. 이 내용을 활용해 만약 어떤 사람이 깨달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가 탐욕과 증오, 무지를 갖고 있는지 측정해 보면 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어떤 끔찍한 장면을 보여주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섹시한 사진을 보여주면 욕구를 일으키는지 등이다"라고 덧붙였다.

식힌훙 스님과 연구원들은 피실험자들이 고도의 집중을 통한 명상을 할 때의 두뇌 상태를 연구했다.

스님은 "인간의 뇌는 보통 때는 산만한 상태지만, 명상을 할 때 뇌파가 발생한다. 특히 알파파와 감마파가 활성화된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왜 이런 파동이 활성화되는지 정확히 분석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구원들은 또한 명상 연구에서 개발한 도구들을 사용해 다른 불교적 수행을 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에도 적용했다. 재밌는 것은 '아미타불'을 염송할 때는 뇌 반응이 일어났는데 '산타클로스'로 바꾸어 염송할 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식힌훙 스님은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그것의 이로움을 알고 있지만 염불을 할 때의 효과는 아직 알지 못한다"며 "'아미타불' '옴마니반메훔'을 외울 때 심지어 '성모 마리아'를 외울 때도 심리적 고통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은 불교는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핵심적인 학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불교는 모든 이론을 아우를 수 있는 종교다. 우리가 논리학에 관심을 가졌을 때 이미 불교에서는 불교 논리가 있었고, 사람들이 만트라(염송)의 효과을 알기 시작할 때 이미 불교에는 염송이 있었다. 이제 사람들은 과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근의 과학적 방법과 지식을 이용해 불교를 설명할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중국서 수~당 시기 대규모 불교유적 발견

6월 2일 발굴된 쓰촨성 후간사원서 1천여 경전 · 500여 돌 유적 발견



발굴된 후간 사원 터. 사진출처=데일리메일



후간 사원 터에서 함께 발견된 돌 조각. 사진출처=CGTN

중국 쓰촨성에서 1000여년 전 대규모 불교 유적이 발견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 신화통신 · 웨스트차이나 시티 데일리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6월 2일(현지시간) 쓰촨성 지역에서 발견된 후간(Fugan) 사원서 대규모 불교 유물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발굴품은 1000개 이상의 불교 경전과 500여개의 돌 조각품, 약 80개 무덤 등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고고학자들은 쓰촨성 청두시에서 약 1만1000㎡에 달하는 후원 사원을 지난 2일 발굴했다. 후간 사원은 동진(317~589)에서 남송(1127~1279) 왕조까지 성행한 것으로, 발굴된 것은 수~당 왕조 시기 후간 사원의 일부다. 청두문화유적연구소 연구원들은 후간 사원의 건물과 주변 유적지, 우물, 도로, 도랑 등을 발견했다.

발굴단을 이끈 이 리(Yi Li)는 신화통신에 "우리는 성전지역의 일부만 발굴했으나, 그것만으로도 과거의 영광을 엿볼 수 있다"고 말했다.

후간 사원은 당나라 시대에 가장 번영했다. 당대 유명했던 다오슈안(Daoxuan) 스님이 긴 가뭄을 끝낼 비가 내리길 염원하며 이 사원 앞에서 기우제를 지냈는데, 거짓말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려 '축복을 감지한다'는 뜻의 '후간'이란 이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이후 송나라 때 전쟁이 빈번히 발발하며 쇠퇴했다.

왕이 청두문화유적연구소 국장은 "이번 후간 사원 발굴은 당나라 시기의 불교문화연구를 위해 귀중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캄보디아 정치부패, 우리가 알린다"

'SNS 정치 특파원' 캄보디아 스님

뉴욕타임즈, '시민 기자' 루온 스님 조명



루온 스님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캄보디아의 정치적 사건 · 인권 상황 등을 전하는 '시민 기자'로 활동 중이다. 사진출처=뉴욕타임즈

캄보디아 지방선거가 열린 6월 4일(현지시간). 수도인 프놈펜의 광장에서는 스마트폰을 들고 어디론가 선거 상황을 중계하는 스님이 눈에 띄었다. 스님은 스마트폰을 들고 자신의 페이스북 라이브방송을 통해 팔로워들에게 지방공무원 선거 상황을 전했다. 주인공은 바로 루온 소바스 스님(37). 스님은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은 나라의 주권을 갖고 투표의 의무를 행사할 의무가 있다"고 말하면서 일반 시민들 뿐 아니라 스님들에게도 주권 의식을 강조했다.

뉴욕타임즈는 6월 4일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캄보디아의 정치적 사건 · 인권 상황 등을 전하는 '시민 기자'로 활동 중인 루온 스님 소식을 보도했다. 캄보디아에서는 루온 스님을 포함한 몇몇 스님들과 시민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부의 독단적 권력을 견제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캠페인은 캄보디아 언론 구조에서 비롯된다. 캄보디아는 여당인 인민당이 모든 방송국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직접 운영한다.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 등은 수년간 방송국 운영 허가권을 얻지 못했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사실상 여당에 의해 언론이 통제돼 온 것으로 알려진다.

루온 스님은 "페이스북은 (캄보디아의)커뮤니케이션 및 정치 상황을 바꿨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정치인들이 하는 모든 일을 알 수 있게 됐다"면서 "이전에는 TV에서 좋은 것만 보여줬다. 사람들은 정치 부패, 폭력, 토지남용, 산림 벌채 등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은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언론 상황을 탈피하고자 스님들과 시민들이 택한 방법이 바로 소셜미디어다. 소바스 스님 등은 캄보디아 정치 상황을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의지로 정부가 TV를 통해 전송하는 콘텐츠 외에 사건들을 직접 발로 뛰어 취재, 페이스북 라이브방송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 정치 비평가가 암살당했을 때 이들의 활동은 더욱 빛났다. 또다른 시민 기자 분텐흐(Buntenh) 스님은 살인자의 행적을 추적해 경찰과 언론에 앞서 온라인을 통해 보도했다.

이들의 활약은 이번 지방선거 기간에도 이어졌다. 루온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은 라이브방송을 통해 투표 절차, 유권자 인터뷰 등 소개하며 시민들에게 투표를 권장했다. 루온 스님은 투표소 현장을 중계하는 도중 경찰관에 의해 제지돼 퇴출되는 상황도 벌어졌으나, 시민들은 '좋아요'란 공감 표시를 통해 스님의 활동을 지지했다.

한편 이번 캄보디아 지방선거에서는 야당의 선전이 돋보였다. 6월 5일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캄보디아 기초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는 1,646개 코뮌(Commune)의 평의회 대표와 의원들을 뽑는 선거 결과,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CNRP)이 약 500개 코뮌에서 승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지방선거에서는 야권이 40여개 코뮌에서 승리하는데 그친 바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투표율은 약 85%로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진 것을 드러냈다.

박아름 기자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민속죽염 30년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2)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3)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4)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가루	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	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	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	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주문 및 상담 :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佛事의 모든것 대원불교 사랑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사랑을 성원해 주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사랑에서는 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및 불교용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철거한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대표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73-3722, 010-7171-2636
010-4037-3722
팩스 031)573-3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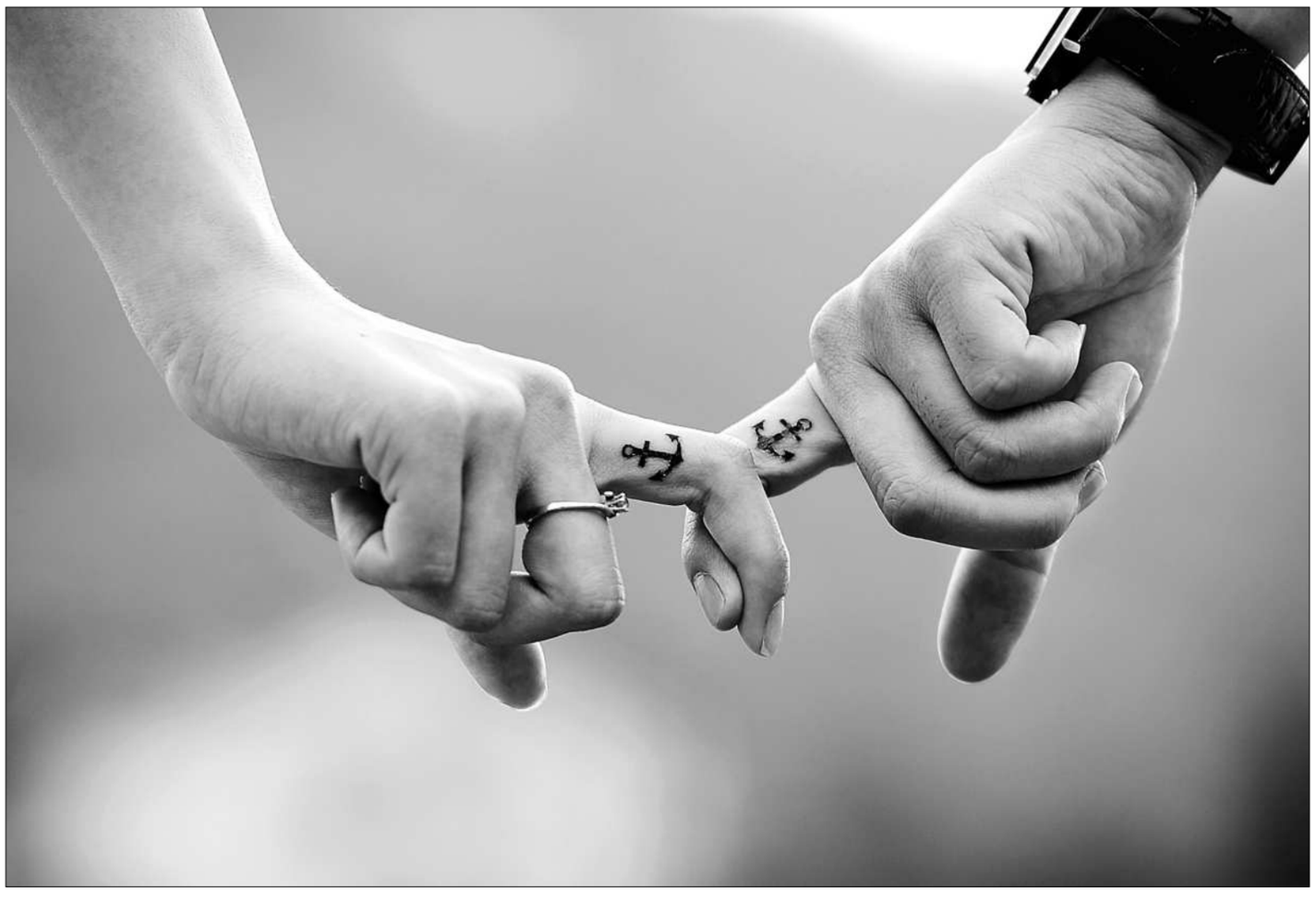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사랑이 되겠습니다

욕망 앞 불균형, 관계를 무너뜨린다



박태수 제주국제명상센터 이사장

명상은 세상과의 소통 ⑫



저울추의 평형상태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적 과제는 통합과 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정부에서 현 정부로 정권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갈등과 혼란이 상존해 있어서 새 정부의 개혁적 가치가 순항하려면 무엇보다 통합이 되어야 하고 균형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통합이란 단지 여러 부분을 합하는 데 있다기보다 여러 부분이 각자의 위치에서 독립된 역할을 하되 전체적인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조화란 두 가지 이상의 요소나 부분들이 상호관계를 잃지 않고 어울려 만나도 분리되어 보이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균형이란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기울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마치 오래 전 시장에서 고추를 사고 팔 때 손저울에 고추자루와 저울추가 양쪽으로 오르고 내리면서 평형상태가 되려는 것을 떠올려 보면 실감이 난다.

현 정부는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며 정권을 잡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보수성향 정권이 이루어 놓은 국정의 모습을 진보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만족스러울 리가 없다. 보수는 보수의 가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제 진보의 정부는 진보의 가치로 보수가 이루어 놓은 지금까지의 업적을 수정하거나 보완하면서 새로운 5년을 경영하면 된다.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는 특별히 경계가 있다기보다 경영자의 의식에 달려있다. 그 의식이 얼마나 진보중심이냐 진보를 넘어 전체적이냐에 따라 국가가 안정적이 될 수도, 불안정하게 될 수 도 있다.

요가명상의 3단계인 아사나에 몸의 균형을 잡는 '에카파다 뿌라나마사나(Ekapada Pranamasana)'가 있다. 이 자세는 학처럼 외발로 서서 균형을 잡아 몸을 바르게 하는 명상자세이다. 우선 발을 붙이고 차렷 자세로 선다. 몸 앞쪽 눈높이에 고정된 한 점을 응시한다. 왼 다리를 구부려 발목을 잡아 오른쪽 다리 허벅지 안쪽에 왼발을 붙인다. 균형을 잡으면서 가슴 앞에서 기도하듯 합장을 하고 바로 선다. 수련하는 동안 호흡은 자연스럽게 한다. 이 자세를 2분 정도 유지한 후 반대편 다리로 옮긴다. 거울 앞에서 하면 보다 균형을 잘 잡을 수 있다. 균형 아사나는 움직일 때 몸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를 담당하는 소뇌를 발달시킨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몸이 움직일 때 균형이 잡히지 않아서 중심을 잃거나 부딪혀 넘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이 균형 아사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무의식적인 동작을 멈추게 하고 의식적으로 몸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을 준다. 움직이는 몸이 균형을 잡아감에 따라 그 자체의 에너지를 보존하면서 균형 잡힌 동작을 익숙하게 한다. 균형 아사나는 신체의 균형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성숙한 견해와 균형 잡힌 마음을 계발시킨다. 안정적으로 이 동작을 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집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균형 있는 삶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아사나 수련으로 균형 감각을 익혀야 한다.

이러한 몸과 마음의 균형 감각이 안정된 상태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 이전의 1~2단계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1~2단계는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지켜야 할 도덕률이다. 아사나를 통해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우선 마음의 상태가 건강해야 한다. 이 도덕률은 외부환경과 만날 때, 그리고 내 자신과 만날 때 지켜야 할 지침들이다.

1단계는 외적인 도덕률(금계, yamas)로써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 것을 포기하는 비폭력, 세상에 살면서 진실하고 정직하기, 세상의 생명 보존하기, 온갖 대상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고 적절하게 관계 맺기, 성적욕망 절제하기이다. 2단계는 내적인 도덕률(권계, niyamas)로써 정신적으로 순수함 유지하기, 모든 환경에서 영혼의 만족감 함양하기, 자신의 진정한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관조하기, 초월적 실상에 대한 각성과 깨달음을 위해 자아에 대한 환상 포기하기, 마음을 정화시키기 위해 신에 복종하기이다.

여기서 1단계의 외적인 도덕률은 자신과 세상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고, 2단계인 내적인 도덕률은 자신의 내면을 관리하기 위한 도덕성이다. 이 양면의 도덕성은 각각 자기 자신과의 균형, 세상과의 균형을 이룰 때 통합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 1단계의 금계인 외적 도덕률은 인간에게 끊임없이 일어나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적절히 통제할 때 가능하며, 2단계인 내적 도덕률은 끊임없이 일어나는 마음의 현상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릴 때 가능하다. 이러한 도덕률은 모두 내안에서 이루어지는 의식의 산물이며, 생각이나 행동이 매순간 지나치거나 부족하거나 하는 것을 알아차릴 때 균형이 가능하다.

> "마음 건강이 균형의 토대
> 내·외적 도덕률 잘 지켜
> 굳건한 평정상태 이뤄내야
> "자기관리 없이는 불가능"

그리고 삶에서 온전한 균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단계인 8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8단계인 사마디(Samadhi)는 초의식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는 자비심이 있고, 사심이 없으며 의식에서 해방된 상태다. 사마디는 자아라는 의식이 없이 대상을 나타나는 상태 그대로 묘사한다. 여기서 핵심적인 말은 '의식이 없이'이다. 의식은 개인이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것을 아는 상태이다. 그런데 '개인의 의식이 없이'라는 말은 개인의 생각, 느낌, 의지 등 마음의 작용 없이 대상을 만날 수 있는 초의식의 상태이다. 이 단계에서는 개인적인 의식이 수정같이 맑은 공(空)의 형태로 인식된다. 수정이 색깔 있는 천위에 놓이면 그 색이 수정에 반영되며, 꽃 위에 놓이면 꽃의 모습이 반영된다. 마음이 수정 같아서 외부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평정의 상태이다. 평정상태는 어떠한 상태가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균형의 상태가 유지된다. 마치 공자가 말한 종심(從心)과 같다. 마음이 하고자 하는 대로 하여도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상태이다.

현실서 접하는 불균형

이러한 균형과 불균형 상태는 현실생활에서 흔히 나타난다. 남녀 간에 사랑이 이루어지면 균형의 상태요, 사랑을 잃으면 불균형, 집착의 상태가 된다. K부인은 남편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남편 주변의 여성들로 인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실제로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일은 없으나 혹시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면서부터 불안하기 시작하였고,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다른 여자와 지낼 것이라고 단정하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 부부간에 사랑이 균형을 잃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부모 자녀 간에도 유사한 현상이 나타난다. S부인은 자녀를 매우 사랑하였다. 그녀는 자녀에게 많은 관심을 쏟았고 쏟은 만큼 결과도 달라지리라고 기대하였다. 그러나 자녀가 보여주는 행동은 부인의 기대를 채워주지 못하였다. 그래서 부인은 자신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러는가 싶어서 직접 자녀의 세계로 뛰어들었다. 자녀의 일상사에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부인이 기대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바꾸고자 동부서주 하였다. 그리고 얼마쯤 지나 부인도 자녀도 모두 지쳐버렸고 부모와 자녀 간에는 불신과 실망만이 남게 되었다. 지나친 사랑이 균형을 잃고 나타난 현상이다.

남편에 대한 사랑이 적개심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불신과 실망으로 바뀌게 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욕망에 대한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는 집착에서 한 편만을 바라보고 그 곳에만 에너지를 쏟게 되면 다른 편으로 쏟아야 할 에너지가 없다. 우리 몸의 에너지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따라 균형 있게 적절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부인이 남편은 아내 외에 어떤 여자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한 부인의 에너지는 남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흘러가면서 정작 자기를 깨어있게 하는 각성의 에너지가 고갈된다. 끊임없이 남편을 의심하다보니 의심하는 자신마저 못마땅하게 여겨져 스스로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져들기도 한다.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기대도 넘치기만 했지 기대가 욕심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에너지의 균형을 잃으면서 무너진다.

오늘날 불균형으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심각하다. 그 중 하나가 언어폭력이다. 때때로 휴대폰을 보다가 소위 문자폭탄이라고 할 수 있는 저급한 문자들을 대하면 이맛살이 찌푸려진다. 특히 지난 대선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언어폭력현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흔히 폭력이라고 하면 신체적 폭력이나 성폭력을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문자폭탄이라는 언어폭력은 드러나지 않게 사회를 정서적, 부정적으로 파괴한다. 대체로 직접적인 대면관계에서는 언어폭력을 쓰고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는 문자폭탄을 사용한다. 이러한 폭력은 눈으로 볼 수 있거나 흔적으로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폭력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아픔이 있듯이 언어폭력도 보이지 않으나 받는 사람은 상처가 크다. 그것은 내면에 트라우마로 남아 일생동안 따라다닌다.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의 폭력을 예방하느라 애를 쓰고 있는데, 사회에서는 문자폭탄을 일삼고 있다. 그것도 청소년이 아니라 성인들이 하고 있으니 청소년들의 폭력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셈이다.

학은 창공을 마음껏 날아다닌다. 몸이 무거웠다면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학은 몸의 균형을 위해 뱃속에 3분의 1은 먹이, 3분의 1은 물, 나머지 3분의 1은 공기로 채우고 있다고 한다. 동물이긴 하지만 왜 강한 식욕이 없을까. 이를 알아차리고 절제로 인한 자기관리가 바로 무한한 창공의 신이 되게 한 것이다.

종 도 모 집

사)해동불교 조계종 총무원

총무원장 : 혜 암

불조의 혜명을 탁마 하면서
원만한 승가의 길을 함께하실
제방의 스님과 법사님을 모시오니
뜻을 함께하여 주시길 권청합니다.

전북 익산시 왕궁면 시대길 73-26

총무원장 전화 : ☎ 010-8224-1688

천년고찰 암반수 영험도량 영 천 사

수행도우미

미국FDA 등록인증 3009241067



발로해(두한족열양말)
노폐물 독소 쏙 빠지며
발 보들보들
발냉병 즉시 해소
법당에서 절할때 꼭 필요해요



선하트조율
하루 10분 수행으로 몸맘 행복한 조율
상·중·하 단전 챠크라 열려 기운 쌩쌩!
스트레스 제로! 피로 제로!
온 몸에서 엄청난 氣감 체험



氣사라따
누구나 누워서 저절로
자동단전호흡 100%
피로회복, 氣모음 확실
환자에게 최고의 선물



휴~ 힐링베개
잠이 스르르~ 저절로
가슴답답, 우울, 수면장애, 어깨뻐근, 손발저림
목아픔, 결림, 허리 뻐근 완전해결!
이완이 스르르 저절로 와선삼매 100% 체험



보디스킨
발목,장단지,허벅지,엉덩이,등허리
목, 뒷골은 3분만 밀어도 氣통하며
정신이 맑아지고 졸림, 나른,
피로회복 즉시 해소

www.법왕정사.net
010.3487.0035

좋은인연 대출안내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기본5년
· 근저당설정비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단체명의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전무 이강욱 ☎ 010-9842-4200
부장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1151호 현대불교 A17
2017년 6월 14일(5월 20일) 수요일 / 불기 2561년

그만큼 신념이 두텁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

삼처전심(三處傳心)에 대해서

질문 삼처전심(三處傳心)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고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종선감』에 이르기를 선(禪)은 불심(佛心)이라 했고 교(敎)는 불화(佛話)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일찍이 가섭 존자에게 세 곳에서 전심한 것을 삼처전심(三處傳心)이라 하는데 첫째, 염화미소(拈華微笑) 둘째, 다자탑 전분반좌(多子塔 前分半座) 셋째는, 곽시쌍부(槨示雙趺)가 있습니다. 한마음 도리에 비추어 가르침을 듣고자 합니다.

답변 첫째, 염화미소라고 하는 것은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까닭에 법을 전하신 겁니다. 그 법이 둘이 아닌 까닭이죠. 둘째, 석존이 가섭에게 반 자리를 내 준 것은 바로 한도량의 한자리다 이겁니다. 반 자리를 내 주신 것도 한자리다 이겁니다. 한자리면서도, 거기 붙어 돌아가는 것은 한자리면서도 "네가 있고 내가 있구나." 하는 그 도리에서 이 세상만사가 다 거기 붙어 돌아갑니다. 세 번째, 석존께서 관 속에서 두 발을 내보이신 뜻은 바로 한 땅의 한 발이다 이 소립니다. 그 뜻으로 생각한다면 깨달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중생이나 부처가 한마음임을 돌려 깨달으면 이 도리를 알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그것을 가르치려고 방편으로 보여 주신 겁니다. 실지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조금도 각자 자기를 의심하지 말고 자기의 영원한 생명의 근본, 그 불성을 믿어라 이겁니다. 자연스럽게 믿어야지 거기다가 뭘 물어보고 자시고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나는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진실로 믿는다면 하늘이 깨져서 무너진다 하더라도 여여하게,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오늘까지 여여하게 아마 일하러 나갈 겁니다. 요새 외국에 가니깐 이런 소리가 많이 들렸습니다. 지금 지구가 망가질 일이 생기고 뭐, 생명이 다 위태할 일이 생기고 몇 년 후에는 무슨 뭐가 어떻다고 그러던가요? 나 듣고도 잊어버렸죠.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뭐, 종말이 온다고요?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이 노예로 사니깐 종말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도리를 모르고 산다면 종말이지만,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안다면 둘이 아닌 까닭에 종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다못해 물이 있다 하더라도, 흙만 있다 하더라도 종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생각이 없는 게 아니고 생명 없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불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 존재가 생명이 없고 불 존재가 생명이 없다면 우리 생명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고 있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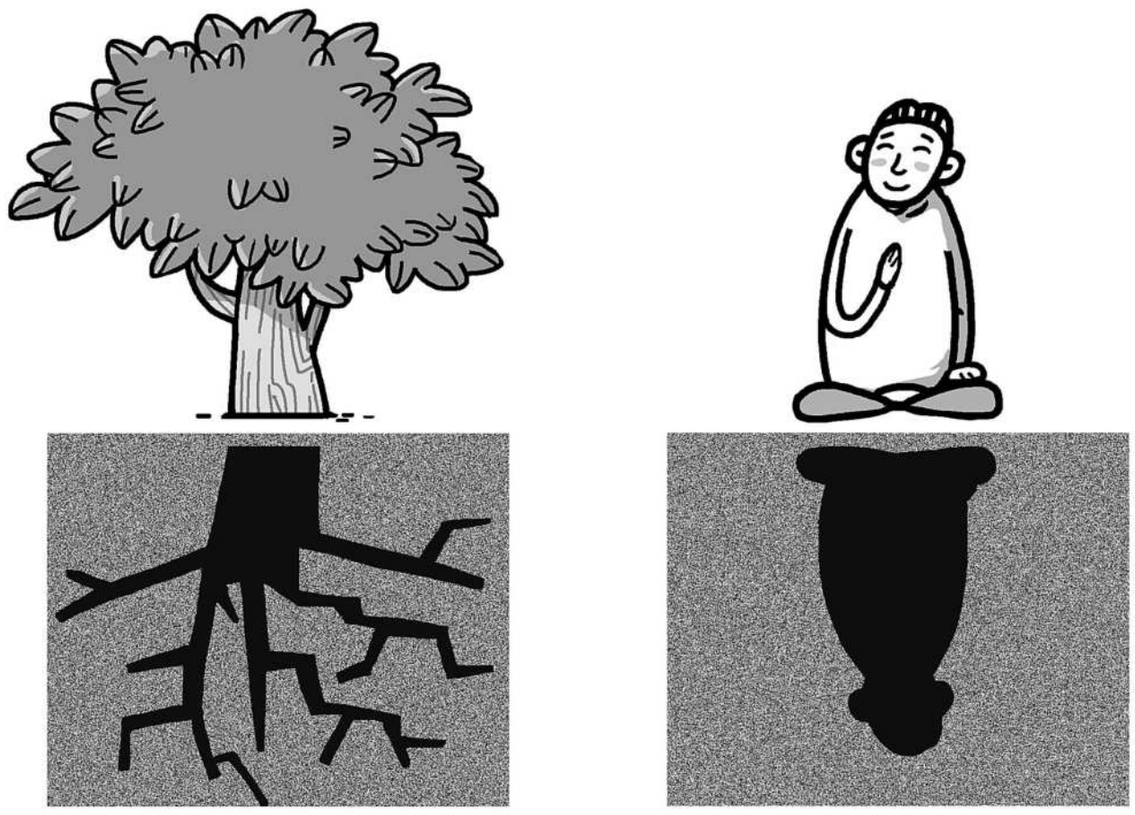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지수화풍으로 된 이 몸뚱이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흩어졌으면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겠지만 이게 한데 뭉쳤으니깐 사람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라고 존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라고 존칭하는 여러분이 지금 지수화풍을 갈래갈래 갈라놓고 먹습니다. 그러고 생명을 유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한 치라도 불성이 없다고 하며 부처님 법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아까 질문하신 것 가운데 이 세상만사 살림살이가 다 나옵니다. 석존께서 다자탑(多子塔)의 반쪽을 내줘서 같이 앉은 자리라는 그 뜻이 말입니다. "이어지지 않음이 없이 이어지는 까닭에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니라." 하는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공념이 머리에 항상 떠올라요

질문 저는 정신이 안정되지가 않아서 혹 지도를 좀 받을 수 있을까 싶어 몇 말씀 드릴까 합니다. 열이 항상 위로 상기되기에 몇 년 전 연초에 침을 맞았다가 역기(逆氣)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도 아주 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후부터는 시력이 차차 떨어지고, 또 집중력과 포착력이 없어지면서 기억력도 없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몇 달 전부터 한마음선원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 큰스님의 가르침 받들어 관(觀)하고 관하고 했는데도 공념이 머리에 항상 떠오르고 이 공념 자체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관하는 법을 다시 한 번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선생님은 항상 주인공 찾기를 이름만 찾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이 찾고 있어도요, 그 맷돌에 물건을 넣지 않고 굴리는 거와 같죠. 그러니까 이 깊은 마음속에 진짜로 믿는 것은요 잘된다, 낫는다, 못 낫는다 이걸 떠나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그대로 자기 주인공이 자기를 이끌어 가는 겁니다. 자기를 형성시켰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죽으나 사나 믿는 거죠. 낫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니고 잘되기 위해서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통신이 되질 않죠.

그러니까 진짜 이 콩씨는 콩과 콩싹이 어느 거 하나가 없어도 안 되죠. 콩이 콩싹을 만들지 않으면 콩싹에 콩이 보이지 않고요. 그러니깐 콩싹이 없어도 콩이 없고, 콩이 없어도 콩싹이 없죠. 그러니까 둘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공을 자꾸 둘로 보시고 그저 주인공이 나를 좀 어떻게 해 줬으면 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믿으면 통신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작용이 됩니까? 벌써 이게 통신이 돼야 심성의학이 되죠. 통신이 돼야 대뇌로 해서 중뇌에서 책정을 해서 사대로 통신이 돼야 이게 작용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신념이 두텁고, 그만큼 진실하고, 그만큼 믿어야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몸을 가지고 움죽거리지만 여러분의 생명의 근본이 없다면 어떻게 움죽거리고 삽니까? 여러분이 그냥 송장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의 근본, 영원한 근본을 믿지 않고 자기가 뭐가 되려고만 하니 이게 됩니까? 그러니 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나무가 하는 소리가 "뿌리야, 뿌리야. 너 뿌리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는데 네가 네 싹을 죽이려면 죽이고 살리려면 살려라. 누렇게 지금 떠 있다." 허허허. "살리려면 살리고 죽이려면 죽여!" 하고 뿌리에게 말을 했더랍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하는 소리가 "그래, 나를 너 알고 있었니?" 하면서 "그러면 내 수분과 철분 모든 거를 올려보내마." 그러니까는 아, 그러냐고 좋아서 하더니만 그렇게 싹이 푸르러지더랍니다.

그런 거와 같이 이게 모두가, 저런 꽃나무고 나무고 식물이 말 안 하는 것 같죠? 말 꼭 합니다. 오히려 진지한 말들을 하죠. 여러분은 쓸데없는 말들을 많이 하시지마는 진지한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꽃이 돼서 꽃 한 송이 줘서 참 마음이 기쁘다면 하(下) 중생들이, 즉 우리가 부처님 믿는 짝이죠. '꽃공양을 올려서 내가 인간이 될 수만 있다면….' 하고 말입니다. 그러고 서로서로 대담을 하면서 서로서로 이 나무에 가서 놀다가 저 나무로 가고, 저 나무에 가서 놀다 이 나무로 가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고요. 이렇게 좋은데 나무들도 때에 따라서는 흙이 가려서,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인간으로선 무명이 가렸다고 하죠. 그런데 나무들로 봐서는 흙이 가린 거죠. 흙이 가려서 자기 뿌리를 자기가 못 봐서 자기 뿌리하고 연관성이 없는 거죠.

그런데 사람도 역시 자기 뿌리를 무명이 가려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 이 나무들도 예전에 외국 가면서도 보고 그러면은, 눈이 내리고 바람이 세고 그렇게 해서 그 앙당한 가지들만 남은 나무들을 보면요, 내가 이렇게 빙긋이 웃고 그 나무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은 참 족하도록 정말 인내가 있구나! 다시 봄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앙당한 가지를 떨며 기다리는 그 인내, 너도 참 아름다웁구나!" 그러면서 히죽이 웃고 돌아서지만 그 차가운 들에 바람은 쌩쌩 불고 옷깃 여밀 것도 없는 그런 앙당한 가지도 '그저

☞ A18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대행큰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 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둘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 본문 중에서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마음을 밝히는 가르침

대행스님 법훈록 그냥 무조건이야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www.hyunbulshop.com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현대불교 현불샵**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불습니까?

☞ A17면에서 계속

내년 봄이 오면은 여밀 옷깃이 생기겠지. 그리고 따뜻한 봄이 오겠지.' 하는 생각으로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역시 일분일초 후도 미래니까 미래로 전진하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거짓 없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거짓 없이 해야 하지만 이쪽에 가서 이렇게 말하고 저쪽에 가서 저렇게 거짓말을 해서 아주 잘 화합하게 만들어 주는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건 융통성이고 지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진실히 믿으시고요. 지금도 얘기했지만 앙당한 가지는 뿌리를 믿고 봄이 올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 거와 같이 선생님도 뿌리를 믿고 기다리시면서 '너만이 봄이 오게 할 수 있고, 너만이 푸르르게 살게 할 수 있고, 너만이 이런 질병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거지 딴 사람이 할 수는 없다.' 하고,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될 것입니다.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는지

질문 스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이 찰나찰나 돌아가기 때문에 습이 붙을 자리도, 업이 붙을 자리도 없다고 하시고 또 우리 중생은 몇억 겁을 거치면서 습이 쌓이고 쌓여 가지고 그 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은 체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체가 없는 마음에 어떻게 습이 붙어 가지고 이생에 와서 중생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지요. 그것을 잘 모르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또 하나는 큰 깨침을 얻으셨다는 어른들께서도 끝까지 그 습이 남아 가지고 가끔은 부지불식간에 그 습의 행동이 나타나는 때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좋을는지요.

답변 첫째는, 무조건 '네가 있다는 것을 네가 증명하는 거다.' 하고서 관하는 거고 둘째는, 가정살이 돌아가는 것 전부 '그놈이 하는 거니까.' 하고 관하는 거죠. 그놈이 하는 건데 뭐가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습니까, 네? 이거 보세요. 내가 말하는 건 잘되고 못되고 그걸 떠나서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답답한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 안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거, 잘되는 것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다 내 속에서 나오는 건데 진짜 우주간 법계와 삼천대천세계의 모든 일체제불이 한 골수에 들어서 한자리를 할 수 있다면…." 그 소리 한 겁니다. 내일 죽는다, 이따 죽는다, 우리 식구가 다 멸망한다 이러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런 결사적인, 나를 버린 그 마음이 정통으로만 들어간다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뭐가 답답합니까? 그게 다 욕심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욕심입니다. 그 욕심을 부리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늠름하게 넘어가면서 진짜 칼을 악으로다 뺄 때는 그냥…. 이거 보세요. 악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칼을 썩 뺐을 때는 사람을 죽이는 칼이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칼을 썩 뺐을 때는 수많은 중생들을 다 살릴 수 있고 한 나라를 세울 수가 있고,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체를 다 한 칼로다가 부릴 수도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답답합니까? 내일 죽으면 어떻고 이따 죽으면 어떻고 식구가 다 죽으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한 번 죽을 거! 안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그 말을 하는데 너무 잔인하고 너무 안됐다고 생각합니까? 아휴 참! 이 세상이 길, 그냥 걸을 뿐이에요. 우리가 그냥 살 뿐이에요. 왜 사나?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와 가지고 지금 무엇을 하고 가는지 알아야 답답하지 않다 이 소립니다. 야! 이거 뭐, 캠핑 와서 잠시 있는데, 내가 생각하고 이러는 것이 우주간 법계에 다 통신이 되는구나. 이럴지언대 내가 뭘 그렇게 걱정하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해도 걱정이 없고, 소 한 마리를 죽인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고, 이 세상이 다 없어진대도 걱정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거지, 아니, 그놈의 거 하나하나 걱정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건지고 살릴 수 있습니까? 가정도 그래요. 이판사판이에요. 허허허. 두 가지뿐이야. 죽느냐 사느냐 요거뿐이지 거기에 또 뭐가 붙습니까?

어떤 스님이 날더러 이렇게 말하더군요. "스님, 이 토굴의 문에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난 그런 것도 모르고요, 생각을 안 했으니까 "못 좀 박아 주십시오." 그래서 "못은 왜?" 그러니까 "들어간 뒤에 바깥에서 못을 박아서 못 나오면, 죽지 않으면 얻을 거 아닙니까? 죽지 않으면 얻고 얻지 못하면 죽고, 이거 둘뿐 아닙니까?" 이거야.

여러분이 이 도리를 알면요, 정말 아주 너그럽게 살아갈 수 있고 너그럽게 두루 할 수 있고, 항상 싱그레 웃고, 남이 갓 미쳤다고 할 정도로 싱그레 웃고 길을 지나갈 수 있고, 소 둥구리를 봐도 싱그레 웃을 수 있어요. '저거 가엾다, 저거 죽으러 가지.' 뭐, 이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왜? 아주 곧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소 만 마리를, 아니 어떤 거든지 만 마리가 모두 죽었다 그럴 때 그것을 빗물 방울로 친다면 한 골짜기에 다 모였다 해도 한 골짜기에서 한 바다로 들어가는 물일 뿐이지, 한 그릇이지 그게 두 그릇입니까?

여러분의 그 마음은 체가 없고 무량해. 그래서 무량심이에요. 일심(一心)이자 무량심이고 무량심이자 그 묘법이라. 무심도법(無心道法)은 그렇게 무량해서, 지금 수만 마리가 죽으러 간다 하는데 불쌍해서 염불을 해 주고 그런다면 그건 벌써 공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십, 수백 마리가 죽으러 가는데 무슨 염불이 필요합니까? 염불하다 보면 벌써 다 늦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냥 모조리 이 한 그릇 자기 마음에다 탁, 거기다가 만 마리고 천 마리고 넣으면 그냥 자기 한 그릇이 돼 버리고 말아요, 네? 그러니 그대로 그냥 인간으로 환토가 되는 거죠. 자기가 돼 버리는 거죠. 그렇게 자기만 만들어 놓는다면 자동적으로 그냥 나가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돼도 그냥 아무렇게나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을 거쳐서 나가는 인간은 나와서도 정말 사람 노릇을 하고 이 세상을 두루 살필 수 있는 지략과 아량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질문 저는 과거, 미래, 현재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제가 선원에 나온 지는 한 오 년이 지났는데 어떠한 일에 대해 매일같이 관해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아주 한 번에 맡기고 관하고 놓고 잊어버렸습니다. 아주 일 년 치 이 년 치를 한꺼번에 관한 셈이죠. 그래도 역시 그대롭니다. 그러나 실망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고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순리를 따를 뿐입니다. 그러나 어찌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바라고 입만 벌리고 있겠습니까? 한마음 내 주십시오.

답변 과거 미래 현재를 같이 붙들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루 24시간을 살아도 고정된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과거까지 붙들고 미래까지 붙들고 현재까지 붙들고 관을 합니까? 지금 현재에 닥치는 대로 마다하지 말고 관하고, 가는 거 잡지 말고 관하라는 거죠. 뒷발자취 얘기를 자주 하지만, 과거는 이미 가버린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지 않았으니까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요. 현재는 그냥 걷고 있는 대로 찰나찰나 화(化)해서 나투면서 돌아가니 고정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느 떡 파는 노파가 덕산 스님에게 과거심(過去心), 미래심(未來心), 현재심(現在心)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으려느냐고 물었다죠? 그런데 과거심도 아니요, 미래심도 아닙니다. 현재심에 점심을 먹은 거죠. 그러니까 점심이라는 그 뜻은 그냥 점심밥 먹듯 먹는 점심이 아니라 (법상을 두세 번 가볍게 쳐 보이시면서) 점! 점심입니다. 점을 찍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 마음에서 떡을 먹겠다 이런 것은, 떡이라는 건 언제나 둥근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에 떡을 먹겠다' 이런 거는 우주 전체를, 삼세계(三世界)의 삼천대천세계를 다 그냥 집어먹겠다 하는 소리나 똑같습니다. 그걸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어떠한 마음에서 떡을 먹겠느냐 했는데 그거를 맞추지 못해서 또 물으러 갔죠. 금강경을 잔뜩 짊어지고요. 길게 말하기가 싫어서 지금 이럽니다. 그러니까 그 글자라는 거는 이론적으로 말만 했지 법이 적용이 되질 않습니다.

> 이어지지 않음이 없이 이어지는 까닭에
> 네가 있고 내가 있느니라.
> 이 세상만사가 다 그러하니라.

나는 어떤 때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제가 어릴 때는 식구들이 전부 뿔뿔이 헤어져서 남의 집으로 전전긍긍했기 때문에 학교 공부를 못 했습니다. 여러분처럼 부모가 자식을 공부시키면서 호화롭진 못하나마 밥이라도 먹고 공부라도 시킬 정도로 이렇게 자랐다면은 모르겠지만 형편이 어려워서 남의 집 일하러 돌다 보니 일자무식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주인 자체, 이 껍데기 아닌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치 살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삼세(三世)를 같이 쥐고 그렇게 쩔쩔매지 마시고요, 그냥 일심(一心)으로서, 일심도 공(空)해서 찰나찰나 닥치는 대로 놔 버리시고 가세요. 그래야 가볍습니다.

현재심으로 가득 차 공한 까닭이니라

질문 금강경의 사구게 중의 삼세심 불가득을 대행 큰스님께서는 "과거심도 현재심, 미래심도 현재심, 현재심도 현재심으로 가득 차 공한 까닭이니라."라고 뜻풀이를 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인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답변 그러니까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금강경이나 그런 경들은 전부 무의 법을 말했어요. 무의 법에서 말하고 유의 법에서 말하고 한데 합쳐서 현실로 내놓은 것이 법화경이에요. 또 금강경이나 화엄경을 종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반야심경입니다. 글자 수는 적지만 편집할 때 딱 간추려서 해 놓은 거죠, 중요한 것만. 그러니까 반야심경을 읽을 때에도 뜻을 잘 알고 보면 거기에는 금강경도 들어 있고 법화경도 들어 있고 화엄경도 들어 있고 다 들어 있어요. 또 아까 천수경을 뜻으로, 우리말로 풀어 놓은 거를 읽었죠? 그것이 전부 설법입니다.

그러니 '나를 깨닫게 해 주소서.' 하는 것도 바깥으로 하지 마세요.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그 자리는 천(天)·지(地)·인(人)하고 연결돼 있으니깐요. 천·지·인이 따로 있다고 보지 마세요. 전부 한데 있죠. 그것에서 알게 되면은 대천세계(大千世界)를 알게 됩니다.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 대천연화장불(大千蓮華藏佛)과 연결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벗어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과거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미래로 돌아가서 일을 해도 되고 이렇게 삼세(三世)를 굴릴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걸 거짓말로 알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휴, 스님! 이런 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과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삼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고, 삼십, 삼백 년 과거로 돌아가는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거는 수명이 길고 현실은 수명이 짧습니다.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고 십만 년이라고 해도 되지만, 오백 년이다 하면 여기는 한 달도 될 수 있고 일 년도 될 수 있어요. 보통 수명이 일 년이다 하면은 과거는 오백 년이라고 해도 되죠. 또 거기서 일 년이다 하면은 여기는 하루밖에 안 돼요. 또 하루라 하면 여긴 한 찰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찰나도 한 찰나가 없으니까 한 찰나라는 건 아예 그냥 없는 거를 말하고, 없기 때문에 한 찰나다 이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걸음 떼어놓으시는 데 한 찰나에 떼어놓으시죠?

그래서 과거도 떼어놓은 발자취는 이미 지나갔으니 없고, 미래도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다고 하는 겁니다. 공부 시작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해 드립니다.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현실도 없다 하는 것은, 이 공부는 과거고 현실이고 미래고 마음대로 운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삼세심(三世心)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삼세심이니라. 그래서 사천세계(四千世界)가 바로 원심(圓心)이야, 원심! (주먹을 쥐어 보이시고) 그래 그것을 다 포용하면은 원심력을 얻어서 전체 구정토를 왕래하고, 그 별성과 더불어 같이 운행하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면은 바로 그것을 불(佛)이라고 해도 좋고 자유인이라고 해도 좋지요.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불자 세상보기 |

4차 산업혁명과 불교 · 인문학



석길암 교수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눈 앞에 있는 4차 산업혁명
대응에 대한 사회 논의 확산
혁신적 정보기술이 삶 바꿔

3 · 4차 産革, 동질 · 이질 내포
4차 산업혁명은 이전보다도
해당 사회의 인문 역량 주요

한국사회, 과학기술적 접근만
이제는 인문학적 논의 필요해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아니 이미 변화시키고 있다고 말해진다. 2016년 스위스의 다보스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주요 의제로 상정되고 논의되면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전체적 변화에 대한 대응이 당장 우리 사회의 당면한 현실로 닥치고 있는 모양새이다. 안팎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하는 논의가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불교학계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한국불교학회가 2017년 12월 '불교와 4차 산업'을 주제로 한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다섯 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그간 불교학계 그리고 불교계는 한국사회 혹은 더 나아가 세계사회의 이슈를 선점하고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쫓아가는데 급급했었다는 점을 기억하면, 한발 빠른 행보라는 점에서 사뭇 기대되는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4차 산업혁명은 인공 지능 · 사물 인터넷 · 빅데이터 · 모바일 등으로 대표되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이 경제 · 사회 전반과 융합하면서, 개인의 일상으로부터 국가 단위에 이르기까지 삶을 움직이는 프레임이 이전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작동하며 나타나는 혁신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주축이 되는 것은 정보통신기술의 혁명이고, 그 혁명적인 정보통신기술들이 사회전반에 걸친 삶의 프레임을 재구축할 것이라는 전망이 여기에 담겨 있다.

증기기관으로 대표되는 1차 산업혁명, 대량생산 시스템으로 대표되는 2차 산업혁명, 정보화 그리고 자동화 생산시스템으로 대표되는 3차 산업혁명 등 이전까지의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은 어떤 측면에서는 동일한 연속선상에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전혀 이질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동일한 것은 이들 산업혁명들이 기본적으로 기술의 발전을 중요한 분기점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질적이란 것은 4차 산업혁명이 이전의 산업혁명과 달리 훨씬 더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문적 역량을 많이 반영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는 경제활동에는 첨단기술 못지않게 인문적 사고방식이 중요한 요소로서 기능하고 있고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그러한 형태의 변화가 인공 지능, 사물인터넷 · 빅데이터 · 모바일 등을 매개로 사회전반에 걸친 변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 셈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것은 그러한 4차 산업혁명의 도래를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는 시각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 우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물론 그것도 중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인문(人文)' 곧 사람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을 잊는다면, 우리는 또 한 번 시대를 뒤쫓아가는 후발주자가 될 뿐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선도하는 자가 되려면, 첨단과학기술 못지않게 인문에 대한 관심을 충분히 제고할 필요가 있다. 불교는 인간 삶의 현실과 그 극복을 이야기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인간다울까를 말하는, 오래 된 하지만 늘 새로운 사유체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역사 속에 기본적인 인문정신으로 작동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우리 삶의 현실로 도래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담아낼 많은 인문적 콘텐츠를 내장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이기도 하다.

이제 하드웨어 못지않은 소프트웨어를 챙길 시점이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우리 역사속의 인문정신, 불교문화의 사유전통에서 조금도 벗어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할 때이다.

社說

불교, 'Z세대' 포교 나서라

한때 X세대라는 말이 유행한 적이 있다. 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세대를 칭하는 말이었다. 이들은 산업화의 결실인 물질적 풍요에서 자기중심적인 가치관을 형성했으며, TV와 급격히 보급된 PC에 심취했다.

그 이후 인터넷 세대인 밀레니엄 세대를 지나 최근에는 Z세대라는 용어가 유행이다. Z세대를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은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다. 이들은 스마트폰이 보급되던 시대에 태어나 소셜미디어 이전의 시간을 모른다. TV와 PC보다 모바일 기기에 더욱 익숙하며 쌍방향 소통이 기본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렇다면 이들 세대를 위한 포교는 무엇이 있을까. 애석하게도 불교는 Z세대는 커녕 밀레니엄 세대 포교에도 벅찬 실정이다. 불교계 IT전문가들은 모바일 웹이 미숙한 불교계 현실을, 설법전문가들은 사찰 법회에 맞춰져 있는 법문 형식을 지적한다. 청년불자들은 다른 Z세대에게 포교를 하려고 해도, 이들의 관심을 끌만한 콘텐츠가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다.

이미 불교계는 지난해 통계청의 2015 인구총조사 결과를 통해 불자 감소의 심각성을 느낀 상태다. 그 내면을 보면 청년불자, Z세대의 이탈이 더욱 눈에 띈다. 이는 불교의 미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불교는 변해야 한다. Z세대에 맞는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동영상, 만화와 같은 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개발에 나서야 한다. 법문 형식도 동영상 서비스에 맞게 짧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한다.

급변하는 시대에 맞춰 포교 혁신 만이 불교를 살릴 수 있다. Z세대 포교를 위한 변화는 이제 생존이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에 거는 기대

앞으로 2년 뒤인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해이다. 현재 천도교를 중심으로 불교 · 천도교 · 기독교의 3.1운동 활동상을 조명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고, 기독교도 자체적인 사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2019년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사업이 본격화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린다.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불교사회연구소가 오는 6월 30일 오후 2시 템플스테이 3층 문수실에서 '3.1운동 발발 배경과 개요'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기 때문이다. 이 세미나가 의미가 있는 것은 조계종 3.1운동 100주년 사업의 첫 시작을 알려서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불교사회연구소는 지난해 '3.1운동 백주년 기념사업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2019년까지 3.1운동 및 일제강점기 불교 항일 운동을 망라하는 연구를 진행키로 결의했다.

이들 연구위원회는 근대불교사 전문가인 김광식 동국대 특임 교수 등이 참여한다고 한다.

조계종의 3.1운동 100주년 사업은 일제강점기 당시 독립을 위해 헌신했던 불교인사와 사찰에 대한 연구와 자료 발굴 · 조사를 통해 불교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데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윈스턴 처칠의 말처럼 불교 역시 자신의 정체성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역사에 대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다. 특히 연구가 미진한 근대불교사는 한국불교가 반드시 짊어지고 갈 과제이다. 3.1운동 100주년 사업이 항일불교와 근대불교를 이해하는 장으로 자리잡길 기대한다.



꽃으로 본 세상만사
정상교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연구교수

무엇을 찾아 세상에 왔을까

늘 꿈꿔오던 직업을 가졌고 그래서 정말로 즐겁게 생활한다던 외국에 사는 친구가 어느 날 잠들기 전, 노래를 하나 보내왔다. 학창시절 좋아한 '마왕' 신해철의 '우리 앞의 생이 끝나갈 때'였다.

"흐르는 시간 속에서 질문은 지워지지 않네.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

이 때문에 결국 우리는 '사는 게 뭘까'라는 매우 흔하지만 어려운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친구는 하루하루 즐겁게 원하던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역시 반복됨을 알게 된 어느 날, 자기 안에 숨어있던 이 질문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단다. 친구와 대화를 마치고 잠을 청하며, 안타깝게도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마왕'은 그 답을 찾고 눈을 감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에 대해 새삼 친구와 의문을 품을 이유가 없었다. 아니, 완전히 알지는 못해도 그 대답은 이미 숱하게 많이 들어보았다.

우리는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온 것이고, 행복이라는 이름의 욕망을 실현시키기 위해 살아간다. 욕망의 실현은 행위를 불러일으키고, 행위는 반드시 결과를 남긴다. 남겨진 결과의 힘이란 참으로 무서우리만큼 정직하다.

그래서 3가지 선한 행위를 하고 5가지 악한 행위를 했을 때 2가지 악한 행위의 결과만 받아 소진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3가지 선한 행위의 결과는 그 결과대로 기쁨을 누려야 하고, 5가지 악한 행위의 결과는 또 그 결과대로 고통을 받으며 소진해야만 한다.

그렇게 남겨진 결과(할머니들은 이를 '업보'라 부른다)를 다 소진할 때까지 우린 다음 생으로, 또 다음 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물론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는 어디까지나 '내 마음'이 주체이기 때문에 결정론이나 운명론과는 다르다.

이처럼 지난 생의 행위의 결과인 업보 때문에 이 세상에 왔음을 난 알고 있었는데 왜 친구에게 말하지 못했을까.

업보로 인해 이 세상에 왔고, 또 다음 생으로 간다고 하는 '윤회'는 시간과 공간 개념을 삶과 죽음 너머까지 확장시켜야하기 때문에 종교가 다른 이와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사실 불교학을 공부하는 불교학자라고 해도 윤회의 관념을 하나의 상징체계로 이해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우린 그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불교는 분명히 대답을 주고 있다. 시작을 알 수 없는 그 언젠가부터 내 마음에 잠재되어 있는 욕망은 생을 달리하면서 여러 조건을 만나 싹을 틔운다. 그래서 그 욕망을 끊어내지 못하는 한, 꿀을 찾는 벌처럼 우린 그 욕망을 찾아 이 세상에 또 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그 친구가 듣는다면 여전히 '조물주의 뜻'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만큼이나 믿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조물주의 뜻'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조물주를 만나지 않고는 삶의 문제가 풀리지 않지만 '내 마음' '내 욕망' 때문에 이 세상에 왔다면 최소한 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다음에는 꼭 친구에게 불교의 대답을 이야기 해주어야겠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불자의 긍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신문사 전국 지사 안내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신문
보다 편리한 구독신청 · 광고게재 · 기사제보...
연락주십시오! 달려가겠습니다.

지 사 명	지사장	연 락 처
대 구 지 사	손 문 철	053)768-8008 /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 행 선	062)512-5003 / 010-2629-1508
전 북 지 사	조 동 제	063)910-8977 / 010-8642-7733
영 주 지 국	박 영 애	054)634-3429 / 010-9373-3778
경남 남부지사	청운스님	055)746-9778 / 011-870-0021
부 산 지 사	이 도 경	010-5640-8883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라는 주제로 제59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함께 노래하고, 율동하고, 체험하며, 뛰고 즐기는 사이 어느새 여름불교학교의 고민이 사라집니다!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통하여 법회, 여름불교학교, 템플스테이의 질을 높이고, 계층포교 활동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알차게 꾸몄습니다. 강습회에서 동참하시면 여름불교학교를 준비하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1 주 제 : 즐겁고 신나는 여름불교학교 "바른길을 찾아라 붓다고!"
2 일 시 : 2017년 6월 17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3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불광사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9길 35)
4 대 상 : 계층법회 및 불교학교 지도자, 템플스테이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5 참가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당일접수 6만원)
입금계좌번호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참가비 입금 확인 후 접수 완료. 참가비 입금 미확인 시 당일접수 참가비 적용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6 일정표

시 간	내 용
09:00~09:30	접 수
09:30~10:00	입 재 식
10:00~11:00	[강의①] 다 함께 Singalong!!!
11:00~12:00	[강의②] 찬불가 율동의 활용과 실제
12:00~13:00	점 심 공 양
13:00~15:30	[강의③] 체험활동 즐거운 체험 붓다고!
15:30~15:50	휴 식
15:50~17:30	[강의④] 레크리에이션의 활용과 실제 - 대동한마당
17:30~18:00	회 향 식

※ 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접수 : 선착순 100명
접수방법
※ 사전접수 마감 : 2017년 6월 13일(화) 오후 6시까지
※ 인터넷(이메일),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까페에서 안내문 다운, 작성 후 이메일 접수
다음까페 - http://cafe.daum.net/burec
E-mail - burec@daum.net
▷첨부된 안내문을 작성하여 팩스 접수
Fax. 02-738-7863
▷스마트하게 카카오톡으로 신청하기
플러스친구에서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검색, 친구추가
▷전화 접수 가능 : ☎ 02-738-7860
8 준비물 : 개인 물컵, 필기도구
9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가정의 수호신 그리고 幸運(행운)과 福(복)을 선사하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42수 진언 족자



신묘장구 대다라니 족자 (레드)



그림 족자

42수진언 족자 (그린)

과거 무량겁에 걸친 불보살님들의 행적을
기록한 다라니를 이제 그림으로 만나세요.

다라니를 지니고 독송하는 사람은
그 진실된 힘의 옹호를 받아
서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원하는 일에 해당하는 손모양과 진언을 외우면 관세음보살님이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이 손으로 보듬어 주시고 손안에 있는 눈으로 보고 살펴주심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42수 진언을 귀자 형상으로 배치하여 천수천안 관세음보살님의 위신력을 발휘하도록 하였습니다.

제품명	신묘장구대다라니	42수진언
색상	그린 · 레드	그린
크기 및 가격	사찰용 100,000원 가정용 70,000원	
	사찰용 65×145㎝ 가정용 45×110㎝	

법보시용으로 탁월하며
각 가정에 행운과 복을 선사합니다.

10개 이상 구매시 원하시는 문구를 새겨 드립니다.

● 특별증정 : 족자 구입시 1만원 상당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천수경」을 드립니다.

십장생이 들어간

16나한도(18나한) 달마도 족자

작품 한점 한점 마다 수호신이 될 것이며 그림에서 발산하는 기운은 가정을 평화롭게 지켜줄 것이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순조롭게 풀리며 만사가 형통할 것입니다.

달마도와 포대화상도, 나한도 그리고 여러가지 스님과
사찰 풍속도를 그려온 청곡 이한동화백의 작품을
족자로 제작하여 불자님들에게 보급합니다.

■ 그 림 만 : 70㎝ × 폭 44㎝ | ■ 판매가 : 각 70,000원
■ 족자포함 : 120㎝ × 폭 54㎝ | ■ 판매가 : 각 100,000원

나한은 아라한의 준말입니다. 나한 중에서도 16나한은 가장 대표되는 나한이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들기 전, 미륵불께서 세상에 나오실때까지 불법을 수호하고 중생들에게 복전이 되어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이들 나한들은 6가지 신통력과 8가지 해탈법 등 삼장에 두루 통달하여 번뇌를 아주 떠난 부처에 버금가는 성지입니다. 16명의 나한 외에 미륵불의 하연이며, 용을 타고 복을 전해준다는 항룡나한과 야수를 다스리며 악귀를 물리친다는 복호나한을 더하여 18나한이라고 합니다. 이들 18나한들은 열반에 들지않고 영생을 누린다는 뜻에서 한 분 한 분의 신비한 모습들을 십장생도와 함께 모셨으며, 이 영원한 수호신을 모셔주기를 바랍니다.



16나한도



달마도

● 16나한도를 구입하시면 「16나한의 이름과 권속나한들과 같이 살고있는 곳을 기록한 설명서」를 드립니다.

현불샵 ☎ 02)2004-8213, 010-6701-7709
입금 계좌 : 농협 053-01-269062(주식회사)현대불교신문사

현대불교 Mandala

2017년 6월 14일 수요일 제 1151 호 B1



현재 앞이 보이지 않는 미영순 씨는 신경질환으로 엄지가 정상인처럼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하지만 힘차게 엄지척을 하는 그녀의 모습은 당당한 불자, 그 자체였다. 그녀는 저시력인들도 정상인처럼 당당하게 활동했으면 한다고 바람을 밝혔다.

어느 날 흐려진 세상, 불교는 빛이자 나침반

그대는 자비보살 **미영순** 전국저시력인연합회장

불교에서 찾은 인생 해답

신에 대한 의문, 철학서 탐독

이오네스카 '禪' 설명 관심

〈선가귀감〉 속 묘사에 발심

룸비니 불교학생회서 활동

급작스런 좌절에도 희망 품어

고2 때 망막색소변성증 진단

6개월간 실명, 신경통 앓아

"눈 안보이니 다른 감각 살아

苦 뒷면엔 樂이 세상 이치"

부처님 10대 제자 중 아나율 존자는 시각장애인이다. 부처님 설법 도중 잠이 든 아나율 존자는 부처님의 경책에 수마(睡魔)와 싸워가며 쉼 없이 정진했다. 아나율 존자의 눈 앞은 점점 어두워졌고, 부처님도 아나율 존자의 수행을 만류했다. 하지만 아나율 존자는 끝없이 정진 결국 지혜의 눈을 얻어 '천안제일(天眼第一)'로 불리게 된다.

고등학교 2학년, 꿈 많던 한 소녀의 눈 앞도 마치 아나율 존자처럼 깜깜해졌다. 시력이 안 좋아지긴 했으나 실명할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10대 소녀에게 세상은 암흑천지였다. 하지만 이 소녀에게는 부처님 가르침이 있었다. 아나율 존자와 같이 끊임없는 정진을 이어오고 있는 미영순 씨(米榮順)의 이야기다.

자아비판 가능한 불교에 매력 느껴

"만약 불교를 몰랐다면 정말이지 자살하지 않았을까요? 부처님 가르침은 어두웠던 제 인생의 나침반이자 한줄기 빛이에요."

미 씨의 집안은 기독교였다. 미 씨의 아버지는 함북 경성 출신이지만 6 · 10만세운동에 연루돼 17세에 중국 하얼빈으로 피신했다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당시 하얼빈대학 교수였던 미 씨의 어머니를 만났다. 미 씨의 부모님은 한국전쟁 직전 월남해 48년 서울에서 미 씨를 낳았다. 어머니가 기독교 신자였기에 자연스럽게 미 씨는 교회에 다니게 됐다.

"어머니 6촌 오빠가 한신대를 세운 김재준 목사세요. 온 집안이 독실한 기독교였지요. 성경암송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할 정도였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신의 존재에 대해 의문이 들었어요. 왜 신은 평등한데 교회 구조는 피라미드 형식인가는 의문에서였죠. 저에게는 인드라망이 와 닿았어요. 1960년 중학교 1학년 때 수유리로 이사를 가며 이런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됩니다. 당연히 철학책도 많이 봤구요. 결국 독일 철학자 '야스퍼스'가 답을 줬습니다. '아무도 내게 열쇠를 집어주는 사람은 없다. 이 길을 쭉 가면 열쇠가 있고, 길이 나올 것이다'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는 철학이 답해주지 못한 목마름이 있었다. 철학이란 진리를 찾아보겠다는 방법일 뿐 진리는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김이 빠져있던 고등학교 1학년, 미 씨는 〈대머리 여가수〉의 저자 이오네스코가 선(禪)에 대해 쓴 글을 읽었다.

"Who am I? What is in my heart? 하고 물으면 사부께서 따귀를 때려주는 것, 정답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멍멍하던 귀가 확 뚫린 듯 후련한 것 같았어요."

이 후 미 씨는 미국공보원에서 하는 영어회화 모임에서 한 남학생으로부터 봉은사 룸비니 불교학생회를 소개받았다.

"어려서는 불교를 역사와 전통이 있는 큰 무당 쯤으로 알고 있었어요. 룸비니 불교학생회가 당시에는 대각사에서 있었는데, 이른바 큰 무당 지도법사겠죠? 호호. 김지석 고려대 철학과 교수님이 강연을 하셨어요. 김 교수님과의 첫 만남에서 저는 무참하게 깨졌죠. 있지도 없지도 않다는 공(空)을 무엇으로 깨부수겠어요. 백기를 들고 말았죠."

미 씨는 이후 불교경전을 열심히 읽었다. 구해지는 대로 잠도 자지 않고 읽고, 조사어록도 읽으며 조금씩 불자가 되어 갔다. 〈반야심경〉부터 〈능엄경〉, 〈화엄경〉, 〈육조단경〉 등을 보았는데 그 중 미 씨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선가귀감〉이었다.

"〈선가귀감〉에서 선비가 길을 잃어버리는 대목이 나옵니다. 갈림길에서 가시덩쿨과 횃불을 든 도둑이 기다리는 내용이죠. 저는 그 도둑을 스님으로 봤어요. '아! 불교는 자아비판이 가능한 종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철학이 아닌 종교가 자아비판을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죠."

매주 토요일마다 미 씨는 대각사로 향했다. 하루는 그녀가 청담 스님에게 "왜 불교는 이렇게 좋은 교리를 가지고도 이 것밖에 못하나요?"라고 당돌하게 묻자 스님은 미소 지으며 미 씨에게 "그러게 말일세, 자네가 와서 잘해보게"라고 말했다고 한다.

미 씨는 "직접 만나본 스님은 '아! 도인이구나, 이것이 도인이구나'는 생각이 절로 들게 했다"고 말했다.

미 씨는 청담 스님이 출가를 은근히 권하신 것으로 당시 일화를 풀이했다.

"스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속세에서 머리를 안 깎았어도 머리 깎은 사람처럼 다할 테니 깎으라고 하지 마세요.'라고요. 당시의 저는 '건방과 맹랑'을 빼면 시체였으니까요."

佛心이 낳은 한국의 헬렌 켈러

밝은 성격을 지닌 10대의 그녀에게 갑작스런 시력 상실은 그야말로 청천벽력과 같은 것이었다. 그녀는 1964년 경기여고 2학년 재학 당시 시력을 잃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점차 시력이 나빠져 도수가 높은 안경을 썼지만 실명까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사태의 심각성을 체감했을 때는 봉은사 룸비니 불교학생회 활동을 한창 하던 중이었다.

"1964년 12월 15일이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나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된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불교학생회 법우들과 북한산 등반을 했어요. 그 전에 이미 거리 감각은 없었던 것을 느끼고 있었죠. 등반 중에 바위 사이를 건너는 길이 있는데, 다른 법우들은 폴짝 뛰어서 뛰어넘은 그 바위에서 거리를 잘못 재어 그만 굴러 떨어지고 말았어요. 놀라서 구하러 뛰어내려 온 친구들에게 '염라대왕이 나를 잡상인인지 알았나봐, 내 쫓았어'라고 너스레를 떨었지만 몸보다 제 눈이 심각한 상태란 걸 직감했어요."

미 씨는 점점 나빠지는 눈에 안과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다. 하지만 의사도, 부모님도 한창 나이인 10대 소녀에게 쉽게 말을 건네지 못했다. 판정 소명은 망막색소변성증. 빛을 수용하는 망막세포에 이상이 생겨 낮과 밤을 어렴풋이 가릴 수 있는 후천성 희귀질환이었다. 이미 수년째 망막 손상이 진행돼 야맹증이 왔지만 어린 나이에 설마 하는 생각이 병을 키웠다.

"6개월 동안은 완전히 암흑천지였어요. 녹내장과 백내장 등 눈과 관련된 모든 질병이 차례로 찾아왔죠."

사투를 벌인 미 씨는 희미하게나마 사물을 볼 수 있게 됐다. 처지는 나아지긴 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어려웠다. 계단의 끝이 보이지 않아 발을 헛디디고 길의 움푹 파인 곳을 보고 멈춰서기 일쑤였다. 그 무엇보다 신경통이 심각했다.

"시 신경 치료를 하면 눈이 빠질 듯이 아파요. 눈이 터질 듯이 아프면 머리가 멍합니다. 이런 고통을 극복하는데 부처님 가르침이 큰 힘이 됐습니다. 인생에는 고의 뒷면에는 낙(樂)도 있다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이죠. 저에게는 고통이 없어요. 통(痛)은 있지만 고(苦)까지 연결되지는 않죠. 고는 통을 괴롭게 받아들일 때 고통이 됩니다. 통도 즐기면 고가 되지 않아요. 눈이 보이지 않으니 신기하게 다른 감각이 발달하더군요. 장판지 밑에 아버지가 감춰놓은 비자금도 알아차리고요. 호호."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보다

앞이 보이지 않아도 그녀는 점자를 배우며 학업을 이어갔다.

B2면에 계속

INSIDE

B3
기획연재
김성우의 '염불각자 열전'

B4
출판
이중표 교수의 〈불교란 무엇인가〉

B5
문화
정율 스님의 힐링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B6
기획연재
고원영의 '저 절로 가는 길'

여생은 아나율 존자 같이 전법 회향



최근 고령으로 시력 개선을 위한 약을 끊어 앞이 보이지 않지만 그녀가 '心眼'으로 바라본 세상의 이야기는 아름다웠다.



2016년 영등포본동 자원봉사캠프 후원 모습.



미영순 씨는 봉사자의 도움으로 등반활동도 하고 있다.

미영순 씨는?

경기여고 재학 시절 실명에 가까운 시력장애를 얻었다. 방송통신대와 국민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대만문화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세종연구소, 북방연구소 연구위원을 역임했으며, 중국 흑룡강성대 객원교수를 맡기도 했다. 현재 전국저시력인연합회 대표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04 이웃돕기 유공자 국민포장'을 수상했으며 〈새벽 산사에 가보세요〉 〈눈물 고인 가슴에 눈물 대신 품은 뜻〉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자〉 등을 썼다.



희미하게 앞이 보이던 시절, 관음보살로 그린 어머니

'미영순 회장' B1면에서 계속

버스정류장에 버스가 서면 "8번 버스인가요?"라고 물어서 탔고 그 것마저 힘들 때는 종이에 '8번'을 써서 버스를 세웠다. 인근 점자책이 있는 도서관을 가기 위해 육교의 계단 수를 외워 오르내렸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면 온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 어려운 와중에도 미 씨는 부모님에게는 내색 한번 하지 않았다.

다니던 학교에 휴학원을 낸 미 씨는 수유리의 여맹원에서 점자를 배우기 시작했다. 룸비니불교학생회에는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가 헤매며 찾았던 것, 철학책들의 한계를 딛고, 삶을 이해할 수 있었다.

미 씨는 이 무렵 인근 화계사를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자주 찾았고 숭산 스님과 인연을 맺는다. 하루는 미 씨는 화계사 계단을 오르지 못하고 범종 옆에서 법회 소리를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이런 미 씨를 발견한 숭산 스님은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절로 오느냐"며 미 씨를 불러 자신의 방에서 법문을 들려줬다.

"여기 선을 그어 한 쪽에는 X, 다른 쪽에는 Y라고 하자. X와 Y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바로 불교이니라."

하지만 밝은 성격의 미 씨는 "스님, 공통인자는 Z가 아닐까요? 전 Z를 찾아보겠습니다"고 답했다.

한번은 숭산 스님이 미 씨에게 "한 손으로 손뼉을 쳐보라"고 했다. 미 씨는 냉큼 달려가 벽을 쳤다.

"사실 그게 화두를 주신 것 같은데……. 말 그대로 맹랑했으니, 스님이 그저 '쩝쩝' 입을 다시시더라고요. 결국 스님은 '안 되겠다. 넌 그냥해라' 고 하셨지요."

그 후 세월이 많이 지나 미 씨가 반백이 된 뒤 스님을 찾자 숭산 스님은 그녀에게 "티끌처럼 작아도 세상을 품는 넉넉한 쉼터에 연꽃이 피어났구나"고 격려했다. 2004년 미 씨의 수필집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여자〉 발간 시에도 스님은 추천사로 애틋한 마음을 전했다.

제2의 인생, 저시력인 위한 삶

끊임없는 노력, 국제전문가 활약
대만 유학 후 귀국해 봉사 나서
1999년 저시력인연합회 창립
장애인식 개선 및 도움 활동 전개
"받은 도움, 회향이 인생 목표"

"스님에게 약속한 Z는 아직 못 찾았지요. 아무튼 눈이 아니라 마음을 통해 세상을 보는 것을 터득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조금씩 노력하자 세상이 희미하게 보인 것은 '심안' 일까. 미 씨는 "돌멩이 하나도, 쓰레기 하나조차도 모두 아름답게 보였다"고 말했다. 1년 만에 다시 복학, 글자를 겨우 보는 시력에도 불구하고 1967년 고교과정을 무사히 마쳤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이 된 그녀가 갈 수 있는 대학은 많지 않았다. 결국 1973년 방송통신대 가정학과에 진학했다.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 강의 방송을 녹음하고, 낮에 들려줬다. 교재를 읽어주는 학생들의 도움으로 결국 미 씨는 방통대를 수석으로 졸업했다.

국민대 정외과에 장학생으로 편입하며 이러한 열정은 더했다. 1980년 국민대를 졸업한 그녀는 이듬해인 1981년 지도교수의 추천으로 대만국립정치대에 장학생으로 유학을 떠났다.

"안 보여도 공부를 할 수 있어요. 눈이 터질 듯한 안압 때문에 책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번 읽으면 끝날 수 있게 외웠지요.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하나하나에 집중하면 가능합니다."

1984년 석사과정을 마친 뒤 박사과정까지 밟아 결국 1990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미 씨는 1989년 귀국 후 '세종연구소'와 '북방연구소'에서 연구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받은 도움, 모두 회향이 인생 목표

미 씨는 당시 유학생활에서 돌아올 때 많은 생각을 했다고 털어놨다.

"저를 태어나게 해준 부모님을 비롯해 교수님, 스님, 그리고 필기를 해주고 식사를 도와준 친구, 도우미 등 모든 분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되갚자고 생각했습니다."

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일하며 미 씨는 제일 먼저 호스피스 교육을 받고 양로원을 다녔다. 보육원과 장애인 시설인 소쩍새 마을 등 가리지 않고 도움이 되는 곳이라면 찾아갔다. 그 무렵 '한국의 헬렌 켈러'로 언론에 소개된 미 씨에게 저시력인들이 하나둘 씩 찾아왔고 이들의 사연을 들으며 다독였다.

이들의 수가 늘어나자 미 씨는 1999년 50여 명의 저시력인들과 전국저시력인연합회를 들었다. 가장 먼저 그녀는 '약시'로 통용되던 시각장애를 구분해 '저시력'이란 법률 용어로 정착시켰다. 또 저시력인을 위한 확대독서기 보급사업도 펼쳤다. 김안과병원의 도움으로 연합회는 저시력인들의 사연을 담은 〈마음으로 보는 세상〉을 펴내기도 했다.

현재 전국저시력인연합회는 저시력인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와 저시력 어린이나 저시력 부모자녀를 위한 심리상담도 한다. 대학생들을 모집해 저시력인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는가 하면 저시력인 아이들을 데리고 국악마당 등 문화를 체험하기도 한다.

특징은 모두가 다른 저시력인들이 봉사자로 참여한다. 시각장애인들이 오히려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세상과 주위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취지에서였다.

"불교에서는 원래 '내 것'이 없어요. 그러니 나눌 것도 없겠지요. '나눔'이나 '베풂'이 아니라, '돌려줌', '갚음'입니다. 저처럼 다른 이들에게 많이 받고 산 사람말고도, 고마웠던 혹은 미안했던 일이 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는게 중요하지요."

연합회 활동과 별개로 미 씨는 김안과병원에서 저시력 아이들과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업무를 하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으로 약을 먹지 않아 시력이 더욱 나빠진 상태지만 첫째주와 셋째주 주말은 자택에 가까운 해군 통해사에서 신행활동을 하고, 불자장애인모임 보리수아래에도 나간다. 넷째주 주말은 조계종 산악회와 함께 산행에도 나선다.

최근 저시력인 1600여 명과 함께 해군 2함대를 방문하기도 한 그녀는 오래 전 자신과 같이 가슴 앓이를 하며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메는 이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되찾기를 기원했다. 지금도 강연과 상담 수입의 삼분의 일 이상을 기부하는 그녀는 생명나눔실천본부에 전신을 사후 기증 약속한 상태다.

여고 재학 시절 미 씨는 복학 후 다른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개나리 두 그루가 우거진 일명 '개나리 다방'에서 사색을 즐겼다. 여생동안 미 씨는 자신에게 힘이 된 개나리 나무처럼 미약하지만 다른 장애인들에게 버팀목이 되고 싶다고 털어놨다.

"한가지 걱정이 있어요. 아직 쓸 만 할 때 남겨주고 가야지. 넝마가 다 돼서 주면 어쩌나 이 생각이죠. 호호."

밝은 미소를 지은 그녀의 모습은 개나리를 닮아 있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김성우의 **念佛覺者 列傳**

⑫ 정토종 제4조 법조 대사

가장 독창적인 '오회염불' 창안

"사람들은 지금 오로지 염불하고, 염(念)하는 사람들은 깊은 선(禪)에 들어가네. 초저녁에 단정한 마음으로 앉으면 서방세계가 눈앞에 있도다. 염하는 것이 곧 무념(無念)인 줄 알고, 무념이 곧 진여(眞如)인 것이다. 만약 이와 같은 중도의 뜻 요달하면 이름하여 법성주(法性珠)라 한다."

-〈정토오회염불약법사의찬〉



〈승가불조도영〉의 법조 대사 진영

승원 대사의 정토법 이어 반주삼매 닦아

혜원-선도-승원 대사에 이어 정토종 제4조에 추존된 법조(法照) 대사의 '정토법신찬(淨土法身讚)'이다. 이 게송을 보면 최고 수준의 염불삼매인 반주삼매(般舟三昧)를 증득한 대사의 가르침은 선과 정토가 둘이 아닌 선정쌍수(禪淨雙修)의 법문임을 엿볼 수 있다.

법조 대사의 출생과 입적한 연대는 분명하지 않지만, 여러 전기를 종합한 활동시기는 당나라 대력(大曆, 766-778년), 정원(貞元, 785-804)의 해로 추정된다. 출생지 역시 미상인데, 〈신수왕생전〉에는 남양사람(南陽人), 〈정토오회염불약법사의찬〉에는 양한(梁漢)나라 사문이라 되어 있다.

법조 대사는 출가 후 동쪽의 오(吳, 강소성)나라에서 유학한 후 초조 혜원 대사를 흠모해 여산(廬山)에 들어가서 반주삼매를 닦았다. 다시 765년부터 이듬해까지는 남악형산(南嶽衡山)에 올라가 승원 대사를 스승으로 섬기면서 정토법을 전수받았다. 766년 4월 15일 하안거 때 남악 미타대(彌陀臺)에서 시작한 반주삼매수행은 매년 여름 90일 동안 수행하였다. 반주삼매란 초기 정토종에서 〈반주삼매경〉에 의해 수행하는 염불법으로, 혜원 대사도 반야대(般若帶)에서 123인과 함께 반주삼매를 닦았을 정도로 가장 오래된 고차원의 염불법이다. 〈반주삼매경〉에는 "홀로 한 곳에 머물러 서방의 아미타불이 지금 현재에 계신 것을 염하고, 들은 바를 따라 마땅히 염하라. 여기서부터 천만억의 불국토를 지난 곳에 있는데, 그 국토를 수마제(須摩提; 극락의 범어)라 이름한다. 일심(一心)으로 그것을 염하되 하루 밤낮 혹은 7일 밤낮을 정진하여 7일을 지난 이후는 부처님을 친견할 수 있다"라고 설해져 있다. 말하자면 현생에 염불삼매 속에서 아미타불을 친견하여 가르침을 받고, 명이 다한 즉시 아미타불의 접인을 받아 윤회를 벗어난 극락정토에 화생하게 되는 염불법이다.

삼매 속 아미타불 '오회염불' 전수받아

법조 대사는 승원 대사의 가르침에 따라 반주삼매를 닦은 결과 마침내 삼매를 성취하고 '오회염불(五會念佛)'이란 독창적인 염불행을 닦기 시작했다. 미묘한 가락이 담긴 음악적인 염불법인 '오회염불'의 성립과정에 대해서는 〈정토오회염불송경관행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전해오고 있다.

766년 4월 보름부터 남악 미타사에서 90일간 진행된 반주삼매수행의 제14일 밤이었다. 법조 대사가 홀로 미타대 동북 도량 내에 경행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홀연히 삼매 속에서 아미타불이 계신 곳에 이르러 아미타불께 예배를 올렸다.

아미타부처님께서 대사에게 당부하셨다. "나는 자네가 마음이 진실하여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여기에 온 것이지, 하나도 자기를 위한 이익이 없는 줄 안다. 능히 이러한 원을 발하니 착하고 착하도다, 나에게 묘법이 있는데 가격으로 칠 수 없는 진보(珍寶)다. 지금 너에게 부촉하노니, 이 법을 가지고 염부제(閻浮提)에 가서 널리 행하고 유포하여 천인과 무량한 중생을 이익케 하라. 이 법보를 만나면 다 이익을 얻을 것이다."

아미타불에게 염불 전수받아
음률 섞인 오회염불 만들어
중국·대만의 보편적 수행돼
오대산서 문수보살도 친견



중국 오대산의 문수성지 전경

법조 대사가 부처님께 여쭙기를, "어떤 묘법이 있습니까? 오직 원컨대 그것을 설해 주옵소서!" 하니, 아미타부처님께서는 "하나의 무가범음(無價梵音)은 오회염불법문이다. 바르게 저 혼탁한 악세에서 부흥시켜라." 당부하셨다.

이어 아미타부처님께서는 오회염불의 근거와 공덕까지 일러주셨다. "네가 본 〈무량수경〉에, 극락의 칠보수(七寶樹)는 '맑은 바람이 불어오면 다섯 가지 음악소리가 나온다(淸風時發出五音聲)'는 구절이 있나니, 그 '다섯 가지 음악소리(五音聲)'가 바로 오회불성(五會佛聲)이니라. 이러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오회염불법에 따라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게 되면, 그 과보로 모두가 나의 국토에 태어나게 되느니라. 또한 미래의 일체 중생이 오회염불을 만나게 되면,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것이 다 제거되고, 아플 때 약을 얻는 것과 같고, 목마를 때 물을 얻는 것과 같고, 굶주릴 때 밥을 얻는 것과 같고, 벗은 몸이 옷을 얻는 것과 같고, 어두운 곳에서 밝음을 만난 것과 같고, 바다를 건너려 할 때 배를 만나는 것과 같고, 보물창고를 만난 것과 같아서, 반드시 안락을 얻게 되느니라."

오대산에서 문수·보현보살 친견

극락세계의 다섯 가지 소리에서 유래된 오회염불법은 낮고 높은 음, 느리고 빠른 음으로 소리를 조절하여 '아미타불'을 외우는 염불노래이다. 리드미컬한 음률까지 붙여 염불을 하면 잡념의 제거는 물론, 깊은 감격과 환희를 느낄 수 있다. 중국에서 법조 대사가 유포한 이래 꾸준히 전승되면서 수많은 이들이 가피를 입었다. 오늘날 중국이나 대만을 여행하다 보면 불교성지 어디에서나 흘러나오는 오회염불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반주삼매 속에서 아미타부처님을 친견하고 직접 오회염불법을 전수받은 대사는 이것을 769년까지 형산지방에 널리 유포시켰으며, 이후에는 오대산을 참배하게 된다.

대사는 이미 767년 남악 운봉사에 있을 때 가끔 발우 속에서 오대산이 나타남을 신비스럽게 보았다. 또 769년 형주 호남사에 있을 때도 오대산을 보고 도반 몇 사람과 함께 오대산을 향해 걷기 시작해 770년 4월에 드디어 도착, 홍광사와 화엄사 등에서 살며 정진했다.

770-771년 사이, 법조 대사는 오대산에서 문수·보현보살로부터 염불하여 왕생극락 하는 법문을 전수 받는 등 10가지 불보살과의 감응을 경험하였다. 〈송고승전〉에 따르면 대사는 대력5년(770) 오대산에 가서 문수보살의 신령한 가르침을 감득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때 문수보살이 대사에게 설한 가르침은 이러했다.

"내가 현재 수행하여 닦고 있는 염불법문이 지금 때에 가장 합당한 수행이니라. 여러 수행문이 있지만 염불수행보다 나은 것은 없느니라. 삼보 전에 항상 공양 올리며 복과 지혜를 갖추어 닦는 것이 가장 요긴하며 지름길이 되느니라. 내가 과거 겁(劫) 중에 부처님을 관(觀)하며 부처님을 염(念)하며 항상 공양을 올림으로 인해 지금의 일체종지(一切宗旨)를 얻어 성취하게 된 것이니라. 모든 반야바라밀과 심심(深心), 선정(禪定)과 모든 부처님이 모두 다 염불로부터 나게 됨을 알아야 함이라. 염불은 모든 법의 왕이니 너는 마땅히 항상 무상법왕(無上法王)을 생각하여 쉼이 없게 할지어다."

이러한 법문을 들은 대사는 모든 의심이 풀리는 동시에 기쁨과 환희로 오로지 염불수행에 전력을 다할 것을 굳게 결심했다. 대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한 오대산 석문(石門) 자리에다 커다란 돌을 하나 세워 표시를 해놓고 돌아왔는데, 그 돌이 현재까지도 보존되어 있다고 한다.

대사께서는 774년 전후에는 태원(太原; 북경의 형주지방) 지방에서 나와 오회염불을 보급하였고 〈오회염불송경관행의〉 3권도 찬술했다. 이어 오대산에 다시 들어가 777년 9월 동대(東帶)에서 다시 문수보살의 진신(眞身)을 친견하였고, 후에 장안에 들어가 장경사 정토원에 머물면서 오회염불법을 널리 전파하였다. 또 그의 스승 승원 대사의 가풍을 알리는데도 힘을 쏟았다. 대사의 저술인 〈오회염불약법사의찬〉은 774년 이후 정토원에 머물면서 찬술한 것이다.

오대산 죽림사 창건하고 윤회 벗어나

그 후 대력 12년(777) 9월 13일이었다. 법조 대사는 제자 8인과 한 자리에 있었다. 저 멀리 동대(東臺) 쪽을 바라보니 흰 광선 네 줄기가 뻗치더니 이상한 구름이 생겨났다. 그리고 그 구름이 열리면서 홍색의 커다란 원광(圓光)이 나타나며, 그 원광 안에 문수보살이 청사자(靑獅子)를 타고 계심이 분명하게 보였다. 오색 원광이 찬란하게 비추고는 얼마 후엔 사라져버렸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분으로는 순일, 유수, 귀정, 지원 스님 등과 사미 유영과 우바새 장희준이었다.

이 일이 있고 난 얼마 후, 대사는 문수보살을 친견한 대성석가사(大聖竹林寺)를 기념, 오대산에 죽림사를 창건하고 입적했다. 대사께서는 유훈으로 "이제 내 할 일을 다 마쳤으니 이 세상에 더 있어 무엇하리요." 하고는 삼계윤회를 벗어났다. 대사의 정확한 왕생 시기는 기록(불조통기에 822년 설이 있다)이 확실하지 않지만, 입적 후 칙명에 의해 대오화상(大悟和尙)이라고 칭해졌다.

문수·보현보살이 성취하고 권한 염불법

문수보살은 지혜 제일로 칠불(七佛)의 조사이시며, 보현보살은 여래의 장자로서 만행(萬行)을 구족하신 대보살이다. 이러한 대성인들께서 "염불은 제법(諸法)의 왕"이라 하셨으며, "속히 성불함에는 염불보다 나은 법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주셨거늘, 어찌 믿지 않을 것인가. 이러한 수승한 정토법문을 눈앞에 두고 믿지 못해 외면하고서 무슨 특별한 법을 닦을 것인가. 독자님들께서는 정토법문을 참구하여, 시작도 끝도 없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해법을 마련하시길 두 손 모아 발원한다. 나무아미타불.



김성우(도서출판비움과소통 대표)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2017.6.7~2017.6.13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깨달음의재발견	우오가와유지	(주)조계종출판사
2	호흡법문핵심강의	남회근	마하연
3	사는게내맘같지않을때힘이되는말	범수스님	담앤북스
4	물흐르고꽃은피네(좋은때를놓치지않고사는법)	금강	불광출판사
5	홀가분한동행	종연스님	뜨란
6	야단법석(2)	법륜	정토
7	너는이미기적이다	틱낫한/이현주	불광출판사
8	아무도너를묶지않았다	월호	쌤앤파커스
9	위대한스승청화큰스님	유철주	상상출판
10	우리가 사랑할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일초스님외	민족사

현불Shop OPEN MARKET www.hyunbulshop.com

삼귀의와 사홍서원… 모든 교리 관통

불교란 무엇인가

이중표 지음 | 불광 펴냄 | 1만 6천원



불교 초심자들에게 지평이 되어준 〈불교란 무엇인가〉가 재복간됐다. 이 책은 원래 평생을 불교연구에 매진한 이중표 전남대 교수가 1995년 BBS불교방송서 교리강좌를 진행하면서 집필한 원고를 바탕으로 2012년 출간됐다.

어렵게만 느껴지는 불교를 현대인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한 이 책은 초기불교와 대승불교를 모두 아우르는 세밀한 구성과 신앙적 측면까지 고려해 저술된 불교개론서로 불자와 일반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지만 전 출판사의 경영악화로 안타깝게도 절판 되고 말았다. 하지만 여전히 〈불교란 무엇인가〉를 찾는 독자들의 요청과 불교 입문서의 필요성을 느낀 불광출판사는 이중표 교수와 협의해 이 책을 다시 펴냈다.

제목서도 알 수 있듯이 〈불교란 무엇인가〉는 불교 본질에 대한 현시대적 물음의 답변이다. 현대인들이 느끼는 불교에 관한 궁금증에 답함과 동시에 일반 불자들도 교리를 심화시킬 수 있는 '지침서'라 할 수 있다. 이 책은 대중 눈높이에 맞춰 쉬운 우리말과 예시로 불교 교리를 담백하게 설명한 부분이 특히 돋보인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서를 만들고자 한 이중표 교수의 노고도 동시에 엿볼 수 있다.

이중표 교수는 '삼귀의는 불교의 출발점이고 사홍서원은 불교의 결론'이라고 말한다. 모든 법회가 삼귀의로 시작해서 사홍서원으로 끝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한다. 삼귀의와 사홍서원을 사이에 두고 불교의 모든 교리가 관통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가르침은 〈불교란 무엇인가〉의 기준점이 된다. 불 · 법 · 승 삼보에 의지하는 삶은 인간 본연의 참모습이고, 사홍서원은 자리이타적 삶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풀어서 설명한다.

"불교에는 삼귀의와 사홍서원이 있습니다. 삼귀의는 부처님(佛) · 부처님의 가르침(法) · 승단(僧), 이 세 가지 보물(三寶)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맹세입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극복하고 해탈을 성취한 성자입니다. 열반에 이르는 방법을 중생에게 차별 없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침대로 실천한 많은 이들이 번뇌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 고통받는 모든 이들의 의지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삼보에 의지해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중생은 비로소 속세를 벗어나게 됩니다. 마음속에 자비심이 일고 '너와 나'의 분별을 여의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큰 서원(四弘誓願)을 세웁니다. 가없는 중생을 구제하고, 다함이 없는 번뇌를 끊고, 무량한 법문을 배우고, 무상의 불도를 성취하고자 합니다." 이 관점을 기준삼아 불교에 접근해야만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저자는 조언한다.

욕탐(欲貪)과 원(願)이 있다. 욕탐은 세간의 마음이고, 원은 출세간의 마음이다. 세간은 중생이 몸담고 있는 속세이고, 출세간은 열반의 세계이다. 이 욕탐과 원은 인간의 의욕이라는 점에서 같다고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가 있다. 욕탐은 어리석은 마음이 거짓된 허구를 만들어 그 허상을 맹목적으로 쫓는 욕망을 말한다. 잡을 수도,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에 대한 집착이다. 이러한 욕탐에는 만족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번뇌를 일으키고 고통을 준다. 원은 이 욕탐서 벗어나려는 마음상태를 의미한다. 부처와 같은 법신(法身)을 이루기 위한 자들이 원을 세운다. 이 원을 세우는 힘이 원력(願力)이고, 원력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아(無我)를 깨쳐야 한다고 이중표 교수는 말한다. '무아'는 '연기(緣起)하는 나'를 의미한다고 한다. 이것을 깨달아 체득한다면 그것이 바로 법신이라고 책은 알려준다.

'무아'는 '연기(緣起)하는 나'…무아 깨쳐야 법신 이뤄

시대상으로 보는 고대 인도와 오늘날 우리와도 비교

〈불교란 무엇인가〉는 단순히 교리만 담은 책이 아니다. 불법승 삼보로 시작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중도를 포함한 불교의 주요 교리뿐만 아니라, 불교가 탄생한 당시 인도의 사회적 배경, 사상적으로 경쟁한 바라문교와 자이나교 등과의 관계를 자세히 서술해 불교를 이해하는 데 넓은 안목을 제시한다.

저자는 비록 2,500년 전의 일이지만 정치 · 경제 · 사회가 혼란하고 삿된 종교가 판치던 당시 상황이 지금의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혼란한 시기에 교세를 확장하는 불교에 위기감을 느낀 다른 종교들은 끊임없이 사상적으로 불교에 도전해왔다. 이러한 논쟁의 과정 속에서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은 빛을 발했고, 많은 바라문교도들을 불교도로 만들어 불교의 교세가 더욱 확장되는 계기가 됐다고 책은 전한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올바른 신행 길잡이

불교입문

조계종 포교원 편찬 | 조계종출판사 펴냄 | 1만 2천원



2,60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넓고도 깊게 발전한 불교는 그 역사만큼이나 알아야 할 것이 많은 종교다. 그래서 처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렵게 느껴지기도 한다. 〈불교입문〉은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 알려주는 책이다.

전 세계 수많은 종교 중 불교만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인지, 부처님 · 보살님 · 신중님 등 불교서 믿고 의지하는 분들은 어떤 존재인지, 부처님은 어떤 삶을 사셨고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불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 등 불교와 신행 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비롯하여 사찰의 전각이나 불보살상과 같은 불교문화에 대한 소개, 한국불교 대표 종단인 조계종의 역사 등 이 책서 다루는 내용은 그 범위가 무척이나 넓다. 하지만 여러 주제를 다루었음에도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만을 골라 소개했고,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는 간결하면서도 쉽게 서술했다. 그래서 혼자 읽어도 불교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를 처음 만나는 사람은 물론 불교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도 친절한 안내자 역할을 해줄 것이다.

〈불교입문〉은 1996년 9월에 초판이 발행된 이후 여러 차례의 수정 증보판을 거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불교를 소개한 불교계의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이기도 하다.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이 발행된 이후 5년만에 새롭게 탄생한 이 책은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과 동일한 판형, 동일한 글자 크기로 가독성은 유지하면서, 각각의 주제는 보다 자세하게 다루었다. 예를 들어 부처님 생애에 대한 부분을 보면, 종전의 〈불교입문〉서는 1쪽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2017년 개정판 〈불교입문〉서는 여덟 개의 절로 나누고, 열여덟 쪽에 걸쳐 좀 더 세세히 서술했다. 이런 식으로 이전의 〈불교입문〉이 갖던 단점과 아쉬운 점들을 수정, 보완했다. 또한 본문에 '요점 정리'와 같은 읽을거리를 함께 실어 본문 이해를 도왔다. 사찰을 칭하는 여러 단어는 어떤 의미인지, 삼학과 삼독, 팔정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 본문에 서술된 용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을 실어 개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본문에는 없지만 더 알아두면 좋은 개념도 소개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미지 자료를 컬러로 수록한 것도 이 책의 장점이다. 2012년 개정판 〈불교입문〉이 도판을 흑백으로 담아 독자에게 아쉬움을 남겼다면, 2017년 개정판 〈불교입문〉서는 불보살상이나 전각, 불화 등 다양한 도판들을 컬러로 수록하여 좀 더 생생한 느낌을 담았다.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책 내용을 대폭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을 두루 수렴해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신도교재편찬위원회를 구성했다. 스님과 재가자가 함께 어우러진 신도교재편찬위원회는 십여 차례에 걸친 편찬회의를 통해 이 책의 집필 방향과 목차를 구성하고, 또 여러 차례 검토했다. 그리고 이러한 집필 방향과 목차에 따라 불교에 정통한 전문 집필위원이 글을 써서 독자들을 올바른 신행의 길로 안내하고자 하였다.

조계종포교원 신도교재 편찬 위원회 구성

2012년 재개정판 이후 5년만에 다시 개정

그렇게 만들어진 이 책이 불교란 무엇인지에 대해 소개한 다른 수많은 입문서들과 구분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불교 교리 소개에 그치지 않고 현실에 적용, 실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점이다. 불교는 개인의 수행, 그리고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만큼이나 실천이 중요하다. 본문이 교리에 대한 설명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함께 제시하고, 각 장이 끝날 때마다 토론하고 사유해 보도록 하는 실천과제를 제시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이다.

김주일 기자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사 기록 담아… 2014년 준공

부처님의 땅에 부처의 씨앗을

관허 보명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 3천원



경주 보광사 주지 보명 스님에게 인도는 가피의 땅이다. 지혜와 행복이 충만한 삶을 선물한 부처님 가르침이 잉태한 자비의 도량이기도 하다. 그런데 인도 성지 어느곳을 가나 스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 온 것은 거리의 아이들이다. 차마가 오고 가며 먼지를 풀풀 날리는 도로가에서 노트 한 권을 펼쳐 놓고 공부하는 아이들, 맨발에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순례객들에게 자비를 구하는 아이들, 스님은 그들의 커다란 눈동자가 내내 잊히지 않았다.

그렇게 수차례 인도성지 순례를 다녀올 동안 감사와 환희심으로 가득찬 스님의 마음에 꿈많은 인도 청년 신뚜가 씨앗 하나를 심었다. 그것은 단 한칸의 교실이라도 아이들이 공부를 공부답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는 것이다. 스님의 불사 계획이 알려지자 후원 인연이 곳곳서 답지 했다.

이번 책 〈부처님의 땅에 부처의 씨앗을〉에는 보명 스님의 회고록이자 인도 〈파담파니 관세음학교〉 불사의 기록을 담았다. 부처님 성도지인 보드가야대탑에서 약 10㎞가량 떨어진 불가촉천민들의 생활터전에 학교 용지를 매입해 우물을 파고 건물을 세웠으며, 2014년 11월 '파담파니 관세음학교'를 준공했다. 천진불 교육도량으로서 첫 걸음을 뗀 것이다. 이윽고 인도 정부가 인정하는 '파담파니 교육 및 사회재단'으로 성장했다.

책은 불교 성지를 무대로 부처님 발자취를 따라가며 〈파담파니 관세음학교〉의 불사 과정과 그 속에서 만난 인연담을 감동적으로 소개한다. 특히 마지막 장에는 '나'와 '삶'과 '마음'을 노래한 스물 두 편의 시를 수록해 긴 호흡으로 술회한 인도 이야기를 휴식으로 갈무리 한다.

김주일 기자

원효 탄생 1400주년,

원효사상에 대한 새로운 접근!



원효, 불교사상의 벼리

-원효사상의 새로운 성찰, 인도 및 중국 불교와의 만남

한국 불교의 바깥에서 바라본 원효!

주로 한국불교의 맥락에서 연구된 기존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도 및 중국불교의 주요한 사상들과 원효사상을 비교 연구하여, 원효 이해의 지평과 원효사상의 외연을 확장하였다.

권오민, 이병욱, 김도공, 김성철, 배경아

신국판/무선/336쪽/15,000원

●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동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주문 (02) 3672-7181

선禪과 현대미술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예술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작가 〈윤양호의 33회 개인전〉

작품집

ZEN AND MONOCHROME

(선과 단색화) 출간 기념 전시



서양에서의 현대미술은 선을 빼놓고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선禪적 지향이 뚜렷하다. 한국의 윤양호는 그 접점에 서 있는 작가 중 한 명이다. 현대미술의 흐름을 아우르면서 그만의 독창성이 어우러진 강렬하면서도 절제된 작품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B3판/양장/244쪽/50,000원/운주사

윤양호: 독일 국립 쿤스트아카데미 뒤셀도르프 미술대학에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선조형예술학과 교수이다.

기간 : 2017.05.10-15

장소 : 인사아트센터 | 본전시장(1F)

Tel (02) 736-1020

노래하는 정율 스님, 관객 위한 선물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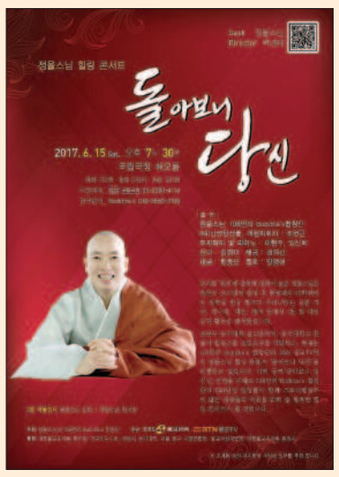
6월 15일 국립극장 해오름서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

지난해 12월 광주에서 첫 개인 콘서트를 열며 광주 시민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빠트렸던 정율 스님이 서울에서 두 번째 공연을 연다. 6월 15일 오후 7시 30분 국립극장 해오름에서 열리는 정율 스님의 힐링 콘서트 '돌아보니 당신'이다.

'노래하는 스님' '불교계 프리마돈나' 등으로 명성이 자자한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을 졸업한 후 원광대 사범대 및 동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했다. 한국, 대만, 캐나다, 태국 등에서 1000여회 이상 연주활동을 이어온 불교계 대표 음성포교사로 꼽힌다. 특히 2011년 MBC 뮤지컬 '원효'에서 어머니 역을 맡아 불교계 안팎에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서울 공연은 기획, 연출, 시나리오까지 정율 스님의 손을 거치지 않은 것이 없다. 정율 스님이 몇 달여 동안 직접 모든 공연을 준비했다. 종교인이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율 스님은 A부터 Z까지 더욱 정성을 들였다.

무대는 '천의 손 천의 눈' '얼마나 닦아야 거울 마음 닮을까' '이루어지이다'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구름 걷힌 달처럼' '향심' 등 불자들의 심금을 울릴 정연 스님의 솔로 8곡 등으로 채워진다. 이 외에도 정율 스님이 이끄는 108인의 Buddha's 합창단, E&I남성앙상블, 신디 김경미, 해금 성의신, 대금 한충은, 첼로 민영애 등으로 구성된 최강의 라인업이 함께해 무대 완성도를 높였다.



'노래하는 스님'으로 명성 떨쳐
광주 첫 개인 콘서트 후 2번째
'천의 손 천의 눈' 등 솔로 8곡
해금 성의신 등 함께 무대 올라

특히 2곡이 끝날 때마다 정율 스님은 관객들에게 부처님 말씀, 인연과 관련한 이야기 등 다양한 스토리를 들려주며 소소한 감동을 전할 예정이다. 1부 처음과 끝에는 잠깐의 선 명상 시간도 마련했다. 관객들이 바깥세상의 번뇌를 모두 내려놓고 공연 시간만큼은 온전히 집중해 마음의 평화를 얻길 바라는 마음에서다.

"공연에 와 주시는 분들은 모두 몇 천 겁의 인연이 닿아 함께할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연도, 행운도 아닌 시절인연인 셈이지요. 녹조가 생긴 물에 샘물이 흘러 물이 다시 맑아지듯, 삶에 지친 분들에게 제 노래가 샘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공연 당일엔 무비 스님이 공양한 책 〈108자재어〉를 비롯해 차, 떡 등을 관객들을 위해 나눈다.

공연은 티켓 오픈 일주일 만에 매진 세례다. 표가 없어서 초청권으로 나눴던 표까지 거둬들이고 있을 정도. 관객들의 뜨거운 성원에 정율 스님은 벌써부터 앵콜 공연에 대한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다.

"종교인으로서 공연장 대관에 어려움이 있지만 더욱 많은 지역에서 관객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인천, 청주, 부산 등 전국에서 공연을 할 계획입니다."

이번 공연의 수익금 일부는 조계종 승려복지회 후원에 쓰인다.

정율 스님은 운문사승가대학 불교음악과 및 동국대 찬불가 힐링스쿨에서 전임교수를 역임했다. 현재 108인의 Buddha's 합창단을 이끌고, BBS불교방송에서 힐링 찬불가 '돌아보니 당신'을 진행하고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BBS불교방송 모바일앱, 1만 다운로드 돌파

통합앱 및 라디오 전용앱 출시 한 달 만



BBS모바일앱 안내서.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신설한 모바일앱 다운로드 수가 출시 한 달 만에 1만건을 돌파했다.

BBS불교방송는 앞서 4월 24일 통합앱 'BBS불교방송'과 라디오 전용앱 'BBS보리'를 출시, 5월 31일을 기점으로 각각 1만 · 5000건의 다운로드 수를 기록했다. 5월 31일부터는 앱스토어(아이폰)에서도 모바일앱 설치가 가능해져 다운로드 수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통합앱 'BBS불교방송'은 라디오, TV, 뉴스, 커뮤니티 만공회 등 BBS가 제공하는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라디오 전용앱 'BBS보리'는 BBS불교방송의 라디오 청취 뿐 아니라 24시간 청취 가능한 '공감' 채널을 통해 찬불가와 독경, 세계 명상음악, 올드 팝송 등 다양한 음악을 들을 수 있도록 했다.

BBS불교방송 모바일앱은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폰)와 앱스토어(아이폰)에서 'BBS불교방송' 또는 '보리'를 검색한 후 다운로드 하면 된다. (02)705-5518 박아름 기자

로터스갤러리, 박기태 외 4인 신진작가 기획전

개인전 공간 · 전시 비용 · 격려금 200만원 지원

무각사 로터스갤러리의 2017 신진작가 기획전이 열린다. 올해 선정된 전시 작가는 박기태(시각예술) · 양세미(한국화) · 이재운(미디어-설치) · 김단비(회화) 총 4명이다. 무각사는 4명의 작가들에게 개인전을 열 공간과 전시 비용, 격려금 200만 원 등을 지원한다.

첫 전시는 박기태 작가의 'under-stand 아래에 서다'로 시작된다. 박기태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조소전공을 한 후 동대학원에 재학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해하다'란 뜻의 영단어 'understand'에서 영감을 얻어, 다양한 문화가 어우러진 우리 생활 속 자연스러운 '차이'와 '시각'을 표현한다.

특히 박쥐 이미지를 '경계자(중간자) 적' '규정하기 힘든 것' 들을 상징하는 의미로 차용해 독창적인 작품관을 선보일 예정이다. 6월 28일까지.

이밖에 전시 작가 일정은 △양세미 7월 1~29일 △이재원 8월 1~29일 △김단비 9월 1~29일이다.


인물박쥐, 박기태 作

무각사 주지 청학 스님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작가의 길에 들어선 신인작가들에게 도약의 계기를 마련해주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청년작가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지겠다. 이들의 의욕적인 작품 활동을 통해 광주 지역 미술계의 큰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동국대 개교 111주년 '외길 김경호 사경 초대전'

6월 23일까지 동국대박물관 초대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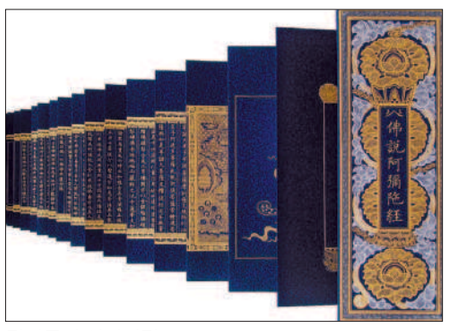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박물관은 개교 111주년을 맞아 '외길 김경호 사경 초대전'을 6월 23일까지 마련했다.

사경은 부처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경전을 한 자 한 자 손으로 베껴 쓰는 수행법이다. 집념과 인내의 마음 자세를 갖추지 않으면 완성하기 어려워 수행법 중에서도 힘든 편에 속한다.

외길 김경호는 전통 사경의 맥을 잇겠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정진해 왔다. 불경 뿐 아니라 성경, 유교경전 등도 제작하고 있어 사경 영역의 무한함과 가능성을 창출하고 있는 작가로 평가받는다.

국내 유일의 전통사경 기능전승자(고용노동부장관 2010-5호)로 1997년 조계종 총무원과 동방연서회가 공동 주최한 제1회 불교사경대회서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외길 김경호의 대표작 감지금니일불일자 〈화엄경 약찬게〉와 감지금니7층보탑 〈법화경 견보탑품〉, 고려 사경을 재해석한 작품 및 창작사경을 포함해 약 20여점의 작품들이 소개된다.


감지금니 아미타경.

동국대 박물관은 "이번 전시는 문화재를 전시 · 조사하는 박물관을 넘어 과거와 현재를 잇는 매개체로서 박물관의 역할을 드러낼 것"이라며 "불교종립대학박물관으로서 역할을 보여주는 전시란 점에서 매우 의미있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월정사 · 춘천박물관, 2018 평창올림픽 기념 특별전

'강원의 성자(聖者)와 미소'
2018년 1월 29일~3월 25일

국립춘천박물관(관장 김상태)과 월정사성보박물관(관장 정념)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념 특별전 '강원의 성자(聖者)와 미소'를 2018년 1월 29일~3월 25일 월정사성보박물관 신관에서 공동개최한다. 국립춘천박물관과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앞서 6월 2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별전 공동개최와 성보문화재 보존 및 연구 · 조사 등 협력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송사지석조보살좌상(국보 127호), 상원사 문수보살(보물 1811호), 영월 창령사지 출토 오백나한 등 성보분화재들이 전시돼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고 우리나라 및 강원의 문화 역량을 뽐낼 예정이다.

월정사성보박물관은 "이번 전시로 평창올림픽을 문화올림픽으로 성공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양 기관이 추진할 각종 공동사업은 지역민들에게는 강원문화의 자긍심을 북돋우고, 국민과 세계인들에게 강원 문화를 널리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125년 전 여행가 '새비지' 그가 남긴 길을 따르다



저절로 가는 길
⑫ 중흥사서 문수사 가는 길

서울을 내려다 보는 북한산 문수봉 전경. 새비지 랜도어는 중흥사에서 문수사로 가는 길목의 이 봉우리에서 조용한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의 행적은 유별나 보이지만 사찰순례에서 얻은 영감이 우리나라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하다.



태고사 원증국사사리탑



복원불사 중인 중흥사 만세루



보현봉을 바라보는 문수사 전경

- 걷는길 : 북한산성 버스역 – 대서문 – 중성문 – 중흥사 – 태고사 – 행궁지 – 대남문 – 문수사 – 구기동 계곡
- 거리와 시간 : 12km 정도, 5시간 예상

등산객 하나가 나보다 앞서 어기적어기적 비탈길을 오른다. 나는 그의 등 뒤에서 가물거리는 옛 사람의 자취를 본다. 잘 알려진 사람부터, 덜 알려진 사람, 그리고 전혀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북한산 중성문 안쪽에 있는 중흥동을 지난다.

북한산성 축조를 명령한 숙종이 지났고, 산영루 터에 시비를 남긴 정약용이 지났다. 중흥사 주지 태고 보우 대사가 지났고, 생육신 김시습이 지났다. 총융사(摠戎使)를 지내 산영루 왼쪽 비석거리에 이름을 남긴 신헌이 지났고, 안무사(按撫使)라 불리며 민심을 수습했던 김성근이 지났다.

모두 당대의 명사였지만, 영국 여행가 아놀드 새비지 랜도어(Arnold H. Savage Landor)만큼 눈에 띄지는 않는다.

중흥사(重興寺)는 비석거리 왼쪽에 있다. 비석거리에서 조금 아래 이정표가 있는 갈림길 오른쪽, 계류를 건너 이어지는 길은 의상능선의 부왕동암문으로 올라선다.

중흥사를 창건한 시기는 12세기 초로 추측한다. 고려 숙종 8년에 제작된 중흥사의 금고(金鼓), 군대에서 지휘용으로 쓰던 징과 북이 지금까지 남아 있다. 거란이 고려를 침범했을 때는 태조의 재궁(齋宮)을 이곳으로 옮겨왔다. 혹여 거란족이 불을 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 후 중흥사는 무슨 까닭인지 갑작스레 폐사지로 변했다. 중흥사가 최후에 이른 것은 고종 때 입은 두 차례의 화재 때문이었다. 설상가상으로 1915년에는 대홍수까지 겪었다.

북한산을 유람하는 주요 인사들은 으레 북한산성 수비의 중심지였던 중흥사에 들렀다. 새비지 랜도어는 1890년 중흥사를 다녀갔다. 호기심이 많은 데다 모험심까지 강한 이 청년화가는 몇 장의 그림과 함께 '고요한 아침 나라 조선. Corea of Cho-Sen : The land of The Morning Calm'이란 여행기를 쓴다. 그의 중흥사 견문기는 북한산

새비지 '아침의 나라' 평가
북한산 산행에서 비롯돼
그의 여행기는 일종의 참배기

중흥사를 처음 방문하는 이방인의 시선을 보여준다. 상부에서 특별한 지시가 있었는지 중흥사 스님들은 푸른 눈의 새비지에게 유별난 친절을 베풀었다. 새비지의 눈이 여유롭게 가람을 쓰다듬는다.

그곳에 방문했을 때, 승려들은 나를 공손하게 대해 주었으며 진기한 것들을 보여 주었다. 나는 마중 나온 스님들과 인사를 나누는 이방인 새비지 랜도어 곁에 슬그머니 다가선다. 2015년과 1890년이 접촉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중흥사는 다른 절보다 보존상태가 훨씬 좋았으며, 지붕 밑의 단청과 장식이 밝은 색조를 띤 것으로 보아 최근에 개축한 것 같았다. 불광사 회주 지홍 스님의 불사로 대웅전이 복원됐다. 아직 단청을 하지 않은 전각에서 알싸한 나무냄새가 났다. 새비지가 길을 묻듯 내 곁에 가까이 왔으므로 태고사 쪽으로 함께 걸음을 옮긴다. 이번엔 1980년이 2015년과 나란히 길을 걷는다. 태고사의 옛 이름은 중흥사를 중수했을 때 지은 태고암이다. 대웅전과 산신각을 거쳐 올라간 새비지는 그 옛날에 무심코 지나쳐보았던 부도 한 기를 뒷동산에서 발견해낸다. 우리나라 불교 여러 종단에서 종조(宗祖)와 중흥조(中興祖)로 숭배하는 태고 보우 대사, 그의 입적을 기려 세운 원증국사부도탑이다.

태고사를 나와 새비지 랜도어와 함께 오른 길은 청수동암문 방향이었다. 중흥사에서 청수동암문 방향으로 경사가 완만한 계곡을 이삼백 미터 올라가면 행궁(行宮)이 나온다.

전란을 피해 임금이 거처하는 산속의 궁전이 행궁이다. 임진왜란 같은 병화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소원하며 1711년에 숙종이 지었다. 새비지는 이 궁전에 대해 '서까래가 썩어 지붕이 무너져 내린 집이 많았으며, 주요 건물도 매우 황폐했다' 라고 묘사한다. 고종의 어진을 유화로 그린 화가다운 관찰이었다.

새비지 랜도어는 성벽 너머 조계폭포를 보면서 다시 산을 오른다. 계곡을 따라 오르면 어영청 유영지가 나오는데, 그 왼쪽 길을 통해 대성문이 있는 능선에 올랐고, 대성문을 거쳐 대남문을 찾아갔다. 지붕이 없는 대남문 너머로 오래된 암자 한 채가 보인다.

125년 전의 새비지 랜도어는 대남문을 지나 절벽에 가까스로 난 좁은 길에 발을 디뎠다. 문수봉에 매달리듯 기댄, 지금은 문수사(文殊寺)로 부르는 작은 암자의 위태로운 아름다움을 만끽할 요량이었다. 과연 그는 모험심이 강한 제국의 괴짜 청년이었다. 새비지(Savage), 야만인이라는 별칭을 이름 앞에 공연히 덧붙인 게 아니었다.

절벽 끄트머리에서 작은 절이 암반을 등지고 있었다. 이곳으로 들어가는 길은 한 사람이 겨우 드나들 만한 폭이어서, 조금만 발을 잘못 디뎌도 낭떠러지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

지금은 쇠기둥을 단단히 박고 그 위에 고무를 깐 계단을 설치해서 누구나 안전하게 절벽을 통과해 문수사로 갈 수 있다. 건너편 보현봉이 구름 위에 앉아 둥둥 떠간다. 북한산에서 절경을 감상할 수 있는 각도의 하나가 보현봉을 바라보는 문수사임을 아는 사람은 안다.

문수사에 있는 불상들은 새비지에게는 낯설지만 우리에게는 낯익은 것들이다. '어떤 신상은 긴 관복에 깃을 단 관모를 쓰고 평온하고 위엄 있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외의 신상은 사나운 눈매에 호전적인 무사의 형상이었다.' 사천왕상이나 지장전의 시왕을 표현했음직한 새비지의 문장은 웃음을 자아낸다.

유래가 깊어 설까, 절이라 불러야 할지 암자라 불러야 할지 곤혹스러울 만치 문수사는 꽤 여러 전각을 거느리고 있다. 그러나 문수사를 대표하는 것은 문수굴이라고 부르는, 문수천연동굴(三角山天然文殊洞窟)이다. 새비지도 이를 놓치지 않았다.

새비지의 북한산행은 그가 의도했든 안 했든 중흥사와 태고사, 문수사를 거침으로써 사찰순례가 돼버렸다. 그의 하산길은 내리막이 길기로 소문난 구기동 계곡이었다. 그리고는 그 당시 북문이라고 부르는 홍지문을 통해 서울로 들어갔다.

언제 어디서 새비지와 헤어졌는지 모르겠다. 구기동 계곡을 빠져나와 버스 정거장으로 가는 동안 어느새 나는 혼자였다. 125년의 역사가 기나긴 꿈을 꾸다 깨어난 듯 눈앞이 몽롱했다.

영국에서 태어나고 프랑스에서 미술을 공부한 아놀드 새비지 랜도어는 나와 헤어진 뒤에도 역마살이 낀 사람처럼 오대양 육대주를 찾아다녔다. 그는 미국, 호주, 아프리카, 대서양의 아조레즈군도를 여행했고, 민다나오에 체류할 때는 그곳에 백인종 만사카스가 살고 있음을 외부 세계에 알렸다.

러시아와 인도의 지리를 연구했고, 아프리카와 남미를 횡단했으며, 네팔의 룸파산을 등반했다.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벨기에 정부에 고용되어 전령으로 활약했다는 전언도 있다. 그의 행적이 유별나 보이지만 어쩌면 사람마다 자기 생이 지시하는 길을 가야 하는, 의무 아닌 의무가 있지 않을까. 나 또한 내게 남아 있는 길을 다 걸어야 하니.



고원영(조계종 산악회 수석부회장)





용수 스님(세첸코리아 대표)

티베트 불교 1분 명상

마음의 힘은 무한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아무리 좋지 않더라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마음이 아무리 초조하더라도 고요히 할 수 있습니다.

번뇌망상이 아무리 많더라도 마음을 닦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능성은 무한합니다. 마음의 힘은 무한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림 · 최주현



황선미(시인)

隨處作主, 내 삶의 주인공은 나

서로 존중하는 세상 만드는 '正見'

영국의 소설가 오스틴이 쓴 장편소설 〈오만과 편견〉은 세계적인 고전으로, 사회 계급에 대한 차별과 이를 극복하는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오만(傲慢)이 건방지고 거만한 행동을 말한다면 편견(偏見)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특정 인종이나 계급, 직업군에 대해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각입니다.

중국이 개항한 후 서방 열강이 사실상 상하이를 점령했는데, 당시 영국 영사관 앞에 만들어진 공원 입구에는 '중국인과 개는 출입금지(華人與狗不准入?)'라는 푯말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문구는 당시 반포된 공고의 후속조치인데, 백인을 모시는 중국 하인은 예외로 규정했다는군요.

그런데 얼마 전 서울 이태원의 유명 식당에서 특정 국가 국민들의 출입을 금지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식당 입구를 관리하던 보안요원들은 인도 · 파키스탄 · 카자흐스탄 · 사우디아라비아 · 몽골 · 이집트 사람의 입장을 제한했다고 하는데, 인종에 대한 편견이 낳은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단면이라 하겠습니다.

편견은 중생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번뇌의 한 종류입니다.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다보면 그 집단이나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편견을 인식하지 못한 채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부처님의 수많은 가르침들은 모두 편견을 깨고, 정견의 눈을 뜨게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우화입니다.

장님과 코끼리

옛날 어느 한 나라 왕이 칙명을 내려 나라 안의 모든 장님을 모이게 했습니다. 수많은 장님이 모이자 왕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코끼리의 생김새를 아느냐?"

여러 장님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지 못합니다."

왕은 다시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코끼리를 모른다니, 지금이라도 코끼리의 형상이 어떠한지 알고 싶지 않느냐?"

여러 장님들은 다 같이 대답했습니다.

"왕의 은혜로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니 참으로 기쁩니다."

왕은 코끼리 조련사를 시켜서 우리에서 코끼리 한 마리를 몰고 오게 했습니다. 조련사는 여러 장님들에게 코끼리를 만져보게 한 뒤에 왕에게 사실대로 아뢰게 했습니다. 장님들은 한동안 제각기 코끼리의 이곳저곳을 만졌습니다.

잠시 뒤 왕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코끼리의 생김새를 알았느냐?"

장님들은 차례대로 코끼리의 생김새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코를 만져 본 이는 왕에게 코끼리의 모양은 마치 동아줄 같다고 말했고, 어금니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의 모양이 말뚝 같다고 말했으며, 귀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의 모양이 곡식을 고르는 키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머리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가 항아리 같다고 말했고, 목을 만져 본 이는 코끼리의 모양이 집의 대들보 같다고 말했고, 등을 만져 본 이는 코끼리가 용마루와 같다고도 했습니다. 갈비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의 모양이 대자리 같다고 했고, 넓적다리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의 모양이 절구 같다고, 꼬리를 만져 본 이는 코끼리가 빗자루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우화
편견 · 오만 경책하는 메시지
正見하는지 스스로 돌아봐야

여러 장님들은 각자 자신들이 만져본 게 옳다고 주장하며 말씨름했고, 상대를 헐뜯으며 다투었습니다. 왕은 장님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세기경용조품(世紀經龍鳥品)〉 중에서

부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 "장님들이 말한 이 모든 것이 코끼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온전한 대답도 아니듯이, 너희들의 이야기도 불법(佛法)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대답이라 할 수는 없다"며 진리에 대해 함부로 속단하지 못하도록 주의를 주셨습니다.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진다'는 '군맹무상(群盲撫象)' 이야기는 자신이 아는 조그만 부분을 가지고, 마치 모든 것을 아는 냥 고집하는 좁은 소견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꾸짖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불법이다', '저것이 불법이다'는 식의 논쟁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코끼리를 더듬은 장님의 평과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또 무언가를 조금 안다고 마치 그것이 전부를 아는 냥 착각하고 자만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해 〈법구경〉에서는 '장님이 촛불을 잡은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단한 체하며 교만하게 굴면 마치 장님이 촛불을 잡고 주변을 비추지만 정작 자신은 밝히지 못하는 것과 같음을 비유합니다.

정견(正見)과 부정견

편견을 깨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견(正見)의 지혜를 지녀야 합니다. 정견은 팔정도의 하나로 '바른 견해'라고 해석하는데, 모든 현상이 생하고 멸하는 우주의 법칙[緣起]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인 고제(苦諦) · 집제(集諦) · 멸제(滅諦) · 도제(道諦)에 대한 지혜를 말하기도 합니다. 이 사성제는 사랑과 우정을 주제로 한 지난 5회분 원고에서도 언급했지만 다시 정의하면 고(苦)는 괴로움(생 · 노 · 병 · 사 · 원증회고 · 애별리고 · 구부득고 · 오온성고)이며, 집(集)은 괴로움의 원인을 성찰하는 일입니다. 멸(滅)은 고통 없는 해탈이며, 도(道)는 니르바나로 가는 길(八正道-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을 말합니다. 이 사성제를 직시하면 세상의 편견을 깨고 정견의 지혜를 갖출 수 있습니다.

정견의 반대는 부정견인데, 편견도 부정견(不正見)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잘못된 견해'라는 뜻의 부정견은 악견(惡見)과 같은 말로 '잘못된 견해' 또는 '삿된 견해'라는 뜻의 사견(邪見)과도 같은 뜻입니다.

수행자가 부정견에 유의해야 한다면, 중생들은 편견을 조심해야 합니다. 편견은 나쁜 행위를 하게 만들어 악업(惡業)을 짓게 합니다. 하지만 부처가 아닌 중생이 항상 바른 견해를 유지한다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 자신이 편견의 벽을 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자각하면서 '지금의 생각이 편견(부정견)은 아닌가?'하는 의문과 점검을 습관화해나간다면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음을 여는 불자들의 쇼핑몰 현불샵

현불샵 OPENMARKET이 불자여러분과 함께합니다

wwww.hyunbulshop.com

박태원 보석감정원

천연A비취(玉)



▲보석감정서 ▲보석감별서(앞,뒤)

◀박태원보석감정원 ☎ 1599-9231

● 비취에는 A, B, C비취의 단계로 나뉜다.
▶ A비취 : 광산에서 채굴한 천연원석을 가공
▶ B비취 : 수지처리 ▶ C비취 : 원석에 염색

비취목걸이 180,000원
비 취 팔 찌 80,000원
크기 : 약 8.5㎜ / 색상 : 진옥색

한국 전통 혼을 담아 제작한 전통 풍경

국내유일의 에밀레 풍탁

고즈녁한 산사, 도심포교원에 울리는 너무나 맑은 소리 풍탁

1 에밀레풍탁은 백제 미륵사지에서 출토된 백제 금동풍탁을 모티브로 개발된 제품으로, 백제 금동 풍탁의 형태에 우리나라 최고의 범종인 에밀레종의 문양을 접목시켜 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디자인 한 새로운 형태의 풍경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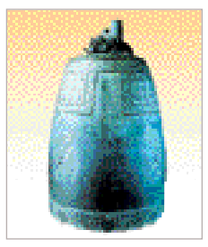
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제작된 풍경은 지금의 형태가 아닌 타원형 또는 정사각 형태의 풍탁이 많으며, 하단의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이 아닌 구름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3 언제부터인가 전통적인 풍탁이 사라지고 원형에 물고기 바람판이 달린 풍경이 출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전통 풍경인 것처럼 사용되고 있으나 실제로 조선시대 이전에 제작된 풍경에 지금 형태의 풍경은 없으며, 바람추도 물고기 형상은 없습니다.

4 우리 전통의 풍경의 모습을 되찾고자 지금까지 제작된 풍경중 가장 아름다운 형태의 백제 금동풍탁에 화려한 에밀레종의 문양을 어우러지게 하고 하단의 바람추도 전통 바람추의 형태에 연꽃 문양을 넣은 새로운 풍경입니다.

■ 규격 및 가격
「소」 85 × 65 × 135㎜ 15만원
「중」 110 × 80 × 160㎜ 20만원
「대」 140 × 95 × 200㎜ 25만원

■ 재질 : 청동







쑥 양초 세트

밀납양초 및 양쑥양초는 그을음이 없고 연소시간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자연향을 원료로 하여 제작한 천연 향초





약쑥양초는 특유의 상쾌한 향과 탈취효과로 잡냄새는 물론 머리를 맑게 합니다.

· 구성 : 6개 · 가액 : 30,000원
· 크기 : 높이 18㎝ × 지름 6㎝

묘법연화경 妙法蓮華經

위업는 법열(法悅) 환희심 가득 찬 향기로운 연꽃으로 거듭 피아나길 맑은 향 사르오며 두 손 모읍니다.

詩人 김하리 합장

할인 행사
~~100,000원~~ → 90,000원



수제 햄머 Hamm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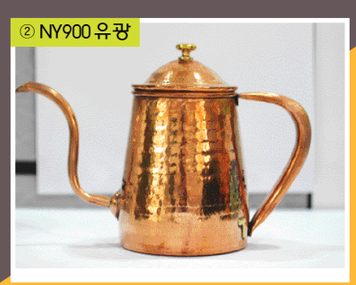
입점기념 세일 BIG SALE

장인의 숨결이 담긴 고결한 햄머

① 드립퍼



② NY900 유광



③ S800 유광



④ 스푼



① **드립퍼** – 고노형, 3~4인용
규 격 : 본체 가로 110 × 세로 95㎜
가 격 : ~~99,000원~~ ➜ 89,100원

② **NY900 유광** (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105(W) × 120(h) × 900㎖
가 격 : ~~180,000원~~ ➜ 162,000원

③ **S800 유광**(수제동 주전자)
주전자본체 : 90(W) × 140(h) × 800㎖
가 격 : ~~240,000원~~ ➜ 216,000원

④ **스 푼** (수제동 스푼 S)
규 격 : 10g
가 격 : ~~15,000원~~ ➜ 13,500원

능인계향

능인계향은 진실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강산 유점사에서 전해진 오분향 법제 그대로 기능성 약용향료를 사용하여 재현한 향입니다. 히말라야를 넘어 구해 온 다섯 가지의 향목과 꽃으로 법제된 능인계향은 그 절대적인 약성으로 기혈을 편하게 풀어주어 새벽예불에도 밤새 안정된 기운을 흐트리지 않습니다.



· 각 30,000원(장,단)
· 규격 : 장(24.5㎝) 약 1시간 10분
단(14㎝) 약 4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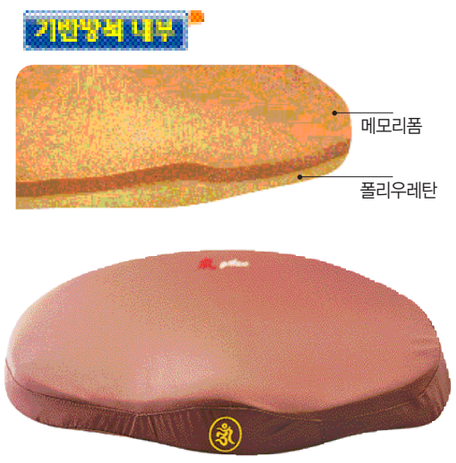
연소시간은 피우는 환경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방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 × 세로 32㎝ × 높이(뒷면) 8㎝]



언제 어디서나 부처님을 모시고 법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당은 물론 옥외 법회 및 방생법회

장엄괘불

편리하게 휴대가 가능하고 손쉽게 조립하여 가방에 담아보관할 수있습니다.

제 품 설 명

■ 괘불 크기 : 가로 200㎝ × 세로 300㎝
■ 무 게 : 15kg
■ 구 성 품 : 휴대용 가방(괘불+설치틀+설명서)
■ 구입가격 : 56만원(주문 → 입금 → 배송)
■ 배 송 : 입금 후 5일내 배송 가능



삼베타올선물 SET

소중한 분께 마음을 전하세요~

강원도에서 재배한 마의 속줄기를 삼베틀로 만들어 선조들의 지혜와 멋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곰팡이를 억제하는 항균성과 항독성이 있는 순수 천연 삼베(햄프)사와 죽사(대나무에 추출한 원사)를 합사하여 제조된 순식물성 제품입니다. 수분을 빨리 흡수, 배출하고 자외선을 차단해주어 피부 자극이 없으며 피부의 노폐물 제거와 혈액순환 촉진으로 곱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꾸어 드리는 환경친화적 제품입니다.



· 샤워타올, 세안타올, 수세미 – 3종 세트
27,000원 (배송비 포함)

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